

# 司救研究

제51집(2023/겨울)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司牧研究』는 ‘계광학술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펴냅니다.

## 발 간 사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저출생 고령화 현상이 한국 교회에도 깊이 스며들고 있음을 각종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청소년 연령대의 감소와 더불어 종교에 대한 무관심으로 성당에서 청소년을 찾기 어려워졌으며, 이는 성소자 감소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참된 사제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는 한국 사회의 요구와 사도좌의 사제 양성 지침인 「사제성소의 선물」에 맞추려는 노력이 『한국 천주교 사제 양성 지침』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51호의 특집 주제는 “『한국 천주교 사제 양성 지침』(개정)과 관련하여”입니다. 『한국 천주교 사제 양성 지침』(개정)은 사도좌의 승인을 받아 2001년에 발표한 『한국 사제 양성 지침』의 개정판으로, 2016년 교황청 성직자성에서 발표한 새로운 사제 양성의 기본 지침인 「사제성소의 선물」(*The Gift of the Priestly Vocation*)을 바탕으로 미래 사제들이 직면할 사회, 문화, 교회 상황에 주목하면서, 한국 지역 사회와 전 세계 선교를 위한 사제를 통합적으로 양성하고자 한국 교회에서 마련한 한국의 사제 양성 지침입니다. 이 지침은 2021년 9월 14일 교황청 성직자성(현 성직자부)의 추인을 받았으며, 사제를 양성하는 우리나라의 모든 신학교의 학칙과 내규에 적용되며, 서품 이후 지속 양성 과정에 들어가는 모든 사제에게도 적용됩니다.

이에 발맞추어 로마의 그레고리안 대학의 ‘사제와 수도 생활 양성자를 위한 성 베드로 파브르 센터’(Saint Peter Favre Centre for Formators to the Priesthood and Religious Life)에서 ‘양성’을 공부한 네분의 신부님에게 현재의 사제 양성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하는

차원들에 대한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제성소의 선물」에서 강조한 사제 양성의 예비 과정, 현대 사회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는 정서적 성숙, 사제 양성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독신의 삶,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제와 수도자가 꼭 알아야 하는 세속화의 개념과 그에 따른 사제의 정체성에 대한 논문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대신학교에서 인성 양성자로 활동하고 있는 한상인 신부는 “사제 양성을 위한 초기 양성으로서 예비 과정의 필요성과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사제성소의 선물」에서 제시하는 기본 양성 과정의 구조인 예비 과정, 제자 과정, 동화 과정, 성소 통합 과정에서 예비 과정에 대한 구체적 노력인 소신학교와 예비 신학생 모임을 고찰합니다. 그리고 예비 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소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곳으로서 가정의 역할과 그러한 성소를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본당과 교구 역할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곧 예비 과정의 강화를 위한 가정, 본당, 교구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여 하나의 이정표 역할을 수행하려는 연구라 생각합니다.

부산가톨릭대학교 인성교양학부에서 가르치고 있는 김수환 신부는 “정서적 성숙을 위한 사제 양성의 수단과 양성자의 동반”이라는 조금은 특이한 주제로 연구를 했습니다. 양성의 차원들, 곧 인성, 영성, 지성, 사목 양성에서 정서적 성숙은 인성 양성에 속한 부분으로, 일부 사제들에게서 미성숙한 정서적, 성적 문제들이 드러나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주제를 선정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단순한 인간적 성숙의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비전 안에서 정서적 성숙의 통합을 사제 양성과 연결하였고, 사회심리학적인 성숙함의 기준들을 적용하여 보다 객관적인 차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서적 성숙을 위한 사제 양성의 수단들로서 첫째, 자기 인식과 자기 수용, 둘째, 균형 잡힌 정서적 안정을 위한 자기 감성 상태

의 제어 능력, 셋째, 타인과의 따뜻한 관계를 위한 공동체 생활이라는 보다 명확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런 정서적 성숙의 과정에서 양성자의 역할과 임무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찰하고 있습니다.

서울 대신학교에서 영성 양성자로 활동하는 하태욱 신부는 사제 생활에서 늘 노력해야 하는 ‘독신’을 주제로 하여 “사제의 ‘하느님 나라를 위한 독신’ 삶 실현을 위한 양성적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독신은 하느님 나라를 위한 ‘선물’이면서 세상에서 남성이기도 한 사제에게 현실적인 ‘무거운 짐’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독신’을 본받아야 할 모델로 삼으면서, 그 원리로 “성부에 대한 정결한 사랑의 결과이며 구체적인 실현”이라고 합니다. 타인과 친교를 이루는 능력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불완전성 안에 뿌리내린 성(性)은 근원적 긴장 안에서 끊임없이 사랑으로 통합되어 성숙해 가는 여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자기 알기, 감수성의 양성, 일상생활 관리하기, 일상의 관계 관리하기 등을 양성적 차원에서 제안합니다. 독신을 자유롭게 선택한 사제뿐 아니라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에게도 필요한 제안들이라 생각합니다.

의정부교구 지축동요한성당 주임인 김명식 신부는 “세속화와 사제의 정체성”을 네 분의 교황님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고찰했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들어가는 말에서 “왜 오늘날 많은 사제들이 서품식과 성유축성미사 때 한 서약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저 자신에게 하는 질문 같아서 마음이 찢리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지적한 세 가지 우상, 곧 영적 세속성, 실용주의, 기능주의는 세속화의 중요한 요소들임을 깨닫게 합니다. “‘제2의 그리스도’인 사제는 인간의 영혼과 친교를 이루는 성령의 전달자”라는 성 바오로 6세의 말씀을 기반으로 네 분의 교황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세속화된 인식과 생활을 사제뿐 아니라 신앙인도 스스로 돌아보고 쇠신하도록 돕는 연구라고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실린 글은, 밀라노 교구 소속의 성서신학자인 프랑코 만지(Franco Manzi) 신부가 *Notitiae*에 게재한 “파스카 성야의 ‘파스카 초의 마련’에 대한 성경 해설”을 본 대학의 전례학 교수이며 사목연구소장인 본인이 번역한 글입니다. ‘모든 거룩한 밤샘 전례의 어머니’인 파스카 성야의 처음 예식인 ‘파스카 초의 마련’(Praeparatio cerei)의 전례 양식문에 인용된 성경 구절의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그 안에 담겨 있는 밀도 있는 신학들을 밝혀냅니다. 특히 두 가지의 그리스도론 개념인 인간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현존과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의 의미를 성경 해설을 통해 잘 설명해 줍니다.

20여 년 전에 봤던 유럽 교회의 현실, 곧 역사가 깊고 화려하며 감동을 주는 성당들이 즐비하지만 그 안에서 거행되는 미사에 참여하는 신자들을 찾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 가까운 미래에 한국 교회에서 보여질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숙을 지향해야 하는 한국 교회의 상황에서 ‘한국 천주교 사제 양성 지침 개정’이 미래의 사제 양성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그리고 교회의 각 구성원은 어떤 기여를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12월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장  
윤종식 신부

## 司牧研究 제51집 2023 겨울

## 차례

---

발간사/ 3 윤종식

- [특집] 『한국 천주교 사제 양성 지침』(개정)과 관련하여  
 사제 양성을 위한 초기 양성으로서 예비 과정의 필요성과 중요성/ 9 한상인
- 정서적 성숙을 위한 사제 양성의 수단과 양성자의 동반/ 44 김수환
- 사제의 ‘하느님 나라를 위한 독신’ 삶 실현을 위한 양성적 제안/ 70 하태욱
- 세속화와 사제의 정체성: 바오로 6세, 요한 바오로 2세, 베네딕토 16세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목 신학적 가르침을 바탕으로/ 103 김명식

## [번역]

- 파스카 성야의 ‘파스카 초의 마련’에 대한 성경 해설/ 149  
프랑코 만지, 윤종식 옮김

## [부록] / 171

- I.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정관/ 173
  - II.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계광학술연구기금 운영 규정/ 179
  - III.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학술지 편집 및 심의 규정/ 182
  - IV.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연구위원 명단/ 184
  - V.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정기 학술 심포지엄 연보/ 185
- 司牧研究 총목차(1994-2023 여름) 187

## Contents

- 
- Editorial Preface/ 3 *Rev. Yun, Jongsik, S.L.D.*
- [Special Issue] Regarding *Ratio Nationalis: Program for Priestly Formation of the Catholic Church in Korea*(revised draft)
-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a Propaedeutic Stage as an Initial Formation for Priestly Formation/ 9 *Rev. Han, Sangin, S.T.L.*
- The Contents of Priestly Formation and the Accompaniment of the Formation Members for Affective Maturity/ 44 *Rev. Kim, Suhwan, S.T.L.*
- The Formative Suggestion to Realize a Clerical Celibacy as Vocation/ 70 *Rev. Ha, Taewook, S.T.L.*
- Secularization and Priest's Identity: Based on the Pastoral and Theological Teachings of Paul VI, John Paul II, Benedict XVI and Francis/ 103 *Rev. Kim Myoungsik, S.T.L.*
- [Translation]
- The Biblical Commentary on the “Praeparatio cerei” of the Easter vigil/ 149 *Faranzo Manzi. S.T.D.*  
*tr. by Rev. Yun, Jongsik, S.L.D.*
- [Appendixes]/ 171



[특집]

# 사제 양성을 위한 초기 양성으로서 예비 과정의 필요성과 중요성\*

■  
한 상 인

[서울 대신학교 인성양성 신부]

- 
- 
1. 서론
  2. 사제 성소를 위한 통합적 양성의 중요성
    - 2.1. 성소와 사제 양성
    - 2.2. 사제직 후보자들을 위한 통합적 양성
    - 2.3. 통합적 양성의 목적
    - 2.4. 초기 양성과 지속 양성
    - 2.5. 초기 양성과 지속 양성의 관계
  3. 초기 양성에서의 예비 과정
    - 3.1. 예비 과정의 목적
    - 3.2. 예비 과정의 방향과 형태
  4. 예비 과정으로서의 소신학교
    - 4.1. 소신학교의 양성과 목적
    - 4.2. 소신학교의 양성의 문제점
    - 4.3. 소신학교의 양성의 도전과 전망
    - 4.4. 소신학교의 대안으로서 예비 신학생 모임
  5. 예비 과정의 효과적인 양성을 위한 제안
    - 5.1. 예비 과정의 강화를 위한 가정의 역할
    - 5.2. 예비 과정의 강화를 위한 본당의 역할
    - 5.3. 예비 과정의 강화를 위한 교구의 역할
  6. 결론
- 
- 

## 1. 서론

21세기 들어서 한국 천주교회는 질적·양적 성장을 거듭해왔다. 최근 들어 교세가 그 이전 시기보다 다소 둔화되긴 하였으나 꾸준히 증가를 계속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세의 증가에

---

\* 이 글은 2023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계광학술연구기금’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작성된 논문임.

비해 사제직을 지망하는 신학생의 숫자가 매년 급감하고 있는 현실이다. 2022년 주교회의의 한국 천주교 통계 발표에 따르면 한국 천주교 전체의 신학생 수는 2019년 1,209명에서 2022년 1,030명으로 줄었고 입학생 수도 145명에서 88명으로 감소했다. 교구 신학생 수도 2019년부터는 1,000명 이하로 줄었고, 2022년 현재 821명이다.<sup>1)</sup> 그중에서 특히 교구 신학생의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는데 교구 신학생은 10년 전인 2011년 1,317명보다 약 30퍼센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 젊은이들은 학업과 진로 준비로 인해 인성과 영성을 돌볼 시간과 노력이 부족한 현실에 마주하고 있다. 학생들의 인성을 가장 먼저 돌보아야 할 곳은 가정이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가정은 붕괴되어 가고 청소년들은 더욱 많은 사회적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었다. 성소자들의 영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교구나 본당의 경우도 사제 성소를 증진시키는 사목보다는 다른 유형의 사목적 돌봄에 관심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과거보다 인성과 영성에 있어서 미성숙한 젊은이들이 신학교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많은 신학생들이 사제직을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신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준다고 하여, 적절한 식별 없이, 특히 성소자들의 인성과 영성에 대한 준비 없이 입학을 시키는 것은 결국에는 학생들 자신에게도, 궁극적으로는 교회 공동체에게도 좋지 않다는 것은 이미 드러난 바이다. 바티칸 공의회 문헌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Optatam Totius*)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사제의 중책을 맡아 사목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후보자들의 역량을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학생들에 대한 모든 선발과 시험에서, 비록 사제가 부족하여 안타깝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당신 교회에 일꾼들이 없도록 버려두실 리 없으므로, 언제나 확고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합당한

1) 참조: 주교회의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한국 천주교 통계 2022 분석보고서」, 4쪽.

사람들을 진급시키고, 부적합한 사람들은 제때에 다른 임무를 찾아가도록 어버이로서 지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성소를 의식하여 기꺼이 평신도 사도직을 맡도록 도와주어야 한다.<sup>2)</sup>

그러므로 본 논문을 통해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사제 성소를 위한 인성, 영성 양성을 위한 통합적인 준비로서 예비 단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언급하고자 한다. 교황청 성직자성의 「사제 성소의 선물」에도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예비 과정은 그 고유한 특성을 지닌 필수적인 교육 단계이다. 이 과정의 주요 목적은 영성 생활을 위한 공고한 기초를 제공하고 인간적 성장을 위한 자기 인식을 더 키워나가게 하는 것이다.<sup>3)</sup>

그리고 예비 과정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모델인 소신학교와 소신학교의 폐교 이후 그 대안으로서 현재까지도 시행 중에 있는 예비 신학생 모임에 대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 과정의 효과적인 양성을 위해 가정, 본당 그리고 교구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제안들을 해 보도록 하겠다.

## 2. 사제 성소를 위한 통합적 양성의 중요성

### 2.1. 성소와 사제 양성

교회의 가르침은 한결같이 사제들이 그리스도를 닮도록 노력하는 것에 있다. 특히 “교구 사제들은 언제나 더 높은 저 성덕을 향하여 매진하고, 하느님의 백성 전체에 봉사하는, 날로 더욱 적절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sup>4)</sup> 또한 사제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며 끝까지 사

2)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 「온 교회의 열망」(*Optatum Totius*), 6항(이하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

3) 교황청 성직자성, 사제 양성의 기본 지침 「사제 성소의 선물」, 59항.

4)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제의 생활과 교역에 관한 교령 「사제품」(*Presbyterorum Ordinis*), 12항.

제로 나아가도록 불리움을 받았다. 이에 대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권고 「현대의 사제 양성」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모든 사제 성소의 역사는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성소의 경우처럼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즉 인간을 부르시는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께 사랑 어린 목소리로 응답하는 각 개인의 자유 사이에 이루어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대화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과 인간의 책임 있는 자유라고 하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성소의 두 가지 측면은 예수께서 열두 사도를 부르시는 장면을 묘사한 마르코 복음사가의 간결한 문구에서 분명하고도 매우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당신 마음에 두신 이들을 부르시니 그들은 당신 앞으로 나왔다”(마르 3,1). 한편에는 예수님의 완전히 자유로운 결정이 있으며 다른 한편에는 열두 사도의 나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성소—예언자 성소, 사도 성소, 사제 성소, 수도자 성소, 평신도 성소 등—영원한 모범이자 기본 요소입니다.<sup>5)</sup>

이러한 교회의 가르침이나 복음 말씀들은 성소를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놀라운 만남으로 제시한다. 이것이 부르심의 신비다. 곧,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우르지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더 가까이에서 당신을 따르라고 초대하신 이들 안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나는 신비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실현하시고자 더욱 직접적으로 당신과 함께 일할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만났셨다.<sup>6)</sup>

따라서 사제 성소는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에서 나오며, 또한 그분의 뜻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그분과 나누는 진지하고 확신에 찬 대화에서 나오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과 깊은 관계,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데에서 들려오는 그분 목소리에 내적으로 귀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부르심을 들은 사람만이 할

5) 요한 바오로 2세, 사도적 권고 「현대의 사제 양성」(*Pastores Dabo Vobis*), 36항.

6) 참조: 교황청 교육성, 「사제 성소 증진을 위한 사목지침」, 5항.

수 있다. “그래서 ‘따르다’(ἀκολουθέω)는 ‘듣다’, 혹은 ‘알다’(ακουω)와 ‘~하는 사람’(λουθέω)이라는 접미사의 합성어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사람만이 즉시 그분을 따라나설 수 있는데, 그분께서 샅꾼이 아니라 착한 목자이심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이다”<sup>7)</sup>(요한 10,3-4 참조).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분의 목소리(말씀)를 분명하게 알아듣고, 그분의 가르침은 물론 그분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sup>8)</sup>

## 2.2. 사제직 후보자들을 위한 통합적 양성

직무 사제직을 위한 양성 과정 동안 신학생들은 은총으로 받은 재능과 선물을 드러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드러내야 한다. 통합된 양성을 위해 결합되어야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은 성령에 의해 영향을 받아 한 사람의 신앙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직무 사제직을 위한 양성 기간은 양성자와 신학생 모두에게 시험, 성숙, 분별의 시기이다.<sup>9)</sup> 따라서 신학생들은 ‘자신에게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와 타인을 향해 나아가며, 사제직에 대한 부르심을 받아들여 자신을 바쳐 성령과 함께 일하며 온유하고 창의적으로 장단점을 내적으로 통합하도록 요청받는다.<sup>10)</sup> 그리고 이러한 통합된 양성을 위한 과정들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의미를 찾아 완성에 이르게 된다. 왜냐하면 사제는 머리이시고 목자이시며 종이시고 배필이신 그리스도께 동화되어 주교의 협력자로서 사제직과 구원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이다.<sup>11)</sup>

사제가 그리스도와 동화되는 것은 그 자신의 복음화와 성사와 사목에 대한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자기 봉헌과 속

7) 방효익, 「교구 사제를 위한 영적 양성의 필요성」, 73쪽.

8)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요한 10,27).

9) 참조: 「사제 성소의 선물」, 28항.

10) 「사제 성소의 선물」, 29항.

11) 참조: 「사제품」, 2항; 「사제의 직무와 생활 지침」, 6항.

죄, 즉 사제 직무에 따르는 고난과 희생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이루어진다. 사제 직무의 이러한 질적 차원은 다음과 같이 잘 알려진 성 바오로 사도의 말씀에서 표현된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며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내가 이렇게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을 채우고 있습니다”(콜로 1,24). 그렇기 때문에 사제직 후보자들은 자신 스스로를 매일 갈고닦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sup>12)</sup> “왜냐하면 하느님의 부르심은 사람 안에서 하느님의 일이지만 우리들의 참여와 협력 및 공동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sup>13)</sup>

### 2.3. 통합적 양성의 목적

“사제 양성 과정은 단일한 제자의 길의 연속이다. 이 여정은 세례성사로 시작되어 다른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들을 통하여 완성되고, 신학교의 양성 시작부터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여기게 되며 일생 동안 이어지게 된다.”<sup>14)</sup> 이러한 과정들 안에서 사제와 신학생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점차 교회에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통합적 양성에 대해 「현대의 사제 양성」에서는 인간적, 영적, 지적, 사목적 양성이라는 네 가지 영역으로 표현하고 있으며<sup>15)</sup> 「사제 성소의 선물」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모든 사제 생활에서 필수적이고 역동적인 기초가 되는 ‘인성 차원’, 사제 직무를 위한 자질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성 차원’, 목자의 가치를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그 가치를 구체화하고 신앙의 내용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데에 필요한 이성적 도구를 제공하는 ‘지성 차원’, 그리고 교회에 대한 책임감 있고 유익한 교회 봉사를 가능하게 하는 ‘사목 차원’이 있다.”<sup>16)</sup> 이때 네 영역에

12) 교황청 성직자성, 「사제의 직무와 생활 지침」, 6항.

13) L. Rulla, *Antropologia della vocazione Cristiana* 1, p.33.

14) 「사제 성소의 선물」, 서문, 15쪽.

15) 참조: 「현대의 사제 양성」, 42항.

서 추구하는 바는 직무 사제 양성이라는 전체 과정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각각의 특성을 담고 있는 단계적인 목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 것이다.<sup>17)</sup>

그러나 그리스도와 동화되는 이러한 통합된 양성은 처음부터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처럼 사제들은 처음에는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끈기 있고 세심하게 교육을 받아서 하느님의 백성 가운데에서 빛나야 하는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sup>18)</sup>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원석을 잘 깎고 다듬는 과정이 바로 양성인 것이다.

따라서 사제 양성은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이었던 사제직 지원자가 사제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그의 삶 안에서 점점 그리스도와 닮은 사제가 되게 하는 것이다. 또한 그럼으로써 직무와 성사 생활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쇄신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사제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길러내는 것이 사제 양성 과정의 목적인 것이다.<sup>19)</sup>

따라서 이러한 양성의 전체 여정은 결코 단일 측면으로 축소되어 다른 측면들이 손상되어서는 안 되며 그것은 늘 사제직으로 부르심을 받은 제자의 통합된 여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sup>20)</sup> 또한 각각의 영역들이 결국엔 그리스도를 닮은 착한 목자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며, 그 궁극 목표인 사목적 양성을 지향하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통합된 양성의 목적은 사명에 봉사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며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봉헌할 수 있도록 개인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이는 아버지를 향한 그리스도의 감정을 점진적으로 동화시키는 여정이기 때문이다.<sup>21)</sup>

16) 「사제 성소의 선물」, 89항

17) Cf. P. Magna, “Dalla perfezione alla integrazione”, *Tredimensioni* 3, 2006, pp.56-58; A. Cencini, “Formazione: parola magica”, *Tredimensioni* 1, 2004, pp.286-288.

18) Francesco, *Discorso alla Plenaria della Congregazione per il Clero*(3 ottobre 2014): *L'Osservatore Romano*, 226(4 ottobre 2014), 8.

19) 「현대의 사제 양성」, 12항.

20) 참조: 「사제 성소의 선물」, 서문, 15쪽.

21) 참조: 요한 바오로 2세, 세계주교대위원회 후속 권고 「봉헌 생활」, 1996, 65항.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와 동화되어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이 사제의 정체성을 형성시키는 것이며 그로 인해 한 사제가 온전히 사제로서 주어진 소명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제 양성을 ‘그리스도 찾기,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기’라는 전체적인 통합 과정으로 보고 이를 초기 양성과 지속 양성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sup>22)</sup>

#### 2.4. 초기 양성과 지속 양성

오늘날, 좋은 사제상의 모델을 잘 보여 주고 계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양 냄새 나는 목자가 됩시다”<sup>23)</sup>라는 말씀으로 당신이 지향하는 사제상을 표현하신 바 있다. 그리고 교황청 성직자성은 이와 같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지향을 따라, 2016년 12월 「사제 성소의 선물」(*The Gift of the Priestly Vocation*)이라는 제목을 붙여 개정된 「사제 양성의 기본 지침」을 발표하였다.

1983년의 새 교회법전에 맞추어 1970년에 최초로 발표된 「사제 양성의 기본 지침」의 각주를 수정하는 정도였던 1985년의 개정과 달리, 이번 개정은 요한 바오로 2세의 「현대의 사제 양성」(*Pastores Dabo Vobis*)과 베네딕토 16세의 「성직자 양성」(*Ministrorum Institutio*)의 내용을 계승하면서, 사제 양성에 관련된 교황청 부서의 여러 문서들과 국가별 지침까지 참고하여 통합적인 지침으로 마련된 것이다.<sup>24)</sup>

22) 참조: 「현대의 사제 양성」, 34항.

23) Cf. “Siate pastori con l’odore delle pecore.” 이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로마 주교로서는 처음으로 교구 사제들과 함께한 2013년 성유 축성 미사 강론 중에 말씀하신 것이다. Cf. “SANTA MESSA DEL CRISMA, OMELIA DEL SANTO PADRE FRANCESCO”, Vatican, 2017.8.31., [http://w2.vatican.va/content/francesco/it/homilies/2013/documents/papa-francesco\\_20130328\\_messa-crismale.html](http://w2.vatican.va/content/francesco/it/homilies/2013/documents/papa-francesco_20130328_messa-crismale.html).

24) 교황청 성직자성의 사제 양성의 기본 지침 「사제 성소의 선물」은 서론을 통해 해당 지침이 이전 교황들의 가르침과 교황청 부서들의 문헌, 국가별 지침을 참고하여 편찬되었음을 명시하고 있다. Cf. Congregation for the Clergy, “The Gift of the Priestly Vocation-Ratio Fundamentalibus Institutionis Sacerdotalis”(8 December 2016).



특히 이 「사제 성소의 선물: 사제 양성의 기본 지침」은 하나의 온전하고 연속적인 양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두 단계, 즉 초기 양성과 지속 양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 2.4.1. 초기 양성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다음,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아왔다. 그분께서는 열둘을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마르 3,13~15).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의 성소를 위하여 그들과 동행하셨음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도들을 부르신 후, 그들을 파견하기 전에 그들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양성을 위한 시간을 따로 가지실 것을 요구하신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보다 더 깊이 있는 교리 교육을 그들에게 시키셨고 또한 당신 자신이 하느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제자들을 통해 증언되기를 원하셨다.<sup>25)</sup>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시대의 초기 양성이란 교회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충분히 훈련시킨 후 사제직으로 이끄는 훈련 기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초기 양성의 정의는 무엇일까? 사제직에 있어서 초기 양성이란 사제직 지망자가 필수적인 부분인 예비 과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사제품을 받는 과정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이 시기의 교육 과정에는 신학생이 사제 생활을 준비하게 하는 교육적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sup>26)</sup>

이런 의미에서 신학교와 같이 초기 양성이 이루어지는 곳은, 단지 장소나 물질적인 공간이기 이전에, 영적인 공간이자 영적 여정의 길로 사제 형성 과정이 더욱 확고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위기

25) 참조: 「현대의 사제 양성」, 42항.

26) 참조: 「사제 성소의 선물」, 55항.

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사제직으로 부르신 사람들이 성품성사를 받음으로써 교회의 머리이자 모자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노드 교부들도 파견 메시지에서 사제 후보자 양성의 본래의 합당한 의미를 즉시 깊이 파악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sup>27)</sup> “복음의 학교인 신학교에서 사는 것은 사도들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sup>28)</sup>

즉, “신학교가 주님과 사랑에 빠진 선교하는 제자들, 양들 가운데에 살면서 그들에게 하느님의 자비를 가져다주는, 양의 냄새가 나는 목자들을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그래서 모든 사제는 늘 자신을 끊임없이 통합된 교육을 필요로 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께 동화되는 여정에 있는 제자로 여겨야 하는 곳”이 되어야 할 것이다.<sup>29)</sup> 그리하기에 신학교는 신학생들에 대해 인내심을 가져야 하며 그들을 위한 양성에 더욱 노력하여 그들이 성령의 활동에 열리도록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초기 양성의 목적은 사제의 마음을 육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sup>30)</sup>

#### 2.4.2. 지속 양성

그대가 지닌 은사, 곧 원로단의 안수와 예언을 통하여 그대가 받은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더욱 나아지는 모습이 모든 사람에 드러나도록 하십시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 일을 지속해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대는 그대뿐만 아니라 그대의 말을 듣는 이들도 구원할 것입니다(1티모 4,14-16).

사도 바오로가 디모테오에게 한 이 말씀은 사제들의 지속 양성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사제들의 지속 양성 속에 담긴 모든 진리와 독창성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 즉, 모

27) 참조: 「현대의 사제 양성」, 42항.

28) Giovanni Paolo II, *Messaggio dei padri sinodali al popolo di Dio*(28 ottobre 1990), IV l. c.

29) 「사제 성소의 선물」, 서문, 16-17쪽.

30) 참조: 같은 책, 55항.

든 사제들은 서품을 받는 순간부터 자신들에게 맡겨진 거룩한 직무를 이루어나가기 위한 지속 양성의 의무를 부여받았다.<sup>31)</sup>

그러므로 모든 사제는 늘 자신을 끊임없이 통합된 교육을 필요로 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께 동화되는 여정에 있는 제자로 여겨야 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sup>32)</sup> 즉 “‘자기 자신을 양성해 나가는 역량에 있어서 성장’한다는 이러한 ‘자기 양성’의 개념은 또한 사제의 평생 교육이라는 맥락에서 간과될 수 없는 개념이다. 즉, 평생을 양성자의 지도에 따라 사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제 스스로 자신의 삶 안에서 스스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개념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제 양성이 이루어질 때, 그렇게 양성된 사제는 자신의 실존적 삶에서 머리이시며 목자이신 대사제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닮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sup>33)</sup> 이에 대해 「현대의 사제 양성」 역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원자 자신이야말로 자기 자신의 양성에 필요한,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주역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양성은 (사제 양성조차도) 결국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책임 있는 자유를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sup>34)</sup>

## 2.5. 초기 양성과 지속 양성의 관계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교서 「성직자 양성」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므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1983년 교회법전에 따라 신학교는 ‘성직자 양성’의 영역에 포함됩니다. 이 교육의 효과를 제대로 거두려면 신학교 교육과 평생 교육을 확고하게 연결시켜야 합니다. 평생 교육은 신학교 교육의 연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sup>35)</sup>

31) 참조: 「현대의 사제 양성」, 70항.

32) 참조: 「사제 성소의 선물」, 서문, 15쪽.

33) 민범식, 「교구 사제 양성의 방향과 내용」, 127~128쪽

34) 「현대의 사제 양성」, 69항.

따라서 지속 양성 역시 초기 양성이라 할 수 있는 신학교 교육에 뿌리를 두어야 하며 또한 신학교 교육과 결코 단절되지 않은 가운데, 적응과 쇄신 및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평생 동안 양성이 전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제 서품을 받기 전의 교육과 받은 후의 교육이 서로 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깨닫고 눈여겨보는 일은 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설혹 이 두 가지 교육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서로 완전히 다르다 하더라도 결국 사목 활동과 서로 다른 연령층의 사제들이 형제적 친교를 이루는 데 심각하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sup>36)</sup>

이러한 초기 양성과 지속 양성이라는 중요한 양성의 맥락 안에서, 사제의 삶이 부르심에 응답한 개인과 하느님과의 내밀한 관계 속에서 스스로 살아가는 삶이라 할 때 “신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초기 양성은 그러한 관계를 시작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도움이지, 그 사제의 삶 전체를 이끌어 주는 지속 양성은 아닌 것이다.”<sup>37)</sup>

또한 지속 양성을 신학교의 초기 양성에 관한 문화적·영적 사항에 대한 단순한 갱신으로 여기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하며 잘못된 것이다. 사실 “지속 양성에 대한 준비는 대신학교 때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대신학교에서는 미래의 사제들에게 지속 양성의 필요성과 장점과 정신에 대해서는 물론 지속 양성을 잘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가르쳐 줌으로써 미래의 사제들이 지속 양성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기대할 수 있도록 일깨워주어야 하는 것이다.”<sup>38)</sup>

지속 양성은 신학교 교육의 연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새로운 사목 기법 몇 가지를 가르쳐 주는, 소위 “직업” 교육이 되어서는 안

35)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자의 교서, 「성직자 양성」(*Ministorum Institutio*), 2~3항.

36) 「현대의 사제 양성」, 71항.

37) 민범식, 「교구 사제 양성의 방향과 내용」, 127~128쪽

38) 참조: 「현대의 사제 양성」, 71항.

됩니다. 지속 양성은 사제 양성의 모든 측면들(인성, 영성, 지성, 사목적 측면들)을 더욱 깊이 있게 하고, 그러한 측면들이 목자로서의 사랑에 바탕을 두고 더욱 밀접하고 분명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더욱 활기차고 완벽하게 지속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sup>39)</sup>

이처럼 초기 양성과 지속 양성은 하나의 실재의 두 측면이다. 이것은 끝이 없는 교육으로서 사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것을 결코 그만두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sup>40)</sup>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초기 양성과 지속 양성이 각자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속 양성에 대한 준비의 차원으로서 초기 양성의 한 부분인 예비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위에서 이야기한 「현대의 사제 양성」에서의 말처럼 “지속 양성에 대한 준비는 대신학교 때부터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 3. 초기 양성에서의 예비 과정

「사제 성소의 선물」에서는 “초기 양성을 크게 예비 과정, 철학 과정 또는 제자 과정, 신학 과정 또는 동화 과정, 사목 과정 또는 성소통합 과정의 4개 과정으로 구분하고 있다.”<sup>41)</sup> 그것은 이 연속적인 단계들을 거쳐 나갈 때 사제가 되기 위한 양성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사제 성소의 선물」에 나타나는 ‘예비 과정’은 대신학교 과정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1~2년 정도의 성소 예비 식별 과정으로, 사제가 되기 위한 양성의 길과 다른 삶의 길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고려하는 대신학교 지

39) 「현대의 사제 양성」, 71항.

40) Cf: LETTERA DEL SANTO PADRE FRANCESCO AI PARTECIPANTI ALL'ASSEMBLEA GENERALE STRAORDINARIA DELLA CONFERENZA EPISCOPALE ITALIANA, 10-13 NOVEMBRE 2014.

41) 「사제 성소의 선물」, 57항

원자들의 입문·준비 과정이라고 서술되어 있다.<sup>42)</sup>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의 문헌 「예비 과정」(*Il Periodo Propedeutico*)에서도 이 예비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대신학교 지원자들의 인성적, 영적, 지성적 준비에 전념하는 이러한 특별한 준비 기간은 오늘날 거의 모든 곳에서 참으로 유용하다고 여겨지고 있으며, 다양한 경우 성직자 양성을 향상시킨다고 말할 수 있다.<sup>43)</sup>

### 3.1. 예비 과정의 목적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은 이미 1980년에 다음과 같이 이러한 예비 과정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여러 나라들에서 볼 수 있는 주요 변화는 철학·신학 6년 과정의 첫 학기에 포함된 입문 과정에서 신학교 생활과 사제직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으로 관심이 점진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대신학교 지원자의 준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지성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인성적이고 영적인 관점에서 증가했기 때문이다.<sup>44)</sup>

이처럼 예비 과정은 대신학교 입학 준비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며 또한 학업 과정과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예비 과정을 통해 영성 생활을 위한 공고한 기초를 제공하고 인간적 성장을 위한 자기 인식을 더욱 키워나가야 할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성소자는 자신을 부르시는 성부와, 자신을 동화시키시는 성자와, 기도와 말씀 경청, 성찬례 참여, 침묵 가운데 하는 성체 조배를 통하여 자신을 길러 주시는 성령과 사랑의 긴밀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여건에 놓여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sup>45)</sup> 그렇게 함으로써 성소자들은 예비 과정 동안 성사 생활, 성무일도

42) 「사제 성소의 선물」, 59항

43) Congregazione per l'Educazione Cattolica, Documento informativo, *Il Periodo Propedeutico* (Roma 10 maggio 1998), 3.

44) *Ibid.*, 3.1.

45) 참조: 「사제 성소 증진을 위한 사목지침」, 8항.

그리고 하느님 말씀에 대한 친숙함, 침묵, 마음 기도, 영적 독서를 통하여 영성 생활을 시작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본당 활동과 자선 활동의 체험을 통하여 자기 희생의 원동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바람직한 기회가 된다.<sup>46)</sup>

### 3.2. 예비 과정의 방향과 형태

「사제 성소의 선물」에서는 이러한 예비 과정의 방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예비 과정은 대신학교 과정과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할 수 있다면 예비 과정이 실행되는 고유한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sup>47)</sup> 그리고 이러한 고유한 장소로서 「사제 성소 증진을 위한 사목지침」에는 예비 과정의 한 형태로서 ‘성소 생활 공동체’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성소 생활 공동체’(residential vocational communities)는 신학교 입학에 위한 성소 식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일종의 ‘예비 신학교’로서 여기에는 적절히 교육받은 사제들이 상주하며 ‘생활 규칙’을 제시한다. 이 생활 규칙은 형제적 생활, 개인 공부, 말씀 나눔, 개인 기도와 공동체 기도, 성찬례 거행과 영성 지도 등으로 구성된다.<sup>48)</sup>

이러한 ‘성소 생활 공동체’에 대해 이탈리아 주교회의에서 출판한 책 *La preparazione al Sacerdozio ministeriale, orientamenti e norme*에서는 예비 과정의 한 형태로서 바람직한 ‘성소 생활 공동체’의 몇 가지 형태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따라서 ‘성소 생활 공동체’는 다음과 같을 수 있다.

- a) 성소에 대한 사목적 돌봄의 토대로서 교구에 배치된 소신학교는 다른 모든 계획들에 영감을 주고 참조되어야 하는 전형적인 성소 사목의 환경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 b) 성소 지도센터와 같은 유형의 장소가 있어야 하며 이는 주교가 위

46) 참조: 「사제 성소의 선물」, 59항

47) 같은 책, 60항

48) 「사제 성소 증진을 위한 사목지침」, 18항.

입한 사제와 함께 살고, 소신학교에 의해 영감을 받은 정확한 양성 계획을 가진 작고 상당히 영구적인 청소년 공동체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 이는 신학교에 들어갈 수 없거나 (개인적, 가족적 또는 단순한 학구적 이유로) 적절한 선택을 결정할 자신감이 없는 청소년들이 필요한 시간 동안 참가하여 지낼 수 있다.

c) 성소자 그룹 모임, 즉 사제 성소를 위한 정확한 연구 및 양성 목적을 위해 자주 그리고 정기적으로 만나는 젊은이들의 그룹을 말한다. 이 그룹 또한 주교가 위임한 사제의 지속적인 참석과 지켜야 할 양성 계획이 보장되어야 한다.

d) 긍정적인 그리스도교 및 교회 분위기를 달성하고 사제 성소를 제안하고 수반하기 위한 조건을 보장하는 여러 형태의 가톨릭 학교 기관도 가능하다.<sup>49)</sup>

#### 4. 예비 과정으로서의 소신학교

이러한 ‘성소 생활 공동체’로 첫 번째로 봐야 할 것은 소신학교이다. 소신학교는 지역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에 가족과 본당과 함께, 부르심을 받은 젊은이들의 사제 성소의 검증과 성숙을 돕기 위해 봉사하는 그리스도교 청소년 공동체이다.<sup>50)</sup>

교회법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성소 배양을 위하여 인문 및 과학 교육과 함께 특별 종교 교육을 전수하도록 마련된 소신학교들 또는 이러한 종류의 학원들이 있는 곳에서는 보존되고 조장되어야 한다. 더구나 교구장 주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곳에서는 소신학교나 이와 유사한 학원의 설립을 도모하여야 한다.”<sup>51)</sup>

이러한 소신학교의 필요성에 대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현대의 사제 양성」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49) CEI, La Preparazione al Sacerdozio Ministeriale. Orientamenti e Norme(12 luglio 1972), 348.

50) Cf. Congregazione per l'Educazione Cattolica, Ratio Fundamental Institutionis Sacerdotalis, (19 marzo 1985), 11.

51) 『교회법』, 제234 1항.



대신학교의 교육 목적대로, 그리고 독특한 교육 구조에 따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제직 지원자들이 대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얼마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신학교 지원자들은 소정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올바른 지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신앙에 관한 가르침을 충분히 광범위하게 알고 있어야 하며, 기도하는 방법과 그리스도교의 전통에 부합되는 생활 양식에 대해서 상당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느님과 신앙을 찾으려는 노력을 자기 지역 교구의 관습에 맞게 표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sup>52)</sup>

#### 4.1. 소신학교의 양성과 목적

소신학교의 양성은 다음과 같다. “소신학생들은 장상들의 아버지다운 지도와 부모들의 적절한 협조 밑에서, 성장기의 연령, 정신, 발달에 알맞고 건전한 심리 규범에 조화된 생활을 영위하며, 인간 사물의 경험과 더불어 자기 가정과의 관계도 무시하지 말 것이다. 그뿐 아니라 다음에 규정할 대신학교에 관한 사항들도, 그것이 소신학교의 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 한, 소신학교에도 적용하여야 하겠다. 소신학생들이 이수하는 학업은, 그들이 다른 생활 형태를 선택하더라도 아무 불편 없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sup>53)</sup>

따라서 “성소의 씨앗을 싹트게 할 목적으로 설립된 소신학교에서는 특별한 종교 교육과 무엇보다 적절한 영성 지도로써, 학생들이 고귀한 정신과 깨끗한 마음으로 구세주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교육하여야 한다.”<sup>54)</sup> 또한 소신학교는 지역 교회의 성소에 대한 사목적 돌봄의 유기적 계획의 일부이며, 그 계획은 방법이자 도구이며, 사춘기 이전부터 성숙한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성장의 리듬을 존중, 다양한 단계를 수반하는 젊은이들의 정상적인 성소 여정의 일부이다.<sup>55)</sup> “이렇게 하여 청소년들은 그들 삶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에 응답할 수 있는 내적 자유를 자신의 나이에 맞게 발전시킨다.”

52) 「현대의 사제 양성」, 62항.

53)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 3항.

54) 같은 책, 3항.

55) Cf. CEI, Primo piano pastorale per le vocazioni in Italia, 350.

## 4.2. 소신학교의 양성의 문제점

그러나 현재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전망에서 볼 때 이러한 소신학교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지금 이 시대의 가족과 학교의 상황은 현대 사회의 상황이 가진 전형적인 이데올로기적, 경제적, 사회적 압력에 의해 성소의 특정한 필요에 주의를 기울이는 이러한 교육 형태에 완전히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sup>56)</sup>

또한 그동안 많은 지역의 상황이 변하게 된 부분도 소신학교 제도의 유지가 어려운 이유가 된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의 생활 방식과 기본 교육이, 심지어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또한 때로는 교회 생활에 열심인 사람들인 경우라 할지라도, 신학교의 생활 방식과 사제 양성에 필요한 요구 사항들과는 너무도 크게 불일치하고 있다. 물론 대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이처럼 미리 준비하는 시기로서 소신학교의 역할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갈수록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그러한 준비 작업의 내용과 특징에 대해서는, 그 주된 목표가 무엇이나 — 성소를 판별하기 위한 영성 교육에 주력해야 하느냐 아니면 지적 교육과 문화 교육에 주력해야 하느냐 — 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또한 한편으로는 각 지원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또한 각 지역과 각 나라에 존재하는 수많은 현격한 다양성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이다.<sup>57)</sup>

## 4.3. 소신학교의 양성의 도전과 전망

하지만 소신학교는 이러한 가능성의 한계와 참여의 공간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가장 적절한 성소 사목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전히 탁월한 위치를 유지하는 성소 공동체이다.<sup>58)</sup> 특히

56) Cf. *Ibid.*, 351.

57) 참조: 「현대의 사제 양성」, 62항.

58) Cf. CEI, *Primo piano pastorale per le vocazioni in Italia*, 351.

이 나이 때의 성소자들이 상급자, 부모, 교구 공동체, 그리고 이 임무를 수행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인도되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따라서 대신학교에 입학하기 전, 가정과 외부 세계와의 적절한 접촉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교회와 인간 생활의 주요 문제를 알고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해석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특히 가족 및 또래들과의 적절하고 필요한 관계는 이 시기의 청소년들이 가진 정서적 삶과 관련하여 건강한 심리적 발달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sup>59)</sup>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청소년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에 응답할 수 있는 내적 자유를 자신의 나이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소신학교의 목적이기도 하다.”<sup>60)</sup>

#### 4.4. 소신학교의 대안으로서 예비 신학생 모임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1978년 춘계 회의를 통해 소신학교의 존재 문제를 신중히 검토했고 그에 따라 성신고등학교의 폐교를 합의하였다. 폐교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sup>61)</sup> 첫째, 성신고등학교의 지원자 감소이다. 둘째, 재학생의 교육 수준이 고르지 못해 중도 탈락자가 늘어났다. 셋째, 대입 예비고사 불합격률의 증가와 그로 인해 대신학교 진학을 포기하는 숫자가 증가했다. 넷째, 소신학교 운영과 학생들의 학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졌다. 다섯째, 가정이나 본당을 중심으로 예비 신학생 모임과 같은 형태로 성소자를 확보하고 키울 수 있는 다른 가능성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소신학교 폐교 이후 예비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이에 따른 대안으로 현재 한국 천주교회의 많은 교구들은 예비 신학생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다.

59) Cf. Ratio Fundamentalis Institutionis Sacerdotalis, 12.

60) 「사제 성소의 선물」, 18항

61) 참조: 이원순, 『소신학교사』, 한국교회사연구소, 238-242쪽.

#### 4.4.1. 예비 신학생 모임의 정의

예비 신학생 모임이란, “청소년 신자들에게서 성소의 씨앗을 찾아내서 예비 신학생으로 선발하는 것이며 그들의 성소가 더욱 증진되도록 본당 사제가 특별히 지도하며 또한 본당의 신자들과 가정의 기도를 통해 그들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소자 양성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sup>62)</sup> 이러한 예비 신학생 모임의 필요성에 대해 「사제 성소의 선물」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예비 과정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 과정에서 양성자가 탄탄한 인간적 그리스도교적 교육을 제공하고 대신학교 지원자들을 신중하게 선발하도록 하여야 한다.<sup>63)</sup>

따라서 이러한 예비 과정 프로그램을 위해 “한국교회는 소신학교 제도와는 다르게 우선 중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이 제도를 권장하였고, 교회와 신학교는 예비 신학생들을 위한 여러 행사들을 통해 부르심을 받은 청소년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예비 신학생 제도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면서 이 제도는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되었고 결국 이것은 소신학교 폐교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sup>64)</sup> 특별히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의 문헌 「예비 과정」에서는 한국의 예비 신학생 모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한국에는 정부가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자신의 가족이 거주 지역의 학교에 다닐 것을 요구하게 되면서 사실상 소신학교 제도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준비 제도가 존재하게 된다. 주교들은 학생들이 대신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예비 신학생 모임이라는 병행 훈련 과정을 마련하였다. 이것은 성소 책임자와 각 본당 신부의 책임

62) 같은 책, 241쪽.

63) 「사제 성소의 선물」, 60항

64) 박문수, 「성소계발의 현황과 전망」, 『사제 성소 전망과 성소 사목의 구성요인』, 서울대학교 성소국, 253쪽.

에 맡겨져 있는 조직된 준비 기간으로, 젊은이들이 기도의 입문과 성사 생활을 통해 자신의 인격을 성숙시키고 신앙생활을 더욱 심화하도록 도움을 받게 된다. 또한 전례와 교리 교육과 동시에 학생들은 국가가 요구하는 대학 입학에 위한 자격을 얻기 위해 각자의 학교에서 공부를 계속 하게 된다.<sup>65)</sup>

#### 4.4.2. 예비 신학생 모임의 목적과 효과

사제 성소는 사춘기 또는 청년기 초반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 신학교에 들어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조차도 하느님의 부르심, 즉 사제 성소를 느낀 것은 그보다 훨씬 이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교회는 이렇듯 한번 뿌려진 성소의 씨앗을 잘 키워나가서 결국에 응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다양한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들을 도와줄 의무가 있다. 따라서 예비 신학생 모임은 성소자들이 건전한 인격을 지닌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제직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다양한 양성 방법을 통해 구체적인 동기가 되도록 이끌어 주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sup>66)</sup>

그러므로 예비 신학생 모임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들을 얻을 수 있다. “첫째로, 성소에 대한 막연한 생각이 구체화된다. 둘째, 같은 생각을 가진 동료들과의 만남이 큰 위로가 된다. 셋째, 신학교 입학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넷째, 반드시 신학교 입학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성소를 올바르게 식별하고, 한 인간으로 성숙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는다. 다섯째, 입시 위주의 교육이 지배적인 오늘날의 교육 현실에서 인간 교육의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일깨울 수 있는 자리가 된다. 여섯째, 예비 신학생 모임이 결국에는 장래의 신학교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도움이 된다.”<sup>67)</sup>

65) Congregazione Per L'Educazione Cattolica, Il Periodo Propedeutico, 2.2.

66) 참조: 김자문, 『성소 계발』, 가톨릭출판사, 1998, 97쪽.

67) 참조: 같은 책, 97-98쪽.

#### 4.4.3. 서울대교구 예비 신학생 모임

소신학교의 대안으로서 현재까지도 운영되고 있는 서울대교구의 예비 신학생 모임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1978년 춘계 주교회의에서 소신학교의 폐교가 결정되면서 교구에서는 예비 신학생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78년 7월부터 사목국 주관하에 고등부 1, 2, 3학년으로 구성된 예비 신학생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어서 1979년에는 중등부 3개 반이 새로이 시작되었고 그해 하반기에 일반부까지 구성됨으로써 예비 신학생 모임은 총 7개 반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현재까지 이어지는 예비 신학생 모임의 운영은 1978년 이후 각 학년별 담임 수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1985년에 담임 부제가 임명됨으로서 공동 담임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예비 신학생 모임은 매년 2월 새학년 새학기를 준비하는 첫 모임으로서 시작되어 각 학년별 특성에 맞게 매월 1회의 모임으로 진행된다.<sup>68)</sup>

실제로 이러한 “예비 신학생 모임은 분명한 학교의 성격을 지닌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단순한 모임에 그치는 것도 아니지만, 예비 신학생의 성소를 심화시키고, 분별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sup>69)</sup>는 사실은 최근에는 비록 감소 추세에 있지만 한동안 서울대교구 대신학교의 입학생 숫자가 어느 정도 유지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 5. 예비 과정의 효과적인 양성을 위한 제안

사제 성소를 증진할 의무는 그리스도교 공동체 전체의 몫이며, 공동체의 모든 이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 생활로 성소를 증진해야 한다. 특히 가정은 믿음과 사랑의 정신으로 생활하면서 마치 예비 신학교와 같이 되어야 하며, 본당은 풍요로운 삶으로 젊은이들을

68) 같은 책, 96쪽.

69) 안승태, 「성소계발의 현황과 전망」, 『예비 신학생 모임운영의 실제와 발전 방안』, 서울대교구 성소국, 219쪽.

초대하여 그들을 참여시키면서 성소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 또한 모든 사제는 성소 증진에서 사도직 열성을 최대한으로 드러내야 하며, 자신들의 겸손하고 부지런하며 즐거운 생활로 모범을 보여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제직으로 이끌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주교들도 성소 증진을 위하여 모든 역량과 활동에 힘써야 하며, 주님의 일에 부름 받았다고 판단된 젊은이들을 아낌없이 도와주어야 한다.<sup>70)</sup> 따라서 사제 양성의 네 가지 분야, 즉 인간 양성, 영성 양성, 지적 양성, 사목 양성을 예비 과정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가정, 본당, 교구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 5.1. 예비 과정의 강화를 위한 가정의 역할

사제 성소 양성의 네 가지 분야에 있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양성이 이루어지는 곳은 바로 가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현대의 사제 양성」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진정 하나의 ‘가정 교회’(「교회현장」, 11항)로서 성소자들이 나오기에 알맞은 여건들을 늘 제공해 왔으며 또한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즈음은 그리스도인 가정의 위상이 위태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을 위한 사목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가정들이 인간의 생명이라는 선물을 모두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가정 자체가 ‘이른바 최초의 신학교’(「사제 양성 교령」, 2항)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들이 그 안에서 어려서부터 신앙과 기도가 무엇인지, 교회에 대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sup>71)</sup>

따라서 가정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전달하는 첫 번째 공동체이다. 특히 인간 형성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의 삶과 가르침이다. 부모의 말과 행동이 자녀에게 각인되어 습관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부모는 항상 자기 자신을 돌보고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의

70) 참조: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 2항.

71) 「현대의 사제 양성」, 41항.

삶을 살아가며 이를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다. 배우자를 향한 사랑의 신성함, 가정 생활의 조화, 삶의 일상적인 문제에 직면하는 신앙의 정신, 다른 사람 특히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개방성, 그리스도교 공동체 생활에의 참여와 같이, 젊은이들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대응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곳이기 때문이다.<sup>72)</sup>

뿐만 아니라 사제 성소를 위한 양성 측면에서도 젊은이들을 위한 가정교육은 더욱 중요하다. 이미 여러 지역에서 증명하듯 대부분의 사제 성소가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며 미래의 교회 성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곳이기도 하다. 이는 일관된 그리스도인 생활의 모범과 복음적 덕행의 실천을 통한 온전한 자기증여에 대한 열망이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sup>73)</sup> 따라서 사제 성소를 증진하기 위한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가정과 부모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첫째, 가정에서 시작되는 성소는 부모의 신실한 신앙생활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가톨릭 교육성의 「사제 성소 증진을 위한 사목지침」에서는 이러한 부모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가정 사목과 성소 사목 사이에는 공통된 교육 공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모들이 혼인성사에 뿌리를 둔 신앙 교육자로서의 직무를 더 잘 인식하도록 하여, 사제 성소를 발견하게 하는 인간적이고 초자연적인 조건이 가정 안에서 발전하도록 해야 합니다.”<sup>74)</sup>

둘째, 부모는 신앙인으로서 좋은 모범을 보여야 하며 신앙공동체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사도적 권고 「가정 공동체」를 통해 신자로서 부모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그리스도인 부모는 그들의 품위와 사명 때문에,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책임과 자녀들이 하느님 신비를 점차적으로 발견하여 그분과의 대

72) 참조: 요한 바오로 2세, 「제47차 성소주일 담화문」(2002.4.21.), 2-3쪽.

73) 참조: 「사제 성소 증진을 위한 사목지침」, 3항.

74) 같은 책, 14항.



화를 하도록 인도할 특별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인성사의 은총과 의무를 지닌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세례로 받은 신앙에 따라 어려서부터 하느님을 알고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sup>75)</sup>

그러므로 가족이 함께 복음을 읽거나 기도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러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더 민감하고 기쁘게 응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가정 공동체」에서는 그리스도교 가정을 위한 다양한 기도 생활을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다.

가정 교회의 기도의 증대한 목표는 어린이들을 전체 교회의 전례 기도에도 자연스럽게 인도하는데 봉사하고, 전례 기도를 위하여 준비시키며 그것을 개인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로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와는 별도로, 다른 일정한 형태의 기도, 예컨대 하느님 말씀의 봉독과 묵상, 성사 배령의 준비,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 동정 마리아에 대한 각종의 공경, 식사 전후의 기도, 대중 신심의 준수 등이 분명히 권장될 것입니다.<sup>76)</sup>

뿐만 아니라 매주 일요일에는 가족이 함께 미사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스도교 기도의 정점은 성찬례”이므로, 미사를 거행하는 사제가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미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그러므로 가족이 함께 주일미사에 참석하여 자녀가 미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습관화할 수 있도록 부모의 노력과 지도가 필요할 것이다.<sup>77)</sup> 그리고 그러한 노력이 사제 성소의 시작이자

75) 요한 바오로 2세 사도적 권고, 「가정 공동체」, 60항.

76) 같은 책, 61항.

77) 「현대의 사제 양성」에서는 사제직 후보자들의 영성 양성에 있어서 미사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그리하여 사제직 지원자들이 미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내적인 마음 자세들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느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사는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을 봉헌하는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이런 자세를 갖게 되면 사제직 지원자들은 자기 자신이 준비한 제물과 그리스도께서 드리시는 성찬의 제물을 더욱 잘 결합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현대의 사제 양성」, 48항).

완성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미사에서 만나는 성찬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의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5.2. 예비 과정의 강화를 위한 본당의 역할

본당은 그리스도교 성소에 있어서 복음이 선포되고 사제직의 이상이 제시되는 훌륭한 장소이며, 성소가 싹트고 성숙해지는 비옥한 땅이다. 그러므로 사제직을 향한 길을 가고 있는 성소자들의 인성과 영성 양성에 소중한 공헌을 할 수 있는 풍요로운 요람이기도 한 것이다.<sup>78)</sup> 특히 청소년 시기의 사제 성소는 더욱 민감하고 중요한데, 그 이유는 특별히 주일학교와 본당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신앙과 공동체에 대해 배우며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가톨릭교회의 통계 자료와 몇 가지 사회학 연구들은, 새로운 복음화 노력이 본당, 단체, 교회 공동체들과 운동들 안에서 촉진될 때, 젊은이들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마음을 열고 교회의 일에 그들의 삶을 바치는 모습을 보여 준다고 강조한다.”<sup>79)</sup> 또한 본당 사목자인 사제들은 성소 사목을 지도하는 주체들이다. 그리스도와 일치하여 미사를 거행하고 형제애 안에서 신자들과의 일치를 보여 줌으로써 사제는 신자들과 젊은이들에게 성소에 관심을 갖게 하는 데에 영감을 주는 힘이 된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성소주일 메시지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제 성소는 말과 본보기와 삶 전체로 전수되는 소중한 유산으로서, 사제들과의 만남에서 태어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성소에 충실한 모든 사제와 봉헌 생활자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기쁨을 널리 전파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보편적 성화 소명에 응답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느님께, 그리고 각 개인의 삶을 위한 하느님의 계획에 이미 ‘예!’라고 응답한 이들의 모범이 없다면 우리는 사제 성소와 봉헌 생활 성소를 증진할 수 없고 더 효과적인 성소 식별도 못 할 것입니다.<sup>80)</sup>

78) 참조: 「사제 성소 증진을 위한 사목지침」, 14항.

79) 같은 책, 3항.

그러므로 본당 신부는 본당의 사제직을 희망하는 성소자가 미사와 기도를 경험하는 데 익숙해질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미사는 사제 성소 증진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찬례를 거행하는 사제들의 충실함은 신자들에게 모범이 되고 사제직 성소자들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sup>81)</sup> 그리고 미사 전례뿐만 아니라 본당의 성소자를 찾고 발전시키려는 본당 신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성소에 대한 물음을 부각시킬 수 있는 짜임새 있고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성소와 사명이 갖고 있는 깊은 의미를 교회 안에서 되풀이해서 가르쳐 주면 줄수록, 젊은이들은 사제 성소와 사명이 갖고 있는 유일무이한 가치를 더 많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sup>82)</sup>

### 5.3. 예비 과정의 강화를 위한 교구의 역할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가정과 본당은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예비 과정을 강화하여 양성의 네 가지 영역이 잘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과 본당이 속해 있는 교구는 모든 가정과 본당의 사제 성소 증진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지역 교회는 사제직 성소자들이 탄생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sup>83)</sup>

특히 주교들은 성소 사목에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 “주교는 성소 사목이 항상 일반 사목의 범주 속에 있으면서, 일반 사목과 완전히 결합되어 실질적으로 성소 사목과 일반 사목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성소자들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장려해 주고 그것들을

80) 베네딕토 16세, 「제47차 성소주일 담화문」(2010.4.25).

81) 참조: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Ecclesia De Eucharistia*), 31항.

82) 참조: 「사제 성소 증진을 위한 사목지침」, 14항.

83) 참조: 「현대의 사제 양성」, 41항.

조정해 주는 것도 주교의 임무이기도 하다.”<sup>84)</sup> 따라서 예비 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교구의 역할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교구는 인성, 영성, 지성, 사목의 네 가지 분야가 잘 양성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 단계인 예비 과정에 있는 성소자들의 경우, 인성과 영성에 더 중점을 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서 논의했듯이 교구 내의 성소를 장려하기 위해 사제가 되기로 결심은 했지만 아직 대신학교에 입학할 준비가 되지 않은 젊은이들을 위한 적절한 양성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비 신학생 모임과 같은 다양한 예비 과정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sup>85)</sup>

둘째, 교구 차원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제 성소를 담당하는 사제들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교사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열정적이고 성실한 사제를 준비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이들은 사제 성소의 예비 과정에서 성소자들로 하여금 사제직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킬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제 성소를 책임지는 사람들은 성소의 싹이 트면 그것을 성장하게 해 주면서, 양성자와 성소자 사이의 진실되고 효과적인 관계를 통해 성소 식별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sup>86)</sup>

사제직 지원자들을 양성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일을 맡을 사람들이 진정 전문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교육학적, 영성적, 인간적, 신학적인 측면에서 특별히 준비되어 있어야 함은 물론, 모두 진정으로 복음적인 생활을 하는 모습과 주님께 전적으로 봉헌한 삶의 모습을 증거해야 한다.<sup>87)</sup>

셋째, 각 교구에는 성소를 전담하는 성소국을 설치해야 한다.<sup>88)</sup>

84) 같은 책, 41항.

85) 참조: 「사제 성소 증진을 위한 사목지침」, 19항.

86) 참조: 같은 책, 9항.

87) 「현대의 사제 양성」, 66항.

88) 교황청은 이미 70년 전에 사제 성소 증진을 위해 교황청과 지역 교회 간의 협

이러한 성소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성소를 개발하고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담당 사제들이 성소를 식별하고 돌봄으로써 성소를 증진하고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가정 사목, 교리 교육, 청소년 사목을 위한 교구 단체들과 협력하여 젊은이들의 신앙과 정서적, 심리적 발전에 적합한 프로그램과 보조 수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sup>89)</sup>

## 6. 결론

사제는 하느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므로, 사제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이다. 그러나 이러한 하느님의 부르심을 우리 스스로는 쉽게 인식할 수 없다. 특히, 세속화와 개인주의로 인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정체성을 찾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사제들과 성소자들이 자신의 성소를 발견하고 식별하도록 돕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의 임무이자 의무이기 때문이다. 「현대의 사제 양성」에서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본질상 부르심인 교회는 동시에 성소자들을 탄생시키고 교육하는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성소를 밝히 보여주고, 그 성소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성사’이자 ‘표지’이며 ‘도구’이기 때문입니다.”<sup>90)</sup>

특히, 더 세심한 식별력이 요구되는 청소년기의 사제 성소에 대해서도 교회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그것은 본 논문에서 예비 과정의 필요성을 살펴본 것처럼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 자신의 소명을 인식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먼

---

력을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교황청 사제 성소국’을 세웠다(참조: 「사제 성소 증진을 위한 사목지침」, 13항).

89) 참조: 「사제 성소 증진을 위한 사목지침」, 13항.

90) 「현대의 사제 양성」, 35항.

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제 성소의 선물」에서도 지역 교회의 문화와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예비 과정이 성소자들의 인성과 영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앞서 다루었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이러한 예비 과정의 중요성을 깨닫고 소신학교 폐교 이후 예비 신학생 모임을 만들어 운영하게 되었음을 앞서 살펴보았다. 왜냐하면 예비 신학생들이 기도와 미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더욱 쉽고 성실하게 자신의 소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이러한 시스템은 지금까지 잘 운영되어 왔으며 서울대교구는 이러한 시스템의 긍정적인 효과에 만족해 왔다. 이는 한국교회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역 교회의 상황에 맞게 실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무조건 사제 성소의 증가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앞서 논의한 것처럼 몇 가지 문제점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교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것은 이러한 문제들 외에도 또 다른 현실적 어려움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은 교회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 문화, 경제 연구를 통해 교회 밖의 다른 조직과 함께 해결해야 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앞으로 가족, 본당, 교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Ecclesia)는 참으로 ‘소집’, 즉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이며 성소는 어떤 의미에서 교회의 ‘활동’이기 이전에 교회의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sup>91)</sup>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우리 각자가 받은 부르심을 묵상하고, 다가올 교회의 미래를 위해 이바지할 귀중한 보물인 사제 성소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회는 사제 성소가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인식하고, 사제 성소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

91) 참조: 「현대의 사제 양성」, 34항.

시기를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현대의 사제 양성」에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하신 말씀을 덧붙이고 싶다. “교회는 주님께서 당신의 추수에 새로운 일꾼들을 보내 주시길 한시도 중단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새로운 세대들한테 하느님께서 그들을 부르신다는 것을 용감하고도 분명한 목소리로 일깨워 주고, 그들이 진정 하느님 부르심을 받았는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하느님의 부르심에 담대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함은 물론, 사제 지원자들을 양성하는 일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sup>92)</sup>

---

92) 같은 책, 2항.

## [참고 문헌]

### 1. 교회 공식 문헌

- 『교회법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1989.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 「온 교회의 열망」(*Optatam Totius*), 2002.
- \_\_\_\_\_, 사제의 생활과 교역에 관한 교령 「사제품」(*Presbyterorum Ordinis*), 2002.
- \_\_\_\_\_, 그리스도인 교육에 관한 선언 「교육의 중대성」(*Gravissimum Educationis*), 2002.
-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Ecclesia De Eucharistia*, 2003).
- \_\_\_\_\_, 권고 「가정 공동체」(*Familiaris Consortio*, 1981).
- \_\_\_\_\_, 권고 「현대의 사제 양성」(*Pastores Dabo Vobis*, 1992).
- \_\_\_\_\_, 세계주교대위원회 후속 권고 「봉헌 생활」, 1996.
-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사의교서 「성직자 양성」(*Ministorum Institutio*, 2013).
- 교황청 성직자성, 사제 양성의 기본지침 「사제 성소의 선물」, 2018.
- \_\_\_\_\_, 「사제의 직무와 생활 지침」, 2018.
- 교황청 교육성, 「사제 성소 증진을 위한 사목지침」, 2012.
- Congregazione per l'Educazione Cattolica, Ratio Fundamental Institutionis Sacerdotalis(19 marzo 1985).
- \_\_\_\_\_, Documento informativo, Il Periodo Propeutico(10 maggio 1998).
- CEI, La Preparazione al Sacerdozio Ministeriale. Orientamenti e Norme(12 luglio 1972).
- \_\_\_\_\_, Primo piano pastorale per le vocazioni in Italia, 1973.

### 2. 교황의 발언

- Francesco, Discorso alla Plenaria della Congregazione per il Clero(3 ottobre 2014): L'Osservatore Romano, 226(4 ottobre 2014), 8.
- \_\_\_\_\_, “Santa messa del crisma, omelia del Santo Padre Francesco”, Vatican, 2017.8.31., [http://w2.vatican.va/content/francesco/it/homilies/2013/documents/papa-francesco\\_20130328\\_messa-crismale.html](http://w2.vatican.va/content/francesco/it/homilies/2013/documents/papa-francesco_20130328_messa-crismale.html).



Giovanni Paolo II, Messaggio dei padri sinodali al popolo di Dio(28 ottobre 1990),  
IV l. c.

Lettera del Santo Padre Francesco ai partecipanti all'assemblea generale  
straordinaria della Conferenza Episcopale Italiana, 10~13 novembre 2014.

요한 바오로 2세, 「제47차 성소주일 담화문」(2002.4.21.).

베네딕토 16세, 「제47차 성소주일 담화문」(2010.4.25.).

### 3. 단행본

RULLA, L., *Antropologia della vocazione Cristiana 1*, Edizioni Dehoniane Bologna,  
1997.

Magna, P., “Dalla perfezione alla integrazione”, *Tredimensioni 3*, Editrice Ancora,  
2006.

Cencini, A., “Formazione: parola magica”, *Tredimensioni 1*, Editrice Ancora, 2004.

이원순, 『소신학교사』, 한국교회사연구소, 2007.

박문수, 「사제 성소 전망과 성소 사목의 구성요인」, 『성소계발의 현황과  
전망』, 서울대교구 성소국, 2008.

김자문, 『성소 계발』, 가톨릭출판사, 1998.

안승태, 「예비 신학생 모임운영의 실제와 발전 방안」, 『성소계발의 현황과  
전망』, 서울대교구 성소국, 2008.

### 4. 정기간행물

주교회의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한국 천주교 통계 2022 분석보고서』, 4  
쪽.

방효익, 「교구 사제를 위한 영적 양성의 필요성: 현대의 사제 양성을 중심  
으로」, 『신학전망』 195(2016), 광주가톨릭대학교, 69~121쪽.

민범식, 「교구 사제 양성의 방향과 내용: 무엇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사목연구』 39(2017),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127~128쪽.

## 국문초록

한국 천주교회는 질적·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이러한 교세의 증가에 비해 사제직을 지망하는 신학생의 숫자가 매년 급감하고 있는 현실이다. 더욱이,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젊은이들은 학업과 진로 준비로 인해 인성과 영성을 돌볼 시간과 노력이 부족한 현실에 마주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과거보다 인성과 영성에 있어서 미성숙한 젊은이들이 신학교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또한 사제직을 중도에 포기하는 신학생의 수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신학생들의 숫자가 준다고 하여, 성소자들의 인성과 영성에 대한 준비 없이 입학할 시키는 것은 결국에는 교회나 학생들 모두에게 좋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예비 과정으로서 소신학교 제도를 운영하였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에 부딪혀 폐교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대안으로 예비 신학생 모임과 같은 ‘성소 생활 공동체’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예비 신학생 모임 역시도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그에 따른 변화도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이 논문을 통해 대신학교 입학 전 초기 과정으로서 예비 과정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다루면서 인성과 영성 양성을 포함한 통합적 양성에 대한 중요성을 되짚어 보았고 또한 이러한 예비 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소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곳으로서 가정의 역할과 그러한 성소를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곳으로서 본당과 교구의 역할에 대해 몇 가지를 제안해 보았다. 성소 증진을 위해 가장 당연시되고 기본이 되는 역할에 대한 제안이지만 이를 통해 가정과 본당 그리고 교구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교회의 성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시금 부여한다는 점에서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이다.

▶ 주제어: 초기 양성, 예비 과정, 소신학교, 예비 신학생 모임, 사제 양성.

[특집]

## 정서적 성숙을 위한 사제 양성의 수단과 양성자의 동반\*

■  
김 수 환

[부산가톨릭대학교 인성교양학부 교수·신부]

1. 들어가는 말
2. 그리스도교 비전 안에서 정서적 성숙과 통합
  - 2.1. 정서적 통합
  - 2.2. 사랑과 정서적 자유
3. 정서적 성숙을 위한 사제 양성
  - 3.1. 성숙함의 기준들
  - 3.2. 정서적 성숙을 위한 사제 양성의 수단들
4. 정서적 통합 양성을 위한 양성자의 동반
  - 4.1. 양성자의 역할과 임무
  - 4.2. 양성자에게 요구되는 인격의 특성과 자질
  - 4.3. 양성자를 위한 양성
5. 나가는 말

### 1. 들어가는 말

사제 양성은 사제직 후보자가 실제로 사제품에 이르게 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사제가 교회와 세상에 그리스도의 가시적 징표가 되게 하는 과정이다. 교회 문헌은 미래의 사제들이 육체적, 정신적, 영적 영역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으로도 성숙을 이루어야 하며, 이는 온전히 한 인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 지속적으로 천명하였다.<sup>1)</sup>

\* 이 글은 2023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계광학술연구기금’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작성된 논문임.

1) 교회는 사제를 양성하는 데에 있어서 인간적, 정서적 성숙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언급하였다. 각 문헌에서 말하는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성령의 빛을 받아 끊임없이 성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sup>2)</sup> 오늘날 교회의 일부 사제들에게서 미성숙한 정서적·성적 문제들이 드러나는 것도 현실이다. 사제들은 여러모로 성숙한 상태에서 성품성사를 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꼭 완성된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양성자들이 현재 문제를 지니고 있는 사제들의 신학생 시절에 그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오히려 그 신학생이 자신의 문제를 철저히 숨겼을 수도 있고 혹은 자신도 양성자도 몰랐던 정서적·심리적 여러 문제들이 서품 이후에 발견되어질 수도 있다.<sup>3)</sup> 사제들이 마주하는 정서적·성적 문제들은 대표적으로 관계성의 문제에서 기인된다. 사제들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있어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열

---

의 「사제 양성 교령」(*Optatum totius*, 1965)은 사제의 정서적인 성숙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신학생들을 위한 정결 교육과 그들의 인간적 성숙을 강조하면서 미래의 사제들이 더욱 완전한 성숙에 이르러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참조: 10-11항). 교황청 가톨릭교육성이 1974년에 발표한 「독신생활 양성지침」(*Orientamenti educativi per la formazione al celibato sacerdotale*, 1974)은 신학생 인성 교육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제를 길러내는 것임을 강조하며 “사제적 인격의 기본 모습은 스승이요 사제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영혼의 목자로 나타난다”(29항)고 가르친다. 신학생들은 독신 생활을 위해서 정결 교육과 인격 형성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교육이 지향하는 바는 사제의 인격적인 성숙이며, 특별히 정서적인 성숙과 성적 성숙이다(참조: 18-23항).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사도 권고 「현대의 사제 양성」(*Pastores dabo vobis*, 1992)은 사제들이 먼저 정서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사랑이 인간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사제직 지원자들이 정서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일”(43항)임을 거듭 말한다. 1983년 새 교회법전의 발표로 인해 개정된 「사제 양성에 관한 지침」(*Ratio fundamentalis Institutionis Sacerdotalis*, 1985)은 성소에 관한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는 기준으로서 인간적·윤리적 자질에 특별히 정서적 성숙을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다(참조: 39항).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현대의 사제 양성」을 계승하면서 2016년에 새롭게 편찬한 성직자성의 지침, 「사제성소의 선물」(*Il dono della vocazione presbiterale*, 2016) 또한 미래의 사제들이 독신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성숙한 정서를 지녀야 한다고 말한다(참조: 110항).

2) 참조: 「현대의 사제 양성」, 70항.

3) 「독신생활 양성지침」, 38항: “성소를 판별하는 데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무엇보다도 심리적 결함이, 어떤 때는 병리학적 결함이 사제 서품 이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한다. 그와 같은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많은 비극적 경험을 피할 수 있게 해 준다.”

려 있어야 하며, 모든 이를 전체적으로 주재해야 한다. 이것이 사제의 기본적인 모습이나, 쉬운 것은 결코 아니다. 사목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들로 인하여 사제들의 모습이 때로는 부정적인 관계의 형태를 취할 때가 있다.<sup>4)</sup>

사제 자신의 정서적·심리적 상태에 대한 균형잡힌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타인과의 관계가 부적절하거나 미숙할 때 사제들에게서 부적절함의 징후를 발견할 수 있다. 몇몇 사제들은 이러한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종종 적응의 형태로 엇나간 자신의 행동을 정상화하려는데, 이는 자신의 외적인 행동과 이상적 행동 사이의 불일치를 감추어 완화시키고 동시에 점점 더 통제가 어려운 미성숙한 정서로 드러나게 된다.<sup>5)</sup>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미래의 사제직 후보자들이 갖추어야 할 정서적 통합과 인간 성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성숙한 인간’이자 ‘성숙한 사제’가 되기 위한 사제 양성의 방법과 수단을 제안하고, 성숙한 사제를 양성하기 위한 양성자들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 알아보하고자 한다.

## 2. 그리스도교 비전 안에서 정서적 성숙과 통합

정서(*affettività*)<sup>6)</sup>는 우리가 살아 있다고 느끼는 정신적인 차원이

4) 사제들에게서 보이는 네 가지 유형의 부정적인 관계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1) 전지전능한 관계: 자신이 모든 것을 확인하고 결정하고 진행해야 한다는 독재적인 모습을 지닌 관계; 2) 선부른 관계: 감정적으로 쉽게 분노하는 관계; 3) 그리움의 관계: 자신이 겪은 경험과 성공, 실패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관계로 이는 큰 정서적 취약성을 유발하고 세대 분열과 불통을 유발한다; 4) 빈아웃의 관계: 자신이 지닌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고, 심각한 피로감에 휩싸여 개인적인 동기가 약해지고 자발적인 요구들이 소멸할 때 일어난다(Cf. Osman Antonio di Lorenzo, *Prete oggi: "pizza" di percore, odora di Cristo*, Todi: Tau, 2016, pp.35~39).

5) Cf. Giuseppe Crea, *Preti e suore oggi: come riconoscere e prevenire i problemi*, Bologna: EDB, 2012, pp.23~24.

6) 이탈리아어 어휘에서 정서(*affettività*)는 “자기 자신이나 환경에서 비롯되는 개인의 성향과 정신적 반응을 특징짓는 일련의 사실과 현상(느낌, 감정 및 열정)으로

며, 그 안에서 나는 어떠한 감정(느낌)을 가지는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한 개인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균형 있고 조화로운 인격을 가질 때 성숙된 모습을 마주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이 혼란스럽거나 모순적일 때에 우리는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여 내적 갈등에 휘말릴 수 있다. 따라서 정서적 성숙은 역동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들과 책임감 있는 자유의 행사를 통하여 정서적 관계를 통합할 수 있다.

정서의 역할은 인격을 구성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요소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타인에 대한 정서적·성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통합에 특별한 방식으로 기여하고, 일이나 직업에서 책임감 있게 자신을 성취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서적 성숙은 인격 기능의 최적화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간주된다.

## 2.1. 정서적 통합

인간의 단일성과 복잡성은 사제 양성이 수행되어야 하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통합’(integrazione)의 개념을 필요로 한다. 통합의 중요성은 그것이 인간의 모든 개인 형성의 기초를 구성하는 동시에 인격의 기본 요소라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통합은 한편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성장을 의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 전체의 다른 부분의 조화를 의미한다. 성숙한 사제가 되려면 신학생은 자신의 영,

---

설명된다”(Istituto della Enciclopedia Italiana, “Vocabolario della lingua Italiana”, Milano: Società anonima per la pubblicazione del vocabolario della lingua italiana, 1986, p.76). 이탈리아어 및 기타 현대 언어에서 라틴어 *afficere*에서 유래한 ‘정서’라는 용어는 특정 상태에 들어가기 위한 마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마음(*cuore*)은 사람의 정서적 삶의 자리로서, 그의 감정, 느낌, 애정, 열정, 열망 등이 나타나는 곳이다(Cf. M. Bisi, *La vita affettiva della persona credente: un itinerario di meditazione profonda*, Roma: Apostolato della Preghiera, 2017, pp.8-10). 그러므로 정서는 기분, 동기, 느낌, 감정 및 욕구와 같은 매우 광범위한 정신적 현상을 포함하거나 그것들과 다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Cf. F. Decaminada, *Maturità affettiva e psicosessuale nella scelta vocazionale*, Saronno: Editrice Monti, 1995, pp.45-56).

지성, 의지, 감수성, 정서 그리고 몸을 양성해야 한다. 또한 신학생은 이 모든 요소들의 질서정연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sup>7)</sup>

인간은 복잡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완전성을 지향한다. 하느님이 소명의 성취를 위해 사람을 부르실 때 사제는 자신의 성실함으로 그분을 선택한다. 그는 자신의 봉사와 다른 사람들의 봉사에 자신을 헌신하기를 원한다. 이는 사제의 특성으로 표시된다. 그것은 자신이 영원한 사제이신 그리스도와 완전히 동화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이는 그리스도를 닮은 문제의 차원을 넘어 한 사람의 전체적인 인격에서 그분과 함께 자신을 구성하는 문제이다.<sup>8)</sup>

모든 사람은 자신의 정서적 경험의 특이성과 독창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정서적 경험은 현실에서 특정한 측면의 의미를 증폭시키고 내면세계의 일부 요소 또는 외부 세계의 자극을 강조하는 데 기여한다. 봉헌된 남성과 여성의 모든 삶에서 특별한 점은 개인의 삶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초월적 현실과의 관계를 맺은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복음적 권고나 사제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성소의 응답은 사실 신앙의 헌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정서적 및 동기 부여 수준에서 그 사람에게 깊은 영향을 미친다.<sup>9)</sup>

통합은 이러한 모든 정서적 경험의 확장이다. 통합은 사람의 어떤 긍정적인 경험만을 선택하고 그 외의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다. 더 잘 통합된 사람은 마음의 작은 목소리뿐만 아니라, 자신의 근원적인 긴장을 더 잘 듣는 사람이기도 하다. 통합된 사람은 하나의 소리로만 왜곡하지 않으며, 자신이 지닌 다양성으로 일탈하지도 않고 삶의 극적인 변화에 직면하여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기준으로 삼는다.<sup>10)</sup>

7) Cf. Jacek Bramorski, *La formazione sacerdote nella prospettiva dell'amore-dono*, Roma: Pontificia Studiorum Universitas A. S. Thoma AQ in Urbe, 1998, pp.93-97.

8) Cf. J. Bramorski, *op.cit.*, pp.95-97.

9) Cf. M. Stevani, *Il processo di maturazione a livello affettivo e sessuale*, in *Formazione affettivo-sessuale*, Bologna: EDB, 2017, pp.45-46.



## 2.2. 사랑과 정서적 자유

그리스도교 비전에서 진정한 정서적 통합은 사랑의 활동을 통해 서가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는다. 사랑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서적 삶에서 가장 깊고 필수적인 동기이다. “인간은 사랑 없이 살 수 없다. 인간에게 사랑이 계시되지 않을 때, 인간이 사랑을 만나지 못할 때, 사랑을 체험하고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할 때, 사랑에 깊이 참여하지 못할 때, 인간은 자기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남게 되며 그의 생은 무의미하다.”<sup>11)</sup> 게다가 정서적 통합은 반드시 인간의 감정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랑과 함께 살았던 ‘독신’이라는 사실에 의해서도 촉진된다.<sup>12)</sup>

초기와 지속적인 성숙 과정에서 결정적인 요소는 ‘정서적인 자유’이다. 정서적 자유의 구성 요소는 두 가지 전략적 확실성, 즉 항상 그리고 영원히 사랑받았다는 확신과 영원히 사랑할 수 있다는 확신이다. 이러한 확신이 더 강하고 안정적일수록 사제직 후보자는 정서적으로 더 자유로워지며 하느님 나라를 위한 독신을 선택할 수 있다.<sup>13)</sup> 이미 사랑받았다는 확신은 자유와 정서적 성숙의 근본적인 요소이다. 만일 이러한 확신이 없다면 정서적 성숙과 자기 선택의 필요성에 대한 모든 시도들은 헛된 것이 될 뿐이다. 이것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시오”(마태 10,8)라는 복음의 지혜이다.<sup>14)</sup>

보통 자유를 자율성과 독자성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자유의 문제는 독자성이라는 용어로 제기될 수 없다. 아무도 자기 혼자만으로 자유롭다고 생각하거나, 기껏해야 다른 사람의 자유가 시작되는 곳에서 자신의 자유는 끝난다고 여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실 상황

10) Cf. A. Manenti, *Comprendere e Accompagnare la persona umana*, Bologna: EDB, 2013, pp.93-95.

11)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인간의 구원자」(*Redemptor Hominis*, 1979.3.4.), 10항.

12) Cf. T. Goffi, *L'integrazione affettiva del sacerdote*, Brescia: Queriniana, 1968, pp.98-101.

13) Cf. A. Cencini, *Per amore, con amore, nell'amore: libertà e maturità affettiva nel celibato consacrato*, Bologna: EDB, 2011, pp.877-879.

14) 참조: 박일, 「영성의 해에서 성소 및 영성지도」, 『신학과사상』 38(2001), 신학과 사상학회, 106쪽.

은 정확히 반대이다. 오로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성장하는 것이며, 자신의 자유는 또한 다른 사람의 자유가 시작되는 곳에서 시작되고 다른 사람의 자유가 훼손되거나 부인될 때 끝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함께 자유롭거나 아무도 자유롭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이다.<sup>15)</sup>

그러므로 자유는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것도 또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을 때가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과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대상에게 의존하기로 명철한 의식으로 선택한 만큼 자유롭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이 자유의 뿌리에 사랑이 있다. 특히 이 사랑의 대상은 자신의 정체성과 진리라는 것,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의 계획이며, 자신의 피조물이 살기를 바라시는 창조주의 소망이요 충만히 살도록 하시기 위한 부르심이다. 따라서 진리에 대하여 사랑에 빠진 사람은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오직 사랑에 빠진 사람만이 사랑하는 이의 품에 조건 없이 자신을 내던지는 행위 안에, 삶의 구체적인 현실에서 어떤 ‘너’에게 속하는 것 안에, 얼마나 큰 자유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이다. 이것이 정서적 자유이다.

정서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자신의 소명을 믿고 사랑하며, 그것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끌림을 느낀다. 또한 이것은 그 소명을 무의식적이고 억압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적 강요나 의식적이고 외적으로 부과된 것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의무나 수고스러운 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며, 어떤 아름다운 것이자 마음에 기쁨을 주며, 그의 보화요 그 안에 있는 자신의 정체성과 진리가 감추어져 있는 어떤 것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해 준다.<sup>16)</sup>

결론적으로 정서적 성숙의 관점에서 사랑은 그리스도인 정서의 뿌리가 되며, 실존적이고 안정적이며 심오한 태도로 시련의 영향 아래에서도 감사하고 나누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태도가 된다. 이러한 태도는 독신의 삶을 사는 사제들에게 있어서 필수

15) 참조: A. Cencini, 『파스카적 성을 위하여: 오늘날의 동정성과 독신』, 국헌심 옮김, 생활성서, 2011, 251쪽.

16) 참조: 같은 책, 242-243쪽.

적인 태도이자 사제 양성 안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목표가 된다.

### 3. 정서적 성숙을 위한 사제 양성

사제직 후보자들에게 정서적 성숙함이 필요한 것은, 그것이 인격 형성에 근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는 사제 양성의 궁극적인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제, 즉 참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적 성숙을 이루는 것이다. “사제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생히 보여 주는 사람’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되신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눈부시도록 보여 주신 그런 인간적인 완전함과 복음에 나와 있듯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태도를 통해 아주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인간적인 완전함이 자기 자신 안에서도 잘 보여질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sup>17)</sup> 그러므로 사제직 후보자들의 정서적 성숙에 기여할 수 있는 양성의 수단을 심리학의 도움을 받아 살펴보자.

#### 3.1. 성숙함의 기준들

인격의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완벽’이라는 말을 쓰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고 모든 인간 존재는 한계를 지닌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균형을 의미하지만, 오히려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심리적 결핍의 증상일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성숙한 인간은 누구인가? 성숙의 정의를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특성들을 살펴보자. 이를 위해 심리학자들의 이론, 곧 야호다(M. Jahoda), 올포트(G. W. Allport) 그리고 매슬로우(A. H. Maslow)의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오스트리아-영국의 사회심리학자인 야호다(M. Jahoda)는 긍정적

17) 「현대의 사제 양성」, 43항.

인 정신건강의 평가 기준을 6가지 특성으로 제시한다. 첫째, 자아정체감은 자신에 대한 적절한 태도 즉 객관적인 자기인식, 현실적인 자기인식 및 자기이미지에 대한 능력이다. 둘째, 자아실현은 자신의 잠재력에 적합하고 발달 환경과 충분히 일관되고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발달 및 자기실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셋째, 통합력은 서로 다른 정신적 긴장, 실패에 대한 관용, 충분히 강하고 잘 구성된 ‘자아’의 존재 사이의 통합 및 결과적인 균형을 이루는 능력이다. 넷째, 선택 및 자기결정에 있어서 자율적인 능력을 지녀야 하고 다섯째, 사회적 현실과 그것을 둘러싼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서 현실 지각 능력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환경에 대한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적응을 포함하여, 그 사람이 ‘사랑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으로 구체화되는 현실 지각 능력이다.<sup>18)</sup>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올포트(G. W. Allport)는 현대 심리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로서, 인격의 성숙도를 판단하는 기준 6가지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자아감의 확장이다. 이는 개인이 사회에 어느 정도까지 개방되어 있는지를 보여 준다. 사람이 성숙하게 되면 자아감이 확장되어 자신의 외부의 다양한 활동이나 사람 또는 이념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이러한 관심사는 더 이상 외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의 일부가 된다. 이러한 요소가 확장되고 성장하고 풍부해지면서 인간은 성숙해진다. 둘째, 타인과의 따뜻한 관계이다. 성숙한 사람은 친밀하고 접근 가능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고 공감하고 이해하며 다른 사람의 결점을 용인하고 다른 존재 방식과 관심사를 가진 이들의 말을 듣는 법을 알고 있다. 셋째, 정서적 안정감이다. 이는 자기수용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변함 없는 감정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타인 사이의 활동을 파괴하지 않도록 자신의 감정을 다스린다. 특히 좌절을 참아내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실패에 직면했을 때 성

18) Cf. M. Jahoda, *Current concepts of positive mental health*, New York: Basic Books, 1958, pp.23~30; F. Decaminada, *op.cit.*, pp.77~78.

숙한 사람은 분노에 굴복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할 다른 이를 찾지 않는다. 넷째, 현실적 지각을 통한 과업의 수행이다. 성숙한 사람은 지속적인 삶과 그 의미를 알고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본다. 자신의 객관적인 상황을 이해한 후에 자신에게 지정된 분야에서 일하고 자신의 약속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또한 알고 있다. 다섯째, 자기인식과 유머 감각이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알고 있기에 자신을 이해하도록 이끄는 직관을 가진다. 자신의 결점이나 한계, 실수에 대해서는 유머 감각을 통하여 그것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방법을 안다. 여섯 번째는 통합된 삶의 철학을 지녀야 한다. 성숙한 사람은 통합된 삶의 철학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며 원대한 목적과 계획에 의해 동기가 유발된다. 또한 목적의식과 일을 완수하려는 사명감이 있다.<sup>19)</sup>

인본주의 심리학자인 매슬로우(A. H. Maslow)는 성숙한 인격을 연구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매슬로우는 창조적인 업적과 더불어 인격적으로도 성숙한 세계적인 위인들의 삶을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자아실현을 이룬 성숙한 사람을 다음과 같은 자질로 요약한다. 성숙한 사람은 사람과 사물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을 지니며, 자기 자신과 타인의 속성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지닌다. 그리고 타인과의 확고한 인간적 유대를 지니고서 미소를 불러일으키는 선량한 유머 감각을 지녔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몰두할 줄 알며 책임감을 지니며, 새로운 체험에 대해 열려 있는 자세를 가진 이들이 자아실현을 이룬 성숙한 사람이라고 본다.<sup>20)</sup>

19) Cf. G. W. Allport, *Psicologia della personalità*, Zurigo: Pas-Verlag, 1967, pp.241~260; B. Goya, *Psicologia dinamica e vita spirituale*, Roma: Teresianum, 1985, pp.73~89; F. J. Insa Gómez, "Accompagnare i candidati al sacerdozio sulla strada della maturità", *Tredimensioni* 14(2017), 177~186.

20) Cf. A. H. Maslow, *Motivazione e personalità*, Roma: Armando, 1982, pp.252~292; A. Pascucci, *Caratteristiche della personalità matura*, in *Compendio di teologia spirituale*, Pust, Roma: Pust, 1992, pp.495~496; B. Goya, *op.cit.*, pp.71~72.

### 3.2. 정서적 성숙을 위한 사제 양성의 수단들

인간적 성숙을 위하여, 특별히 정서적 성숙을 위한 사제 양성의 수단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들을 통합하고 성숙시키기 위한 단 하나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사제직 후보자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함과 특수성에 따라 양성의 방법과 지도는 유연하게 대처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교회의 교도권이 말하는 양성의 방법 중에서 성소 식별과 동반(개인 동반 / 공동체 동반<sup>21)</sup>을 인간 성숙에 대해 연구한 심리학자들의 이론에 기반하여 정서적 통합을 위한 사제 양성의 수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기인식과 자기수용은 정서적인 성숙에 이르게 하는 기초이며 이는 개인의 성소 식별과 연관된다. 사제 양성 영역에서 성소 식별은 하느님으로부터 행해진 부르심의 근본적 표지들을 규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신학교 양성 기간 중 행해지는 성소 식별의 본질적인 의미는 객관적인 평가의 기준을 통해 하느님의 뜻이 담긴 자연적이고 초자연적인 선물의 실재를 성소자의 인격 안에서 재확인하는 데 있다. 특히 인성 교육과 관련된 식별은 신학생이 성숙하고 건전하며 비정상적이지 않은 성격을 소유하고 있는지, 균형 잡힌 인격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일련의 인간적 자질을 지니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성찰하는 영역에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성찰은 신학생이 사제 직무와 연관된 활동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지를 살펴 보도록 도와줄 것이다.<sup>22)</sup>

21) 프란치스코 교황의 「복음의 기쁨」에서부터 등장한 ‘동반’(accompagnamento)이라는 개념이 사제 양성에 포함되기 시작한 것은 2016년에 새롭게 발간한 사제 양성 지침서 「사제 성소의 선물」부터이다. 「사제 성소의 선물」은 ‘개인 동반’의 목적을 “성소를 식별하고 선교하는 제자를 양성하는 것”(44항)이라 하고, ‘공동체 동반’은 신학교 공동체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형제적 친교를 통해 미래의 사목자로서, 사제단의 한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끈다(참조: 50-52항).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하라. 김의태, 「사제 성소의 선물에서 말하는 사제 양성의 기초와 여정」, 『이성과 신앙』 68(2020), 282-286쪽.

22) 참조: 이춘택, 「사제 양성 과정 안에서의 성소 식별」, 『누리와 말씀』 35(2014), 인

신학생이 지니고 있는 인간적 성숙함과 의지의 확고함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한 인간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또한 사제로서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제되는 조건이다. 따라서 성소의 성숙과 본질적으로 연관된 영역들을 신학생의 실제 상황과 함께 확실한 주의를 가지고, 과연 신학생의 자유로운 의지와 정서적 성숙함으로 사제직을 열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sup>23)</sup>

둘째, 균형 잡힌 정서적 안정을 가지고서 현실에 맞는 안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제어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정서적인 안정감은 개인 동반을 통하여 양성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학생들은 자기 삶의 역사를 성찰하고 양성자와 나눔으로써 청소년기의 경험과 가정의 영향,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을 발견하고 고독의 순간들을 긍정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도움을 제공받는다. 또 개인 동반을 통해서 신학생들은 인간 개인의 모든 측면을 통합시키는 작업, 곧 스스로에게 드러나는 생각과 말과 행위가 ‘나’와 분리된 것이 아닌 전적으로 나에게서 출발하고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직면하고 깨닫는 작업과 경청하는 자세, 대화하는 자세, 순종의 참된 의미와 내적 자유를 배울 수 있다. 이를 위해 동반 과정 중 양성자들은 신학생과 투명하고 진실한 관계를 맺어야 하고, 그러한 관계는 상호 신뢰를 필요로 한다. 상호 신뢰의 관계 안에서 양성에 있는 사람들과 양성자들 사이에 대면하는 소통의 순간을 통하여 사제직 후보자들은 그동안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경험한 강점과 약점을 확인하며 그 체험 안에서 경험한 감정과 느낌을 나누고 질문하고 조언과 지도를 받게 된다.<sup>24)</sup>

정서적 통합을 위한 세 번째 양성의 수단은, 타인과의 따뜻한 관

천가톨릭대학교 복음화연구소, 195쪽; 「현대의 사제 양성」, 43항; 「교회법」 제245조 2항, 제275조 1항, 제1051~1052조 참조; A. Favala, *La formazione iniziale dei candidati al presbiterato*, Roma: Rogate, 1995, p.144.

23) 참조: 이춘택, 앞의 글, 195쪽; 「사제 양성 교령」, 6항; 「사제 양성 기본 지침」, 39항; 「교회법」 제241조 1항.

24) Cf. P. Gamini / M. O. Llanos / G. Roggia, *Mete, Criteri e fasi dell'itinerario*, in *Formazione affettivo-sessuale*, Bologna: EDB, 2017, p.383.

계를 위한 공동체 생활이다. 초기 양성 과정 중 이루어지는 공동체 생활은 너무나 큰 가치들이 숨어 있다.<sup>25)</sup> “공동체 생활은 자기 의도 정화, 생활 방식의 변화, 인간관계 맺기, 대화와 토론의 장이 되며, 장차 사제와 자기 주교와의 관계, 사제와 다른 사제들과의 관계, 사제와 평신도들과의 관계에 큰 도움이 된다.”<sup>26)</sup> 신학교는 공동 생활을 통해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미덕들을 실천하여 인간적 성숙을 더욱 깊이 심화시키도록 하고 있다. 공동체 생활은 학생들에게 책임 의식을 지니고 봉사 정신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을 익혀 그리스도의 모범을 본받을 수 있는 체험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한다. 또한 개개인에게 영향을 주어 자신을 그리스도께 더욱 동화시켜 자신의 의도를 정화하고 더 나아가 포기하는 희생정신과 협력의 유대감을 체험하여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도록 하는 인성 양성의 현장이 된다.<sup>27)</sup>

공동체 동반을 위한 경험 그룹(*il gruppo esperienziale*)은 심오하고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자신의 경험을 전달하는 중심성이 있어 양성 여정의 중요한 포인트를 구성한다.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때 관계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서적-섹슈얼리티의 대화와 풍부함을 경험한다. 다른 사람들과 상호 교환되는 신뢰는 친밀감, 환영받음,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게 한다. 동시에 그룹으로 진행되는 양성의 대화에서 한 사람의 경험을 비교하는 것은 유사점과 차이점을 심화하고 발견하는 진정한 정서적 공동체를 구성한다. 그리하여 경험 그룹에서 확립된 관계의 질이 공동체 자체에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가 된다.<sup>28)</sup>

사실 인간이 지니고 있는 여러 차원들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듯이, 사제직 후보자들의 인격적-정서적 성숙을 위한 양성의 방법

25) 참조: 「사제 생활 직무 교령」, 7-9항; 「현대의 사제 양성」, 17항, 22-23항, 43항, 59항.

26) 김의태, 앞의 글, 285쪽.

27) 참조: 「사제 성소의 선물」, 50-52항; 90항.

28) P. Gamini / M. O. Llanos / G. Roggia, *op.cit.*, p.383.



이나 수단도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다. 양성의 수단과 모델은 교회의 역사와 시대의 상황 안에서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sup>29)</sup> 신학생의 개인 동반 과정 안에서 양성적 대화뿐만 아니라 성소 식별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고, 공동체 동반 안에서 개인의 성소 식별을 또한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사제직 후보자들을 위한 양성의 방법은 항상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양성의 목적과 그 방향성이 대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으로 향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 4. 정서적 통합 양성을 위한 양성자의 동반

사제직 후보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사제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후보자들을 이끌어 줄 양성자들의 자질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양성되는 사람과 양성하는 사람인 양성자가 없다면 어떠한 양성도 가능하지 않다. 양성 계획의 우수성과 효율성은 부분적으로는 구조에 의존하지만 주로 양성자들에게 달려 있다.”<sup>30)</sup>

##### 4.1. 양성자의 역할과 임무

양성자는 자신이 활동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제직 후보자들이

29) A. Cencini는 과거 양성의 모델들과 대안적 모델을 소개하고 있다. 과거의 (또한 오늘날의) 모델들은 (1) 완성의 모델(Modello della Perfezione), (2) 공동체 순응 모델(Modello dell'Osservanza Comune), (3) 자기 실현 모델(Modello dell'Autorealizzazione), (4) 자기 수용 모델(Modello dell'Autoaccettazione), (5) 유일한 기준의 — 또는 통합적이지 않은 — 모델 (Modello del Modulo Unico - o della non integrazione), 그리고 A. Cencini가 제안하는 모델은 통합의 모델(Modello dell'Integrazione)이다. 참조: 김유정, 「그레고리안 대학의 사제 양성자를 위한 양성 과정 소개」, 『복음과 문화』 16(2012), 35-45쪽; A. Cencini, “L'albero dell'vita: verso un modello di formazione iniziale e permanente”, Roma: San Paolo, 2005, pp.19~236.

30) 「사제의 직무와 생활 지침」(2018), 108항.

다양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그들에 대한 특정한 양성 활동을 수행하는 역할을 지닌다. 양성자는 후보자들이 그리스도교의 체험과 문화를 받아들이게 하고, 사람과 공동체의 삶과 관련하여 좋은 형태의 사제가 되도록 그들을 알게 하고 행동하게 하며, 이해하도록 돕는다. 유능하고 효율적인 양성자는 사제직 후보자의 전인적인 모습을 이해하면서 그의 모든 발달 측면을 관리한다. 피양성자가 성장하도록 돕는 구체적인 양성자의 임무는 사랑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자극하고, 조정하고, 가르치고 조절하는 것이다.<sup>31)</sup>

그런데 양성자 또한 내적인 균형이 필요한 한 인간 존재이다. 내적인 균형은 정서적인 문제, 사회적 수용 가능성, 대인관계, 개인적인 만족 등과 관련된 갈등의 주요 원인을 정상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습관적인 능력의 결과이다. 따라서 이러한 양성자의 내적인 균형과 정서적인 성숙을 통한 사랑으로 신학생들을 위해 봉사하고,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바치는 것이 양성자의 역할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임무이다. 이러한 진정한 목자적 사랑이 없이는 사제 양성은 불가능할 것이다.<sup>32)</sup>

이러한 이유로 양성자는 결코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심오한 동기를 필요로 하는 선택이고,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되고 신학생들에게 봉사하며 그들이 자신의 사랑의 선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진정한 경향의 결과로 양성의 임무를 선택하게 된다. 이에 대해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도 양성자들은 “자신들의 사고방식과 행동 방식이 신학생들의 교육 성과에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심하여야 한다”<sup>33)</sup>고 말한다.

무엇보다도 사제 양성의 이러한 역할과 임무의 첫 번째 책임자는 교구장 주교이다. 주교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제직 후보자들의 양성에 대한 직무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막중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사제들

31) Cf. M. Szentmártoni, “Psicologia della vocazione religiosa e sacerdotale”, Roma: Editrice Pontificia Università Gregoriana, 2005, p.124.

32) Cf. J. Bramorski, *op.cit.*, p.73.

33) 「사제 양성 교령」, 5항.

을 신중하게 선발해야 한다.<sup>34)</sup>

모든 신학교에서는 학장을 대표로 하는 양성자 공동체를 구성해야 한다. “양성자 공동체는 학장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기도하고 신학교 생활의 계획을 짜고 정기적으로 신학생들의 성장을 평가하여야 하고, [...] 사제직의 가치에 일관되고 훌륭한 증언을 제공하는 참된 교육 공동체이다.”<sup>35)</sup> 이렇게 양성자 공동체가 구성되어 양성자들 사이의 친교와 협력의 정신으로 사제직 후보자들을 양성해 나가면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제 양성 안에서 항상 첫 번째의 양성자는 바로 성령이라는 점이다.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주시는 도움 없이는 사제직을 준비시키는 양성 작업을 참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sup>36)</sup> 사제 양성은 본질적으로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성령의 활동이다. 그러므로 사제 양성은 양성자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닌 성령의 빛에 인도되어 양성의 제1책임자인 주교에게 위임을 받은 여러 양성자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적 활동이다.

## 4.2. 양성자에게 요구되는 인격의 특성과 자질

사제 양성과 관련된 여러 교회 문헌에서는 사제 양성을 책임진 이들의 자질과 특성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강조한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사도적 권고 「현대의 사제 양성」은 주교들에게 모범적 생활과 함께 여러 가지 자질들을 갖춘 사제들 중에서 양성자들을 뽑도록 요구한다. 사도 권고에서 말하는 자질을 갖춘 사제들은 다음과 같다. 인간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숙한 인격을 소유한 사제, 사목 경험이 있는 사제,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갖춘 사제, 그리고 자신의 소명에 대하여 굳건함을 가진 사제, 협력하는 자세를 갖추어서 그룹 작업에 협력할 수 있는 사제 그리고 양성 과정에 맡겨진 직책에 필요한 학문에 있어서, 특별히 심리학에 있어서도 이론적으로 교육된 사제이다. 사도 권고는 이러한 자질들을 갖춘 사

34) 참조: 「현대의 사제 양성」, 66항; 「신학교 양성자의 양성에 관한 지침」, 18항.

35) 「사제 성소의 선물」, 132항.

36) 「현대의 사제 양성」, 65항.

제들을 사제직 후보자를 위한 양성자로 선발하도록 간곡히 권고한다.<sup>37)</sup>

「신학교 양성자의 양성에 관한 지침」도 양성자의 필수 자질을 나열한다. 문헌에 따르면, 양성자는 신앙심, 사목적 감각, 친교의 정신, 성숙한 인성과 심리적 균형, 분명하고 성숙한 사랑의 능력, 경청과 대화, 의사소통 능력, 현대 문화에 대한 긍정적이고 비판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sup>38)</sup> 사제직 후보자를 이끌기 위해서는 양성자들이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숙함에 도달해야 한다. 특히 사제직 후보자들의 정서적 성숙과 통합을 위해서, “모든 양성자는 인간의 성장 주기, 역량과 약점, 하느님과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방식 등 인간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양성자는 예리한 감각과 적절한 심리학 지식을 지녀야 한다. 그리하여 가능하다면 신학생이 사제가 되려는 진정한 동기가 무엇인지, 신학생이 인간적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는 데 장애물은 없는지, 신학생에게 어떤 정신 병리학적 장애가 있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sup>39)</sup>

A. Cencini는 양성자 자신이 특정한 수준의 정서적 성숙에 도달했을 때 그리고 그가 자신의 정서적 삶에 독창적이고 중심적이며 지배적이고 초월적인 동기로서 평온하게 자신의 독신을 살아갈 때, 양성자로서 충분하고 효과적인 자질을 갖춘다고 말한다.<sup>40)</sup> 그는 정서적 성숙의 여정을 돕기 위한 양성자의 여러 자질을 다음과 같이 나열한다. a) 양성자는 자신이 지닌 가장 취약한 점과 정서의 덜 강하고 덜 자유로운 영역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b) 양성자는 정서적 갈등과 미성숙, 심지어 무의식적인 것들의 존재를 피 양성자에게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양성자는 신학생들이 문제 제기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며 특히 젊은이가 어떤 어려움이 없

37) 참조: 같은 책, 66항; 한영만, 「2001년 한국 사제 양성 지침이 취하고 있는 원천들에 대한 포괄적 접근」, 『신학과 사상』 40(2002), 142-143쪽.

38) 「신학교 양성자의 양성에 관한 지침」, 26-41항.

39) 「신학생 선발과 양성에서 심리학 활용 지침」, 3-4항

40) Cf. A. Cencini, *Per amore con amore nell'amore*, p.99.

다고 말할 때, 외부 행동만으로 관찰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양성자는 관찰 가능한 행동 외에 가장 깊은 동기, 근본적인 욕구, 숨겨진 긴장을 인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피양성자의 정서적 일관성과 비일관성의 정도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c) 양성자는 신학생이 자신의 정서적 미성숙과 그 뿌리 및 결과를 발견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d) 양성자는 젊은이가 자신의 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돕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신학생들이 지닌 이러한 어려움들은 종종 무의식적이기 때문에, 양성자는 무의식적인 조건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마음과 정신과 의지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필요한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e) 양성자는 젊은이가 새로운 기반에서 자신의 정서적 삶을 구축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젊은이들은 그리스도의 가치를 개인적 선택으로 그리고 이 가치의 내면화(internalizzazione)의 결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f) 양성자는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피양성자와 함께 살아야 하는데, 이는 일상생활 안에서 그들을 직접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이는 개인을 알게 하는 가장 좋은 정보의 원천이다.<sup>41)</sup>

양성자는 사제직 후보자들의 발달 연령의 정서적 문제에 대해 가장 긴밀하게 개입해야 한다. 신학생들이 적절한 조건, 곧 인간관계의 구조에 질서 있는 개입을 통해 인간적 성숙을 이룬다면 독신생활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제직 후보자들의 정서적 성숙을 위해 양성자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자질과 특색을 갖추어야 하며, 스스로 또한 이러한 성숙의 길 위에 있어야 하고 성령의 빛에 인도되어 자신을 끊임없이 쇠신시킬 줄 알아야 할 것이다.

### 4.3. 양성자를 위한 양성

정서적으로 성숙한 미래의 사제들을 양성하기 위해 양성자들이 먼저 인격적 성숙을 이루어야 함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이를 위

41) Cf. *Ibid.*, pp.99-105.

해 미래의 양성자들은 임명 전에 여러 자질들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임명 이후에도 그들을 위한 지속적인 양성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다. 양성자를 위한 지속 양성은 양성자 본인의 사제적 삶을 지탱하고 깊이 해 나가기 위한 도움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양성자 스스로 사제 양성의 책임을 수행해 나가는 가운데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여러 다양한 상황들, 예를 들어 양성자로서 자신의 능력 부족에 대한 자각, 장상과 동료 사제로부터 유능한 양성자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 피양성자와의 관계 안에서 정서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역량의 결여, 양성 과정에서 맛보게 되는 실패감, 교육의 모범으로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의 비현실성 또는 자신 안에 존재하는 심리적 비밀관성 등의 요인들로 인해 야기되는 어려움이다.<sup>42)</sup>

양성자 역시도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성소를 살아가는 사람이다. 피양성자와 마찬가지로, 그들 자신도 개인 차원에서 자신의 사제 성소 그리고 양성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지닌다. 이러한 과정에서 본인이 속한 공동체의 환경, 그리고 더 크게는 사회문화적 요인들로부터 받게 되는 영향들이 적지 않다. 그렇기에 양성자들 역시 초기 양성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의 사제 양성을 계속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sup>43)</sup> 결국 “사제 양성이 어느 정도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대부분 사제 양성을 책임진 사람들의 인격이 인간적인 관점에서나 복음적인 관점에서나 어느 정도로 성숙되어 있고 강인하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사제 양성을 책임지는 사람들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일과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기에 더욱더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그들을 독려하는 일은 특히 중요한 일이다.”<sup>44)</sup> 또한 양성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닌 성령의 빛에 인도되어 양성의 제1책임자인

42) A. Cencini, “La crisi nella vita del formatore”, *Tredimensioni* 7(2010), 154-161.

43) 참조: 민범식, 「교구 사제 양성의 방향과 내용: 무엇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사목연구』 39(2017),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140쪽.

44) 「현대의 사제 양성」, 66항.

주교에게 위임받아 여러 양성자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적 활동임을 기억해야 한다.

## 5. 나가는 말

사제가 된다는 것은 어느 한 번의 사건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사제 서품을 통해 사제가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사제는 평생을 통해 착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제가 되어가는 여정을 걷는다. 따라서 사제직 후보자들의 초기 양성은 한순간에 완벽한 이상적인 사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제가 평생의 삶을 통해 겪게 될 어려움과 문제들을 직면하고 이겨낼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다.

교회의 가르침은 한결같이 사제가 되기 위해선 성숙한 인간적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중에서 우리는 사제의 정서적 성숙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서적 성숙은 사제직 후보자들이 갖추어야 할 성숙된 인격 중 하나로서, 이 성숙으로 말미암아 사제의 독신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사제직 후보자들이 성숙한 사제 생활과 거룩한 독신 생활을 위해서 충분하고도 통합적인 양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양성자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신학생들을 위한 개인·공동체 동반을 위해서 그들 스스로가 먼저 성숙된 인격과 여러 자질과 특색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사제 양성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주는 것이다. 또한 그분의 얼굴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자신의 실존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사제가 된다는 것은 하느님의 백성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굳건한 신앙을 고백하는 동시에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살겠다는 다짐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미래의 사제들을 양성하는 이들은 인성과 영성 교육을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또한 양성자들은 그리스도야말로 양성의 모범이시며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참된 교육자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숙함을 지닌 사제를 양성하기 위하여, 사제직 후보자들의 감정, 애정, 느낌, 열정 등과 같은 인간의 정서적인 측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 자기훈련 그리고 충실한 양성자의 동반을 필요로 한다. 이 정서성은 인간 성숙의 역동적인 것으로서, 하느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소유하고 그분의 크신 사랑을 온전한 모습으로 받아들여 참된 사제 생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1. 교회문헌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현대의 사제 양성」(*Pastores dabo vobis*, 1992.3.25),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3.
- \_\_\_\_\_, 회칙 「인간의 구원자」(*Redemptor Hominis*, 1979.3.4),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1.
- 교황청 가톨릭교육성, 「독신생활 양성지침」(1974.4.11), 『사제양성: 신학생 교육에 관한 교회 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3, 275~365쪽.
- \_\_\_\_\_, 「사제 양성의 기본 지침」(1985.3.19), 『사제양성: 신학생 교육에 관한 교회 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3, 32~123쪽.
- \_\_\_\_\_, 「신학교 양성자의 양성에 관한 지침」(1993.11.4),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34(2005), 93~139쪽.
- \_\_\_\_\_, 「신학생 선발과 양성에서 심리학 활용 지침」(2008.6.29),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40(2009),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79~298쪽.
- 교황청 성직자성, 「사제 성소의 선물」(2016.12.8),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8.
- \_\_\_\_\_, 「사제의 직무와 생활 지침」(2013.2.1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8.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 「온 교회의 열망」(*Optatam totius*, 1965.10.28),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
- \_\_\_\_\_, 사제의 생활과 교역에 관한 교령, 「사제품」(*Presbyterorum Ordinis*, 1965.12.7),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

### 2. 단행본

- Allport, G. W., *Psicologia della personalità*, trans. A. Ronco, Zürich: Pas-Verlag, 1969.
- Antonio, O. di Lorenzo, *Prete oggi: "puzza" di pecore, odora di Cristo*, Todi: Tau, 2016.
- Bisi, M., *La vita affettiva della persona credente: un itinerario di meditazione profonda*, Roma: Apostolato della Preghiera, 2017.

- Bramorski, Jaeck, *La formazione sacerdote nella prospettiva dell'amore-dono*, Roma: Pontificia Studiorum Universitas A. S. Thoma AQ in Urbe, 1998.
- Cencini, A., 『파스카적 성을 위하여: 오늘날의 동정성과 독신』, 국춘심 옮김, 생활성서, 2011.
- \_\_\_\_\_, *L'albero della vita: verso un modello di formazione iniziale e permanente*, Roma: San Paolo, 2005.
- \_\_\_\_\_, *Per amore, con amore, nell'amore: libertà e maturità affettiva nel celibato consacrato*, Bologna: EDB, 2011.
- Crea, G., *Preti e suore oggi: come riconoscere e prevenire i problemi*, Bologna: EDB, 2012.
- Decaminada, F., *Maturità affettiva e psicosessuale nella scelta vocazionale*, Saronno: Editrice Monti, 1995.
- Favala, A., *La formazione iniziale dei candidati al presbiterato*, Roma: Rogate, 1995.
- Gamini, P. / Llanos, M. O. / Roggia, G., *Mete, Criteri e fasi dell'itinerario*, in *Formazione affettiva-sessuale*, Bologna: EDB, 2017.
- Goffi, T., *L'integrazione affettiva del sacerdote*, Brescia: Queriniana, 1968.
- Goya, B., *Psicologia dinamica e vita spirituale*, Roma: Teresianum, 1985.
- Jahoda, M., *Current concepts of positive mental health*, New York: Basic Books, 1958.
- Manenti, A., *Comprendere e Accompagnare la persona umana*, Bologna: EDB, 2013.
- Maslow, A. H., *Motivazione e personalità*, Roma: Armando, 1982.
- Pascucci, A., *Caratteristiche della personalità matura*, in *Compendio di teologia spirituale*, Roma: Pust, 1992, pp.487~508.
- Stevani, M., *Il processo di maturazione a livello affettivo e sessuale*, in *Formazione affettivo-sessuale*, Bologna: EDB, 2017, pp.45~76.
- Szentmártoni, M., *Psicologia della vocazione religiosa e sacerdotale*, Roma: Editrice Pontificia Università Gregoriana, 2005.

### 3. 정기간행물

- Cencini, A., “La crisi nella vita del formatore”, *Tredimensioni* 7(2010), 154~165.
- Insa Gómez, F. J., “Accompagnare i candidati al sacerdozio sulla strada della maturità”, *Tredimensioni* 14(2017), 176~187.
- 김의태, 「사제성소의 선물에서 말하는 사제 양성의 기초와 여정」, 『이성과 신앙』 68(2020), 수원가톨릭대학교, 273~300쪽.

- 김유정, 「그레고리안 대학의 사제 양성자를 위한 양성 과정 소개」, 『복음과 문화』 16(2012), 대전가톨릭대학교, 3-64쪽.
- 민범식, 「교구 사제 양성의 방향과 내용: 무엇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사목연구』 39(2017),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109-149쪽.
- 이춘택, 「사제 양성 과정 안에서의 성소 식별」, 『누리와 말씀』 35(2014), 인천가톨릭대학교 복음화연구소, 179-225쪽.
- 한영만, 「2001년 한국 사제 양성 지침이 취하고 있는 원천들에 대한 포괄적 접근」, 『신학과 사상』, 40(2002), 신학과사상학회, 127-153쪽.

## 국문초록

본고는 사제 양성을 하는 데에 있어서 미래의 사제들이 갖추어야 할 정서적 성숙에 대한 양성의 수단과 이를 동반하기 위한 양성자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교회는 미래의 사제들이 온전히 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정서적·심리적 성숙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교회의 사제는 여러모로 성숙한 상태에서 성품성사를 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꼭 완성된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교회의 일부 사제들에게서 미성숙한 정서적·성적 문제들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대한 반성적인 성찰로 본고에서는 미래의 사제들이 갖추어야 할 ‘정서적 성숙’은 어떠한 측면을 담고 있는지 현대의 심리학을 기반으로 살펴보았다.

인격의 성숙을 연구하였던 다양한 심리학자들 중에서 사회심리학자인 야호다(M. Jahoda), 올포트(G. W. Allport) 그리고 인본주의 심리학자인 매슬로우(A. H. Maslow)가 말하는 성숙한 인간에 대한 연구는 사제 양성의 ‘정서적 성숙’에 대한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본고에서는 사제 양성 안에서 미래의 사제들이 정서적 성숙과 통합을 위한 사제 양성의 수단으로 세 가지 측면을 제안하였다. 첫째는 자기인식과 자기수용으로서 이는 개인의 성소 식별과 연관된다. 곧 사제직 후보자가 균형 잡힌 인격을 지니고 자유로운 의지와 정서적인 성숙함으로 사제직을 열망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는 균형 잡힌 정서적 안정을 토대로 현실에 맞는 안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성숙한 양성자와의 개인적 동반이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타인과의 따뜻한 관계를 위한 공동체 생활이 정서적 성숙과 통합을 위한 양성의 수단이 된다. 초기 양성 과정에서 공동체 생활은 소중한 가치들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공동체 동반을 통한 경험 그룹의 형성은 자신의 경험을 전달하는 중심성이 있어, 양성 여정 안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제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래의 사제들을 양성할 양성자들의 성숙이 우선되어야 한다. 양성의 제1책임자인 주교는 양성자를 선발하는 데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과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하며, 선발된 양성자들은 자신들의 임무와 역할이 교회의 미래를 성장시키는 데에 중요한 측면을 담당하게 됨을 스스로 인지하여 양성자 자신부터 지속적인 양성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그리하여 교회의 양성자는 착한 목자이시며 대사제이시면서도 성숙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제를 양성하는 데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주제어: 사제 양성, 정서적 성숙, 성숙한 사제, 양성자, 양성자의 양성.

[특집]

## 사제의 '하느님 나라를 위한 독신' 삶 실현을 위한 양성적 제안\*

■  
하 태 옥

[서울 대신학교 영성양성 신부]

---

서 론

1. 사제 독신의 의미: 신학적 고찰
  - 1.1. 예수 그리스도의 독신
  - 1.2. 사제 독신의 의미
2. 사제 독신에 대한 인간학적 고찰
  - 2.1. 인간의 성(sexualità)과 독신
  - 2.2. 독신 삶에서 겪는 심리적 조건들: 어려움과 풍요로움
  - 2.3. 독신의 왜곡들
3. 독신 삶을 위한 양성적 제안들
  - 3.1. 자기 알기
  - 3.2. 감수성의 양성
  - 3.3. 일상생활 관리하기: 영성 생활과 절제 생활
  - 3.4. 일상의 관계 관리하기

결 론

---

### 서 론

교회는 사제의 독신 삶을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부르심이요 선물로 정의하며, 사제들이 독신을 법적인 규정으로만 인식하기보다, 이를 넘어 하느님 나라를 위한 선물로서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받아들여 살도록 초대한다.<sup>1)</sup> 하지만 이 초대와 달리 실제 삶의 현실에서는 독신을 하느님 나라를 위한 성소나 선물이 아닌 사제직

---

\* 이 글은 2023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계광학술연구기금'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작성된 논문임.

1) 참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 「온 교회의 열망」(*Optatam Totius*), 10항.

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지불해야 하는 무거운 짐으로 인식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독신 삶이 성소적 가치를 향해 초월해 가는 차원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삶의 형태를 유지하는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말하자면, 독신이라는 외형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하느님 나라를 위한' 삶의 의미가 아니라, 규정으로 부과된 외적인 형태와 금욕적인 의미에만 머물러 있는 독신이라고 할 수 있다. 사제가 독신 삶을 하느님의 부르심의 차원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유지해야 할 법적인 규정의 차원으로만 머물러 있는 한, 독신은 삶의 보화와 선물을 발견하도록 하기보다 사제를 더 자유롭지 못하게 구속하는 짐으로 체휼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성소의 여정을 가는 사제를 양성함에 있어서 하느님의 부르심이 그저 신학적 이론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사제의 구체적 삶 안에 깊숙이 뿌리내려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양성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2016년에 발표된 새로운 사제 양성 지침 「사제 성소의 선물」(*Ratio Fundamentalis Institutionis Sacerdotalis*)은 다가오는 시대에 요구되는 사제 양성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이 문헌에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두 가지 지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헌은 기존의 '철학과'와 '신학과'로 구성되었던 지성적 교육 중심의 관점에서 '예비 과정', '제자 과정', '동화 과정' 그리고 '성소 통합 과정'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이는 사제 양성에 대한 교회의 새로운 관점을 반영한다. 즉 사제 양성은 단순히 지성적 교육으로 대체될 수 없는 것으로서, 지성뿐만이 아니라 인성, 영성, 사목 분야에서의 다양한 면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sup>2)</sup>

이와 더불어, 사제의 양성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끊임없는 여정으로서 신학교에서의 초기 양성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어 사제 생활 전체 안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2) 참조: 성직자성, 「사제 성소의 선물」(*Ratio Fundamentalis Institutionis Sacerdotalis*, 2016), 57~79항.

한다고 하는 지속 양성의 중요성 역시 강조되고 있다.<sup>3)</sup> 이 문헌이 제시하는 이 강조점들은 사제의 전 존재가 그리스도께 동화되어 하느님에게서 받은 부르심이 사제 고유의 인격과 삶 안에 서서히 뿌리내려 가도록 하는 양성적 목표를 지향한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 무엇보다 (미래의) 사제들이 독신 삶을 그리스도의 정결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가며, 그야말로 하느님의 선물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제안을 제시해 보려 한다. 룰라(Rulla)에 의하면,<sup>4)</sup> 성소의 여정을 가는 사제를 양성함에 있어서 양성적 효과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성소에 대한 이상적 가치에 대한 명확한 제시와 함께, 사제의 인간학적 차원과 관련한 주관적 진리에 대한 고찰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첫 번째 장에서 독신 성소에 대한 신학적 의미에 대해 규명한 후에, 이어서 독신 삶에 관계된 사제의 인간학적 조건들에 대하여 고찰해 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측면에서의 양성적 실천들을 제안하도록 하겠다.

## 1. 사제 독신의 의미: 신학적 고찰

독신은 배우자와의 결혼을 포함한 가정생활을 포기하는 삶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제의 독신 삶 선택은 단순히 결혼하지 않는 것 자체만을 목적으로 삼지 않으며, 그리스도에게서 기원한 고유의 가치를 지향한다. 이런 맥락에서 가톨릭교회는 사제들에게 독신을 단순히 의무적인 제도가 아닌 ‘하늘나라를 위한’ 부르심으로서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나아가도록 촉구한다. 교회는 역사 안에서 독신 제도에 대한 수많은 반대와 저항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독신

3) 참조: 「사제 성소의 선물」, 56항, 80-83항; Cf. P. S. Morgalla, *La formazione oggi come sfida per i domani*, GBP, 2018, p.93.

4) Cf. L. M. Rulla, *Antropologia della Vocazione Cristiana Vol.I, Basi interdisciplinari*, EDB, 1997, p.360.



삶이 지나는 고유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이는 사제 성소의 삶에서 독신이 주는 특별한 보화를 지키고자 하는 교회의 강한 의지를 보여 준다.

교회의 이러한 지향에 따라 사제를 양성함에 있어서, 사제 삶에서 독신이 지니는 신학적 의미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정의하는 작업은 우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사제가 하느님 나라를 위한 독신이라는 이상적 가치를 향해 초월해 나아가도록 끌어주는 동력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장에서는 사제 독신의 삶이 지향하는 고유의 가치와 의미에 대하여 신학적 차원에서 규명해볼 것이다.

### 1.1. 예수 그리스도의 독신

사제가 선택하는 '하늘나라를 위한' 독신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그 뿌리를 둔다. 그리스도의 독신 삶에 대하여 성경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곳곳에서 그 간접적인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약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의 가족을 언급할 때,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은 언급되지만 아내와 아이들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이 밖에도 여러 단서들과 함께 예수께서 독신으로 사셨다는 데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의견의 일치를 이루고 있다.<sup>5)</sup>

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문화적 상황 안에서 독신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형태는 아니었다. 오히려 구약성경을 보면, 여인에게 있어서 혼인하고 출산하여 많은 자손을 낳아 번성하는 것이 하느님의 축복으로 여겨졌고, 반대로 아이를 못 낳는 것을 하느님께 버림받았음의 표지나 수치스러움으로 받아들여졌던 당시의 인식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6)</sup> 이런 인식이 예수님 시대에도 이

5) Cf. T. Wojtal, *Come Cristo Sposo della Chiesa, Aspetti dogmatici del celibato sacerdotale*, Siena, 2015, pp.92-93; 마르 3,31; 6,3; 요한 6,24; 7,3; 사도 1,14.

6) 참조: 창세 28,3; 시편 127,3-5; 128,1-3; 사무엘 1,2-20; 루카 1,25("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겪어야 했던 치욕을 없애 주시려고 주님께서 굽어보시어 나에게 이 일을 해

어지고 있음을 신약성경의 즈카리아와 엘리사벳의 대화 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7)</sup> 이처럼 독신이라는 삶의 형태가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대상이 아니었던 문화적 상황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의 독신 삶으로의 선택에는 그분의 특별한 의도와 지향이 담겨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의 삶을 들여다보면, 아버지 하느님과의 일치 안에서 온전히 그분께 속해 있음을 보게 된다. 이러한 아버지를 향한 정결한 사랑은 그분 삶의 전체를 관통한다. 이 사랑은 구체적으로 병자를 고쳐주고, 마귀를 쫓아내고, 죄인과 함께하는 등의 하느님 나라를 위한 투신의 행위로 드러난다.<sup>8)</sup> 즉 성부에 대한 정결한 사랑이 그분의 구원 계획인 하느님 나라를 위한 온전한 투신으로 이어진다. 그리스도의 독신 삶은 이 정결한 사랑의 결과이며 구체적인 실현이다. 결국 갈림 없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느님과 그분 백성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독신을 특징짓는 핵심적인 동기라고 할 수 있다.<sup>9)</sup>

그리스도에게서 기원한 독신 삶의 특징을 특별히 밝혀주는 단서를 마태오 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다. 마태오 복음 19장 12절은 독신에 대해 유일하게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 독신 삶과 관련하여 저자는 ‘고자’라는 다소 극단적인 표현을 씌으로써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어서 근본주의적인 따름으로의 추구를 표현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 구절 이후에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구절들이 이어지는 만큼,<sup>10)</sup> 이 표현은 뒤를 돌아보

---

주셨구나”).

7)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겪어야 했던 치욕을 없애 주시려고 주님께서 굶어보시어 나에게 이 일을 해 주셨구나”(루카 1,25).

8) 참조: 마태 8,14-16.

9) Cf. J. M. Uriarte, *Il celibato, appunti antropologici, spirituali e pedagogici*, Bologna, 2016, pp.77.

10) 이 구절 뒤에 이어서 ‘예수님과 어린아이’, ‘부자 청년 이야기’ 그리고 20절에 ‘따름과 보상’의 내용이 이어서 소개된다; Cf. D. Marzotto, “Il celibato nel Nuovo Testamento”, *La scuola cattolica* 110(1982), 355.

지 않고, 갈라짐 없는 마음으로의 포기를 요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 완전한 포기는 '하늘나라 때문에'라는 구절의 표현과 연결된다. 이는 복음의 맥락에서 독신의 선택은 그 자체가 절대적인 목적이라기보다 '하늘나라'라는 가치를 지향하는 선택임을 가리킨다. 결국 이 표현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이 구절은 마태오 복음의 맥락에서 독신 선택이 단순히 무언가에 대한 금욕적인 포기만이 아니라, 더 높은 가치의 선택, 즉 복음 선포의 근본인 하늘나라로의 초대임을 보여 준다.<sup>11)</sup>

이처럼 그리스도의 정결한 사랑과 하늘나라를 위한 온전한 투신 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독신 삶을 규정짓는 고유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례자 요한의 독신은 그리스도의 그것과 차이점을 보인다. 요한의 독신 생활은 다가올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려는 지향 안에서 광야에서 혼자 머물며 세상과 거리를 두는 금욕적인 삶으로 특징 지워진다. 반면 예수님은 늘 가난한 이들, 병자들, 죄인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과 함께하며, 그들을 연민으로 대하시는 등 그분의 삶은 독신 안에서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방향 지워져 있음을 볼 수 있다.<sup>12)</sup> 갈롯(Galot)에 의하면, 예수님의 독신은 그야말로 육화의 신비의 맥락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즉 그분의 독신 선택은 세상과 분리하려는 선택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하려는 하느님의 사랑의 맥락 안에서 모든 이에게 개방하는 선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sup>13)</sup> 이처럼 사랑으로 특징지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독신은 '하늘나라를 위한 독신'으로서 그리스도교 안에서의 독신, 특히 사제의 독신 삶의 제일 기준이 된다.

11) Cf. T. Wojtal, *Come Cristo Sposo della chiesa, Aspetti domastici del celibato sacerdotale*, p.109.

12) Cf. J. M. Uriarte, *Il celibato, appunti antropologici, spirituali e pedagogici*, pp.74-75.

13) Cf. J. Galot, "Il celibato sacerdotale alla luce del celibato di Cristo", *La civiltà cattolica* 20(1969), 365.

## 1.2. 사제 독신의 의미

그리스도 이후에 초기 교회 안에서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많은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에 매료되어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사명에 동참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중의 많은 이들은 그분 사랑의 구체적 삶의 방식이었던 독신 삶을 공유하면서 하느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하고 증언하였다.<sup>14)</sup> 즉 초기 교회 안에서 제자들의 독신 선택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에 매료되어 시작된 그리스도를 따름 (Sequela Christi)의 일환으로 자유롭게 선택되고 실천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서 성직자들의 독신은 의무적인 규정으로 확립되어 갔다. 300년 경 엘비라(Elvira) 공의회에서 교회 성직자들에 대한 부부관계의 ‘완전한 절제’의 의무가 처음 명시되었다.<sup>15)</sup> 하지만 당시 의도했던 ‘완전한 절제’는 성직자들의 혼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다가 1139년에 이르러 제2차 라테란(Laterano) 공의회에서 사제들의 혼인이 금지되는 독신 삶의 의무가 명시되었다.<sup>16)</sup> 이렇게 사제의 제도적인 독신을 실천해오면서 한편에서는 사제들의 독신 의무를 반대하는 여러 이견들도 제기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사제직이 그 자체로 독신 생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언급하면서도, 사제들의 ‘하느님 나라를 위한 독신’의 삶이 주는 보화를 재확인하고 이 규정을 고수할 것을 선언한다. “독신 생활은 많은 점에서 사제직에 적합하다. [...] 사제직을 지원하는 이들과 관련된 이러한 규정을 이 거룩한 공의회는 거듭 승인하고 확인한다.”<sup>17)</sup>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도 현대에 사제 독신의 위기에 응답하

14) R. Fabris, “Gli eunuchi per il Regno dei cieli”, *Parola Spirito e Vita* 12(1985), 142.

15) “주교, 사제, 부제뿐 아니라 직무에 임명된 모든 성직자들이 아내와 (성)관계를 갖고 자녀를 낳는 것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직자의 명예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필자역, Concilio di Elvira, can.33: C. Cochini, *Origini apostoliche del celibato sacerdotale*, Roma, 2011, p.186).

16) Cf. Can 7, in *Decrees do the Ecumenical Councils: Volume I*, Sheed&Ward and Georgetown University Press, 1990, p.198.

17) 「사제 생활과 교역에 관한 교령」, 16항.

고자 이 삶이 지닌 고유한 가치에 대한 신학적인 고찰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졌다. 공의회 이후 사제 독신에 대한 첫 회칙인 바오로 6세 교황의 회칙 「사제 독신 생활」(*Sacerdotalis Caelibatus*)<sup>18)</sup>은 사제직과 독신 사이에 존재하는 연결점을 3가지 차원(그리스도론적 차원, 교회론적 차원, 종말론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한다. 사제 독신의 의미에 대한 신학적 고찰은 이후에도 이러한 전망을 기반으로 심화 발전되어 간다.

‘하늘나라를 위한 독신’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안에서 그분을 닮고 따르고 싶은 그분에 대한 사랑이 일차적인 주요 동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제는 사제 서품을 통해서 존재적으로 그리스도와 긴밀히 연결된다. 즉 사제 서품을 통해 사제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제직에 참여하며, 그 힘으로 착한 목자이며, 교회의 머리요, 배필이신 그리스도께 동화된다.<sup>19)</sup>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사제는 자신의 성소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온전히 바쳐 응답할 준비를 갖추게 된다. 이렇게 사제는 그리스도와의 긴밀한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와 닮은 또 다른 그리스도로서(*Alter Christi*)의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스타일을 발견한다.<sup>20)</sup> 그러므로 사제에게 있어서 독신 삶은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닮고 따르기 위한 도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는 표징이 되게 하고, 그분께 더욱 온전히 투신하도록 돕는 도구인 것이다.<sup>21)</sup> 이처럼 사제 독신의 그리스도론적 차원은 사제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출발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교회론적 차원으로 이어진다. 교회의 머리요 정배이신 그리스도와의 긴밀한 연관성 안에서 사제는 그분께 동화되면서 동시에 교회에 투신한다. 다시 말하면, 사제는 성품성사로 교

18) 참조: 바오로 6세, 회칙 「사제 독신 생활」(*Sacerdotalis Caelibatus*, 1967): AAS 62(1970), nn.19~34.

19) 참조: 요한 바오로 2세, 권고 「현대의 사제 양성」(*Pastores Dabo Vobis*, 1992), AAS 84(1992), n.50.

20) Cf. C. Sepe, “Attualità del celibato sacerdotale”, in C. Sepe / M. Pacenza(ed.), *Solo per amore. Riflessioni sul celibato sacerdotale*, Cinsello Balsamo, 1993, p.63.

21) Cf. T. Wojtal, *Come Cristo Sposo della chiesa, Aspetti domatici del celibato sacerdotale*, p.276.

회의 머리이시고 배필이신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던 그 배우자적 사랑으로 조건 없이 교회에 투신하게 된다.<sup>22)</sup> 더 나아가, 사제의 독신 삶은 궁극적으로 착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독신의 연장으로서,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건설하고 헌신하는 사목적인 의미와 동기를 갖는다. 이런 의미에서 독신은 목자적 사랑의 표징이며 자극제이다.<sup>23)</sup>

또한 동시에 독신 삶은 무엇보다도 초월적 하느님 나라의 가치와 연결되어 있는 만큼 종말론적 의미도 지닌다. 즉 독신 삶은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하늘나라의 삶을 미리 보여 주는 예형이요 표징으로서, 사제는 이를 통해서 이미 현존하는 미래 삶을 보여 주는 생생한 표징이 된다.<sup>24)</sup>

이처럼 사제의 독신은 다른 독신과는 달리 ‘하늘나라를 위한 독신’으로서 그 고유한 가치를 지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즉 이 삶은 그리스도께서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그 형태를 흉내내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결한 사랑을 지향하는 삶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주어 봉사하는 사랑으로 초대하는 사제직 성소는 또 하나의 부르심의 가치로 받아들여진 독신 삶 안에서 더 큰 힘을 얻게 된다.

## 2. 사제 독신에 대한 인간학적 고찰

성소는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 안에서 근본적으로 하느님에게서 오지만, 인간의 깊은 내면으로부터 전해지며 인간 본성의 현실 위에 작용한다. ‘하늘나라를 위한’ 하느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인 독신 삶 역시 인간 조건의 토대 위에 구체적으로 작용하고 실현되는 만큼,<sup>25)</sup> 사제 양성에 있어서 독신이라는 부르심의 객관적인 내용, 즉

22) 참조: 「사제 독신 생활」, 26항.

23) 참조: 「교회 헌장」, 42항.

24) 참조: 「사제 독신 생활」, 34항; 「사제 생활과 교역에 관한 교령」, 16항.

25) Cf. B. Sebastian, *Pienamente in Cristo*, San Paolo, 2015, p.12.

따라가야 할 이상적 가치를 제시해주는 것뿐 아니라, 사제의 인간 조건과 관련한 주관적 진리에 대한 고찰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장에서는 독신 성소를 살아가는 주체인 사제에 대한 인간학적인 접근을 시도할 것이다. 이는 사제가 처한 인간의 본성적 조건, 특히 성적 조건이 독신 성소를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또한 이 조건 안에서 사제는 어떻게 응답해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한 단서를 마련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인간 본성인 성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본 후에, 사제가 독신 삶의 조건 안에서 처하게 되는 심리적 상황에 대하여 다루어 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독신의 왜곡된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도 짚어볼 것이다.

## 2.1. 인간의 성(*sessualità*)과 독신

부부관계를 포함한 성적인 관계를 포기하는 삶인 독신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제가 가지고 있는 성적 본성은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느냐는 질문 앞에, 사제의 성적 본성은 그 자체로 독신 삶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그래서 제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인간의 성에 대한 제한적인 인식을 보여 준다.

인간은 누구나 성이라는 조건에 존재론적으로 조건 지어져 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성에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성적 조건은 인간의 전체 구조를 관통하여 인격 전반<sup>26)</sup>에 영향을 미친다.<sup>27)</sup> 즉 남성이나 여성의 조건은 느끼는 방식, 관계하는 방식 그리

26) 인간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진 단일한 존재이다. 영적인 면과 육적인 면 모두를 포함하는 성은 다양한 차원에서 인간의 전 존재를 관통한다: 생식성, 육체성, 정서성 그리고 영성. Cf. A. Cencini, *Verginità e celibato oggi per una sessualità pasquale*, EDB, 2008, pp.52~53.

27) 참조: 신앙 교리성, 「성 윤리상 특정 문제에 관한 선언」(*Persona Humana*, 1975), 1항.

고 행동하는 방식에 대한 특징들을 조건 짓는다: “인간의 성은 육체와 영혼의 단일성 안에서 인간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특히 정서, 사랑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능력, 그리고 좀 더 일반적으로 타인과 친교를 이루는 능력에 관련된다.”<sup>28)</sup>

이런 의미에서, 성은 제거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독신이라는 하느님의 부르심 안에서 활용하고 실현해 가야 할 중요한 자원이다. 이처럼 사제의 인격 전반을 관통하는 본성인 성은 사제의 독신 삶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며, 그런 의미에서 성을 어떻게 실현해 나가느냐의 문제는 독신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

무엇보다 인간의 육체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 모두를 통합적으로 관통하는 성은 “나에게 너를 그 모든 다름과 타자성 안에서 맞아들이도록 해 주는 관계적 에너지이다.”<sup>29)</sup> 성은 특히 남자와 여자 사이처럼 자신과 다른 존재를 향해 닫혀 있지 않고 자신을 개방하도록 한다. 이러한 성의 특성 안에서 인간은 자신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자신의 경계를 넘어 서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에 열려있게 된다. 그래서 성은 인간의 근원적 특성인 관계성 안에서 나를 내어주는 증여적 에너지의 형태로 표현된다.<sup>30)</sup>

하지만 동시에 성은 인간의 불완전성 안에 뿌리내려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즉 관계적 특성 안에서 남을 필요로 하도록 느끼게 만듦으로써 인간의 한계를 마주하게 한다. 이처럼 성은 인간의 불완전성 안에서 늘 이기주의와 이타주의, 자기만족과 자기초월 사이의 긴장 안에 놓여 있다.<sup>31)</sup> 그러므로 성은 정결한 사랑으로 교육되고 통합되고 고양되어 성숙함에 도달할 때만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진정한 인간의 자질로 드러나고 실현된다.<sup>32)</sup> 이처럼 성은 근원적 긴장 안에서 끊임없이 사랑으로 통합되어 성숙해가는 끊임

28) 『가톨릭교회 교리서』, 2332항.

29) 아마테오 첸치니, 「파스카적 성을 위하여」, 국춘심 옮김, 생활성서, 2011, 82쪽.

30) Cf. Giovanni Paolo II, *Insegnamenti di Giovanni Paolo II*, III-1, 4.

31) 참조: 아마테오 첸치니, 「파스카적 성을 위하여」, 73쪽.

32) 참조: 교육성서, 「사제 독신생활을 준비하는 지침」, 1974, 6항.



없는 여정으로 부름받는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성이라는 자연적 질서 안에 이미 자기증여적 특성이 새겨져 있으며, 인격의 자연적인 발달과 성숙의 과정 안에서 자신을 넘어 타자를 향해 자신을 내어주는 초월의 과정이 이루어진다. 이는 죽음으로까지 자신을 내어준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그리스도교적 차원에서의 사랑과 비교하여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자기증여를 향한 에너지와 경향이 인간 체험의 한 부분으로서 성이라는 인간 본성 안에 이미 새겨져 있음을 보여 준다.<sup>33)</sup>

이런 의미에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의 부르심인 독신 성소의 삶 안에서 인간의 성적 에너지는 이 성소를 실현해 가기 위한 소중한 자원이 된다. 즉 사제 고유의 성적 본성이 독신 삶 안에서 온전히 실현되는 가운데, 사랑을 향한 성소의 삶 역시 충만히 실현된다. 이런 맥락에서 사제는 “어떻게 ‘나의 내어줌’이 독신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표현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끊임 없이 마주해야 한다. 사제가 자기증여의 맥락 안에서 자신의 카리스마와 영성으로 독신을 표현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본인의 성을 충만히 실현하는 방식으로 독신 성소의 삶을 실현해 내지 못하면, 사제는 외적으로 포기과 희생을 살면서도 그 독신의 내용은 왜곡되어 가게 된다.<sup>34)</sup>

## 2.2. 독신 삶에서 겪는 심리적 조건들: 어려움과 필요로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삶과 높은 가치를 위해서 가정생활을 포기하고 독신을 살아가는 삶 모두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고유한 삶의 형태이다. 각 삶은 각자의 형태에 따른 나름의 보화와 희생을 함께 지낸다. 이와 같이 독신자는 결혼생활을 하는 사람과 다른 고유한 심리적 조건을 가진다.

독신자는 가정생활을 포함하여 성적 행위, 즉 생식 능력의 사용

33) Cf. A. Cencini, *Per amore, con amore, nell'amore: libertà e maturità affettiva nel celibato consacrato*, Bologna, 2011, p.267.

34) Cf. S. Guarinelli, *Il celibato dei preti perché sceglierlo ancora?*, Milano, 2008, p.109.

을 포기한다. 사실 성행위 안에는 여러 가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들이 참여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 관계를 포기함으로써 단순히 성적 만족의 욕구만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얽혀 있는 다른 여러 가지의 욕구들도 함께 소외될 수 있다.<sup>35)</sup> 욕구는 인격 형성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 중의 하나인 만큼, 주요 욕구들이 삶 안에서 구조적으로 좌절될 때, 인격의 작용이나 성장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아의 인격적 경계를 넘는 기회를 열어주는 공격성의 욕구는 인간 발달 과정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욕구 중의 하나이다. 파트너와의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자연스럽게 이 공격성이 발휘될 수 있는 장소이다. 이곳에서 공격성의 발휘는 사랑의 관계라는 맥락 안에서 더욱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sup>36)</sup> 하지만 독신자의 경우, 성적 관계라는 이러한 공간을 포기함으로써 공격성이 표현될 공간이 그만큼 축소된다. 뿐만 아니라, 성직자가 공격성이나 화를 표출하는 것이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사회적 인식 안에서, 사제는 일상 안에서 공격성을 통제하려는 경향을 갖는다. 이렇게 사제는 이중으로 공격성을 자연스럽게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공간에 놓여진다. 이 같은 일상의 구조 안에서 공격 욕구가 지속적으로 소외될 때, 이는 사제의 인격이 미성숙함에 머물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sup>37)</sup>

또 한편으로, 사제는 친밀한 관계 안에서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누군가와 가깝다고 느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짐을 느낄 수 있는 장소인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를 포기함으로써, ‘친밀함에 대한 욕구’가 소외될 수 있는 삶의 구조를 갖는다. 이 친밀함과 관련된 욕구 역시 인격 작용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서 지속적으

35) 성은 인격의 ‘소우주’로서 인격 안에 있는 구조들이 성 안에 종합적으로 발견된다. “만약 인격이 인간에 속하는 모든 일련의 특징들을 조직하는 큰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성은 하나의 특징이나 특징들의 단순한 하위 집합이 아니라, 인격의 본래의 ‘소우주’이다”(S. Guarinelli, *Il celibato dei preti perché sceglierlo ancora?*, p.39).

36) Cf. L. Balugan, “Quale maturità per la vita di coppi? Il contributo di Otto Kernberg”, *Tredimensioni* 2(2005), 253~254.

37) Cf. S. Guarinelli, *Il celibato dei preti perché sceglierlo ancora?*, pp.48-49.

로 소외되었을 때, 여러 측면에서 사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성관계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역동 안에서 지배와 복종의 상호 역동이 동시에 발휘되는 장소로서 이 두 가지 욕구의 역동 안에서 힘을 행사하는 공간을 마련한다. 그러나 독신의 조건 안에서 이런 힘을 행사하는 공간이 그만큼 축소될 수 있으며, 비슷한 맥락에서 남자로서 확인받는 체험, 남자로 느끼는 체험 등 자신을 선언하는 체험의 공간 역시 그만큼 축소될 수 있다.<sup>38)</sup>

이처럼 독신의 조건은 여러 중요한 욕구들이 지속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sup>39)</sup> 이는 인격의 작용이나 성숙에 영향을 미쳐 어떤 면에서의 미성숙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건에 대한 현실은 사제의 일상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가기 위해 진지하게 반영되고 다루어져야 할 주제이다.

한편 이런 독신 삶의 조건은 독신자의 인격에 어떤 면에서의 부족함과 미숙함을 가져다줄 수 있지만, 반대로 다른 면에서의 풍요로움의 원천이 될 수 있다.<sup>40)</sup> 무엇보다도 독신 삶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닮아가며 그분의 정결함과 가난함을 선택하는 삶이다: 사제는 독신 삶 안에서 가정을 포함하여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와 이 안에서 누리게 되는 정서적 체험과 보상 등의 많은 것들에 대한 소유를 포기한다. 이렇게 포기의 삶 안에서 사제는 이른바 ‘가난한 이’로서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정체성을 공유한다.<sup>41)</sup> 다시 말해, 물질적 가난함뿐만 아니라, 정서적

38) Cf. S. Guarinelli, *Il celibato dei preti perché sceglierlo ancora?*, pp.52-57; Cf. A. Cencini, *È cambiato qualcosa?: la Chiesa dopo gli scandali sessuali*, Bologna, 2015, p.55.

39) 이는 독신 삶이 제공하는 조건에 대한 이야기이다. 조건이나 환경이 인격의 발달과 성숙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독신자가 결혼생활을 하는 사람보다 필연적으로 미성숙하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삶의 조건이 가능성을 제공하긴 하지만,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가정생활이든 독신 생활이든 그 삶의 조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며 자발적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 안에서 각 삶의 고유한 열매가 맺어진다.

40) 독신 생활이 어떤 면에서의 부족함과 동시에 어떤 면에서의 부유함을 제공하는 것은 결혼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각 삶은 각자 다른 방식의 풍요로움과 가난함을 제공하며, 이 둘은 상호 보완적이다. Cf. J. Uriarte, *Il celibato, appunti antropologici, spirituali e pedagogici*, p.67.

보상에 있어서도 가난함에 머물며, 예수님이 가지셨던 가난한 이의 시선, 하느님을 향한 정결한 시선을 사제 역시 공유하게 된다. 이렇게 사제는 독신 삶 안에서 정결함의 방식, 즉 내 것으로 소유하지 않더라도 그 존재 자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지니도록 초대된다.<sup>42)</sup>

하지만 또 한편으로 사제는 어떤 면에서의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자요 영적인 아버지로서 인격적으로나 영성적으로 성숙한 ‘어른’이기를 요구받는다. 이처럼 독신 삶으로의 선택은 풍요로움과 약함, 성숙함과 미성숙함이라는 두 현실 사이의 역설적 긴장 가운데에 놓여지는 선택이다. 사제는 이 두 현실 사이에서 어느 하나도 제거하지 않으면서도 종합적 식견을 가지고 이 역설 안에 머물 줄 알아야 한다.<sup>43)</sup>

한마디로, 독신 삶의 조건은 어떤 면에서의 미숙함을 낳기도 하지만 다른 면에서의 풍요로움을 제공하면서 사제의 고유한 색깔을 정의하며, 이는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투신의 삶으로 수렴된다. 사제는 이러한 독신의 조건을 이해하고 온전히 받아들여 독신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살아갈 필요가 있다. 결국, 독신을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할 규정으로서 이해하고 부정적인 포기나 희생에만 수동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삶을 향한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이 삶이 주는 풍요로움 안에서 독신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사제 성소가 독신 삶 안에서 더욱 충만한 열매를 맺어나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41) 가난함은 죄 이전의 아담과 하와의 상태인 벌거벗은 상태, 즉 자신의 본래 인격으로 돌아가게 한다. 다시 말해, 인간은 자기의 약함을 인정함으로써 자기 현실인 약함 안에서 내 인간성에 아름다움을 주는 하느님의 신비를 발견하며, 내 안에 있는 원래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인간은 가난함 안에서 새 아담인 그리스도의 질서에 속하게 된다(Cf. S. Guarinelli, *Un canto a tre voci- aspetti psicologici dei consigli evangelici*, Ancora, 2006, p.27).

42) Cf. S. Guarinelli, *Il celibato dei preti perché sceglierlo ancora?*, p.131.

43) Cf. *Ibid.*, p.127.

### 2.3. 독신의 왜곡들

앞서 언급했듯이, 하늘나라를 위한 독신 삶은 주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의 초대이며, 이 초대는 사제 고유의 인간 조건, 특히 자신의 성이 부르심에 통합되고 실현되어 가면서 참된 열매를 맺는다. 하지만 반대로 사제의 성이 미숙함 안에서 올바르게 실현되지 못할 때, 독신 삶 역시 초대받은 본래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왜곡되어 간다.

먼저, 사제의 성이 하느님 신비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린 경우가 있다. 영적인 현실과 통합되도록 질서 지워져 있는 성의 본래 의미가 실현되지 못하고 육체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을 때, 사제의 독신 삶 역시 하느님 나라의 가치를 지향하는 영적인 의미를 취하지 못하고 피상적인 외형에만 머물러 있게 된다. 또는 사제가 성을 폄하하거나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사제는 성을 부정적이고 위협적으로 느끼며, 자신의 독신을 지키기 위해 성을 무시하려 하거나, 차갑게 방어적으로 머물게 된다. 이런 사제는 상대를 포함하여 자신의 내면을 잃어내지 못하는 이른바 정서적 문맹으로 살아가기 쉽다. 이처럼 어떤 원인으로든, 관계를 향한 에너지인 성의 본래 특성을 독신 삶 안에서 실현하지 못하고, 독신을 살아간다는 이름하에 주변 사람에게 닫혀 자신 안으로 굽어 들어가는 태도는 성에 대한 일종의 폭력이며, 이는 사제 삶을 이기주의로 이끈다. 이렇게 외적인 절제의 형태는 견고해 보이지만, 자신 안에 갇혀 사랑할 줄 모르는 독신은 기능적이고 기술적으로만 머물 뿐, 부르심의 열매와 기쁨을 제공하지 못한다.<sup>44)</sup> 물론 반대로 성의 미숙함 안에서 본능적 충동의 압력에 의존적으로 휘둘리는 독신 역시 또 다른 형태의 미숙함 안에서 성소의 기쁨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렇게 왜곡된 독신 안에서 성소의 보화를 발견하지 못할수록, 그만큼 독신으로 인한 포기과 절제의 무게는 더 무겁게 다가오게 된다. 결국, 독신이 긍정적인 정서로 지지받지 못했을 때, 커져가는

44) Cf. A. Cencini, *Verginità e celibato oggi per una sessualità pasquale*, pp.68-72.

정서적 긴장들로 인해 삶은 서서히 균형을 잃어가며, 사제는 이 긴장을 해결하고 균형을 되찾기 위해 보상을 찾아 나서게 된다. 이 보상은 문제의 뿌리를 직면하는 대신 가면으로 그것을 덮으려 하는 일종의 방어기재라고 할 수 있다. 보상을 찾아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독신을 유지하는 데에 효과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런 미성숙한 방식은 진짜 문제를 다루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제의 회심과 성장을 막고, 삶을 더 빈약하게 하여 좌절로 이끈다.<sup>45)</sup>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는 이 보상적 행동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독신 선택으로 인해 소외된 욕구들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구체적으로 공격성의 경우, 사제 삶에서 통제되고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이 욕구의 소외 상태가 일상에서 건강하게 다루어지지 못하고 지속되었을 때, 공격적인 에너지가 내면에서 정리되지 않은 채 지속적인 불만족감을 주다가, 어느 순간 화가 폭발하는 방식으로 분출될 수 있다. 이런 행동은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눈치를 보게 만드는 등 부가적인 이익을 얻게 되면서 점점 더 깊은 패턴으로 고착되어 간다.<sup>46)</sup>

또한 기본적으로 친밀한 파트너와의 밀착된 관계를 배제하는 독신의 조건 안에서 소외되는 자기 선언에 대한 욕구는 사제로 하여금 명령하고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위치나 역할을 찾게 하기도 한다. 이처럼 남에게 힘을 행사하거나 지배하려는 행동은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에게서 숨겨진 채로 자주 발견되는 보상의 형태 중 하나이다.<sup>47)</sup> 즉 사랑의 정서로 충분히 지지받지 못한 독신은 사회적 승진이나 명성을 위한 도구로 독신을 살아가거나 남에게 힘을 행사함으로써 지배하려는 방향으로 보상을 찾게 한다. 이 역동은 점점 발전하여 결국에 성적 학대로까지 이어지게 될 수 있다.<sup>48)</sup> 이 밖에도 사랑과 단절된 채 머물러 있는 독신은 포르노, 게

45) Cf. M. Daneli, *Liberi per chi?: Il celibato volontario nella Chiesa*, Roma, 2005, p.41.

46) Cf. A. Cencini, *È cambiato qualcosa?: la Chiesa dopo gli scandali sessuali*, p.58.

47) Cf. G. Vella, *La comunità, croce e delizia. Le gioie e le difficoltà del vivere insieme*, Milano, 1996, p.106.

48) Cf. A. Cencini, *È cambiato qualcosa?: la Chiesa dopo gli scandali sessuali*, pp.67-72.

임, 도박, 술, 취미나 애정적 관계로의 몰입 등 다양한 형태의 보상 추구로 이어지게 되기도 한다.

이렇게 보상을 찾는 독신 삶은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이 보상적 행동이 반복되면서 습관이 되고, 이는 점점 인격의 태도가 되어 간다. 이렇게 보상으로 균형을 맞춰 살아가는 패턴이 지속될수록, 사제는 점점 하느님에 대한 원의나 내어주는 사랑의 삶과 멀어지게 되고, 천천히 사제 및 독신 성소의 의미와 기쁨을 누리는 법을 잊어 간다. 결국 보상에 머무는 왜곡된 독신의 방식은 서서히 사제 성소 전체의 숨을 막아, 결국 사제직 자체를 떠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한다.<sup>49)</sup>

이처럼 사제의 인간적 조건은 하느님 나라를 위한 독신이라는 부르심에 진실되게 삶으로 응답해 가기 위한 소중한 자원이면서도, 동시에 자유를 제한하고 독신을 미숙함에 머무르게 하는 제약의 조건이 되기도 한다. 사제를 양성함에 있어서 이러한 인간 조건에 대한 고려 없이, 이상적인 이론에 대한 교육만이 강조된다면, 성소적 가치가 사제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못한 채, 이론과 삶이 괴리되어 추상적인 독신, 외적인 형태만 남은 왜곡된 독신으로 전락하게 되기 쉬울 것이다.

### 3. 독신 삶을 위한 양성적 제인들

시작 부분에서 확인했듯이, 그리스도의 독신은 아버지 하느님과 그분 백성을 향한 갈림 없는 정결한 사랑의 표현이다. 사제의 독신 삶은 이처럼 사랑으로 방향 지워졌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 전체를 대변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한' 이 선택은 단지 어느 한 행동의 변화, 즉 결혼을 포기하는 선택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는 삶의 몇 가지 특정한 면에만 국한된 선택이 아닌, 사제의 전 인격과 삶 전체를 아우르는 선택이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사랑을

49) Cf. S. Guarinelli, *Il celibato dei preti perché sceglierlo ancora?*, p.128.

지향하는 독신은 그 사람의 모든 태도, 행동, 말, 몸짓, 관계가 하느님 사랑의 중심성을 표현하며, 그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하느님을 놓기로 선택한 것이다.”<sup>50)</sup>

그러므로 독신자로 살아가는 선택은 근본적인 삶의 방식과 태도의 변화를 내포하며, 이는 인간 조건을 지닌 사제의 전 존재가 성소를 중심으로 통합되어가고 성숙해가는 여정을 내포한다. 이 과정은 지식의 습득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또한 사제 서품을 통해 마술적으로 한 번에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이는 매일의 구체적인 일상 삶에서 다양한 차원의 지속적인 양성의 과정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장에서는 ‘하늘나라를 위한 독신자’가 되어 가는 여정을 위한 양성적 차원의 계획들에 대해 다루어 볼 것이다.

### 3.1. 자기 알기

이전 장에서 독신 성소의 삶에 대한 본래의 지향이 인간적 조건 안에서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다루었다. 이는 성소의 여정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위한 독신을 향한 가치 지향적인 동기와 이와 반대로 성적 충동과 자기중심적인 욕구에 뿌리를 둔 동기가 서로 뒤섞여 근원적 긴장<sup>51)</sup> 상태에 있는 사제의 인간학적 현실을 보여 준다. 이런 모호한 동기 안에서 비일관적인 태도나 행동이 야기된다.<sup>52)</sup>

말하자면, 겉으로는 사제 성소의 가치에 응답한 사목적 관계의

50) S. Cipressa, “Ragioni teologiche e opportunità pastorali”, in Id.(ed.), *Celibato e sacerdozio*, Roma, 2000, p.58.

51) 「사목 현장」, 13항: “모든 인간은 자신 안에서 분열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인간의 모든 삶은 개인 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참으로 선과 악, 빛과 어둠의 극적인 투쟁으로 드러난다.”

52)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그 자체로 중요한 것)와 자기중심적으로 끄는 욕구(나한테 중요한 것)가 내면에서 서로 상충될 때, 겉으로는 가치에 대한 응답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를 만족시키는 욕구에 대한 응답인 경우(Cf. Rulla, *Antropologia della Vocazione Cristiana I*, p.128).



사랑으로만 보이지만, 그 내면의 동기에는 개인적인 성적 충동이나 자기증심적인 욕구에 응답한 유혹적인 동기도 함께 뒤섞여서 이중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비일관성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동기의 모호함과 비일관적인 태도 등이 양성 과정으로서 진지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일상 안에서 반복될 때, 이는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점차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삶의 스타일이 되어 가고, 사제는 점점 자신의 성소와 정체성과 멀어져 사제 성소의 삶이 주는 기쁨과는 반대의 보상을 추구하는 미성숙함 안에서 병들어 가게 된다.<sup>53)</sup>

이런 의미에서, 독신 삶을 포함한 진정한 사제 성소의 삶으로 양성함에 있어서,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이나 행동의 교정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근본적인 양성의 출발 지점은 바로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내면의 모호함을 직면하고 줄여나가는 과정, 자신의 약함을 더욱 의식적으로 수용해 가는 과정, 그렇게 삶의 일관성을 되찾아 가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만이 그리스도의 인격에 동화되어 가는 진정한 양성의 여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sup>54)</sup>

그러므로 사제는 자신의 행동과 동기의 모호함을 진지하게 대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자신의 내면의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 안에서 사제는 점차 자기 약함을 더욱 의식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독신 삶에서 소외되는 욕구나 자기 역사 안에서 형성된 약함들로 인한 영향 등 자신의 내면을 대면하고 밝혀가는 가운데, 사제는 점점 자신에 대한 진리를 받아들여지게 되고, 더욱 겸손되어 하느님의 은총에 개방하고 의지하게 된다. 이렇게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 안에서 사제는 더욱 자유롭게 또한 겸손되어 성소의 삶에 응답해 가기 위한 매일의 치열한 투쟁을 기꺼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sup>55)</sup>

룰라(Rulla) 신부는, 사제들이 자신 안의 모호함을 밝히고 자신을 알아가는 여정을 돕기 위해 몇 가지 실천들을 제안한다. 우선 양성

53) Cf. A. M. Ravaglioli, *Psicologia: Studio interdisciplinare della personalità*, EDB, 2019, p.115.

54) Cf. L. M. Rulla, *Antropologia della Vocazione Cristiana Vol.I, Basi interdisciplinari*, p.354.

55) Cf. M. Tondo, *Di fronte al progetto di vita*, EDB, 2005, p.86.

성찰이나 말씀 묵상의 일상적인 실천은 하느님의 은총 안에 숨겨져 있는 미성숙함을 밝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이와 함께 자신에 대한 남들의 피드백에 주의를 기울이고 흘러가는 느낌이나 감정들을 잘 관찰하여 분석해 보려는 노력 등의 일상적인 실천들 역시 자신을 알아가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준비된 양성자에 의한 동반이 함께 이루어질 때, 이 모든 실천들이 통합적으로 시너지를 이루어 양성적 효과를 낼 수 있다.<sup>56)</sup>

### 3.2. 감수성의 양성

사제를 양성함에 있어서 외적인 행동의 교정을 넘어서 온전한 회심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서적인 측면의 양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서적인 힘으로 지지받지 못하는 독신은 실천할 힘이 약하여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좌절로 이어지기 쉽다. 그렇기에 독신 삶의 가치에 대해 알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독신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정서적 차원의 양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감수성의 양성에 대한 주제는 사제를 양성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주제 중 하나이다.

감수성은 특정 대상에 대하여 기울어짐을 갖게 하는 내적 성향에 해당하며, 어떤 대상이 매력적인지, 매력적이지 않은지, 좋은지 나쁜지 등 다양한 수준에서 판단하게 하여 관심이나 끌림, 행동을 특정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이끄는 정서적 에너지이다.<sup>57)</sup>

행동으로 이끄는 정서적 에너지인 감수성은 일상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수많은 결정들에 의해서 서서히 형성되어 간다. 즉 사람은 자기 삶 안에서 크고 작은 수많은 선택과 결정들을 하며, 그 선택들에 의해서 경험이 결정된다. 이렇게 이루어진 선택에 의한 경험은 내면에 정서적인 흔적을 남기며, 이는 다음 결정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일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정들은 반복되고 습

56) Cf. L. M. Rulla, *Antropologia della Vocazione Cristiana I*, pp.341, 361.

57) Cf. A. Cencini, *Chiamati alla bellezza*, p.57.

관화되면서 점점 자동적인 경향을 띠게 된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습관화된 결정들은 오랜 시간 반복되면서 점점 내면의 감수성을 형성해 간다.<sup>58)</sup>

이처럼 일상에서 행하는 선택들이 자신의 감수성 형성에 영향을 주는 만큼, 사제는 자신의 감수성 형성에 책임감을 가지고 일상의 선택에 임해야 한다. 만일 사제가 독신자로서의 정체성과 부합하지 않는 선택들로 감수성을 형성해 간다면, 독신의 의미를 이론적으로 잘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그의 마음속 열정과 기호가 다른 곳을 향해 기울어져, 일관적으로 그 삶을 실천해 내기가 그만큼 어려워지게 된다. 이렇게 감수성 양성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독신 삶은 머릿속 관념으로만 남아 있고 실제 삶 안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머물러 있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의미에서, 감수성을 그리스도의 모델 위에 자신의 성소에 부합하도록 형성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즉 일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택들이 자신의 성소와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성찰하고 질서 지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사제는 자기 자신이 양성의 책임자가 되어서 자신의 감각의 사용이나 선택의 습관을 주시하면서, 자유라는 명목하에 모든 것을 무분별하게 경험하도록 놔둘 것이 아니라, 독신자로서 정결함에 부합하는 경험을 허락하는 선택을 능동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느끼고 원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있어서 예수님의 방식과 닮아가도록 자신의 감수성을 양성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온전히 통합된 독신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sup>59)</sup>

### 3.3. 일상생활 관리하기: 영성 생활과 절제 생활

앞서 다루었던이, 자신을 알아가는 여정 안에서 내면의 모호함을 줄여가고 본인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가운데, 사제는 더 자유

58) Cf. A. Cencini, *Chiamati alla bellezza*, p.58.

59) Cf. A. Cencini, *Dall'aurora io ti cerco*, Milano, 2018, p.37.

롭고 진지하게 일상 삶을 대면하고 투신할 준비를 갖추어 간다. 이렇게 충실하고 진지하게 투신하는 매일의 일상이야말로 사제의 인격적, 성소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그러므로 사제 성소의 계획에 따라 일상 삶을 구체적으로 조직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성숙으로의 여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성소의 여정은 하느님의 은총과 인간의 응답의 만남 안에서 열매를 맺어간다. 이런 의미에서, 삶의 두 가지 차원, 다시 말해 기도 생활을 포함하여 하느님 은총과의 만남과 관련한 삶의 내적인 차원과, 일상의 구조를 능동적으로 조직하고 절제하고 정돈해 가는 것과 관련한 삶의 외적인 차원이 서로 보완되고 통합된 일상은 사제 성소의 삶이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토양을 구성한다. 그러므로 사제는 이 두 가지 차원 모두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일상을 능동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영성 생활은 사제 삶에 있어서 첫째 자리에 놓여진다. 하느님과의 관계를 지향하는 영성 삶은 모든 신자들은 물론이고 특히 사제의 삶에서 특별히 강조되는데, 이는 사제의 존재와 직무에 힘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사제 정체성을 유지 및 강화시켜 준다. 특히 독신 선택은 그리스도와와의 더 깊은 사랑에 대한 원의 위에 기초해 있는 만큼, 그리스도 인격과의 긴밀한 관계는 사제가 그분의 삶의 스타일에 동화되는데 핵심 동력이 된다. 또한 일상 안에서의 지속적인 기도 생활은 사제 내면의 동기를 밝혀 모호함을 줄이는데에 도움을 주어 사제가 일상생활 안에서 더 자유롭게 은총에 순종하며 성소적 가치를 지향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사제의 일상적 기도는 인간적·영적 성장을 이끌고 은총의 도움으로 진정한 성소의 여정을 위한 필수적인 힘을 제공한다. 이런 이유로 여러 교회 문헌들은 사제들이 일상 안에서 지속적인 기도 생활에 정진할 것을 강조한다.<sup>60)</sup>

그런 의미에서, 독신 삶 안에서 필연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외

60) 참조: 성직자성, 「사제 직무와 생활 지침」, 2013, 50항; 「사제 생활과 교역에 관한 교령」, 5항, 18항; 「현대의 사제 양성」, 26항, 40항, 48항, 50항, 80항.

로움은 사제들이 견뎌야 할 커다란 도전이기도 하지만, 이는 침묵 안에서 자기 자신과 또한 예수님과 머물며 하느님의 자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즉 사제의 외로움이 기도 안에서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의 장소로써 체험될 수 있을 때만이, 독신 삶이 생기를 가지고 사랑을 향해 방향 지어져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다.<sup>61)</sup>

이런 기도 생활이라는 영성적인 지지와 더불어서, 일상을 외적으로 규정하고 정돈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규칙이나 절제의 차원 역시 사제의 일상 삶을 조직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또 다른 한 축을 구성한다. 금욕적 실천들이 강조되었던 과거에 비해 오늘날에는 절제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조명받지 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외적인 삶을 규정해주는 규칙은 내면의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면에서 그 중요성은 여러 문헌에서도 강조된다.<sup>62)</sup> 즉 구체적으로 자기 통제나 절제로 이끌어주는 삶의 외적인 규칙은 독신 삶 안에서 오는 정서적 긴장이나 유혹 등의 도전으로부터 사제를 지켜주며, 성숙한 사제의 감수성을 형성해 가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특별히 삶을 외적으로 규정하는 규칙이나 절제는 무엇보다 사랑으로 정의되어야 그 의미가 있다.<sup>63)</sup> 사랑으로 동기화되지 않고 방어적인 동기나 왜곡된 동기로부터 나온 절제나 극기는 하느님 나라를 위한 독신의 의미를 실현하지 못한다. 사제 독신은 근본적으로 관계적인 그리스도의 스타일을 받아들이는 삶인 만큼 정결한 사랑의 투신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sup>64)</sup>

61) Cf. G. Daucoort, *Preli spezzati*, EDB, 2021, p.42.

62) 참조: 「사제 생활과 교역에 관한 교령」, 16항; 「사제 독신 생활」, 78항; 「사제 독신 생활을 준비하는 지침」, 53항.

63) “극기는 왕권의 행사이며 사랑의 통치를 실천하는 데 필요합니다. 사랑과 극기는 서로 보완적입니다. 자기희생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사랑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며, 사랑은 극기를 촉진합니다”(「사제 독신 생활을 준비하는 지침」, 53항).

64) 극기는 그 자체로 개인적인 차원의 행위인 반면, 정결은 근본적으로 관계적 차원과 관련된다. 즉, 독신에서 극기는 특히 성 기능 사용을 포기하고 절제하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반면 정결은 다른 이와 관계

이와 함께, 사제 생활의 일상을 건강하게 조직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주요 욕구들이 지속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일상 안에서 적절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삶을 구성하고 조정해 가는 것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앞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친밀함에 대한 욕구나 공격성, 지배욕 등 주요 욕구들이 삶 안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되었을 때, 사제로 하여금 심리적 긴장 안에서 다양한 미성숙함에 머물게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사제는 사목적 맥락 안에서나 일상 관계 안에서, 또는 스포츠나 놀이 등의 다양한 공간을 통해서 주요 욕구들이 적절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삶을 능동적으로 계획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잘 정리되고 균형 잡힌 일상은 사제로 하여금 정서적인 안정감 안에 머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며, 더 나아가 성소적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의 역할을 한다.

이처럼 일상 삶을 자기 성소에 부합하도록 정돈하고 외적인 질서를 잡아 나가는 자기 절제의 측면과 주님과과의 관계성 안에서의 영성 생활 모두는 건강하게 독신 삶을 이어 나가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서로 보완되고 통합되어야 하는 중요한 양 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제는 독신을 하느님 나라를 위한 성소로 지속하기 위해 자신의 매일의 일상 삶을 하느님께 받은 부르심의 계획에 따라 균형 있게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이끌어 가야 한다.

### 3.4. 일상의 관계 관리하기

그리스도의 모델에 따른 사랑을 향한 부르심인 독신은 사제의 상호 관계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독신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으로 끄는 욕구와 함께 모호함 안에서 왜곡될 위험에 항상 열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제는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스타일에 따라 남을 사랑하는 방식을 배울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관계함에 있어서 독신자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다. 이는 정결

---

를 전제한다. 다른 사람을 소유하지 않고 온전히 그 사람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결한 태도이다(Cf. S. Guarinelli, *Il celibateo dei preti preché sceglierlo ancora?*, p.135).

로 특징지어진다.

정결은 기본적으로 절제라는 질서를 포함한다. 하지만 정결은 자기 안에 갇혀서 욕구의 억압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랑을 지향한다. 이는 말하자면, 대상을 보는 현실적인 관점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신과 남을 집착이나 욕정의 방식으로 보지 않고 현실적인 관점으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 안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내 앞에 있는 상대를 내 욕구 충족을 위해 이용해야 할 대상이 아닌, 하느님의 자녀로서 각자 자기 역사와 성소, 책임과 소명을 가진 존재로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다. 정결에서 온 현실적인 관점은 사랑을 왜곡하지 않고, 모호하게 하지 않으면서 사제로 하여금 모든 관계 안에서 자기를 내어줄을 실현하도록 허락한다.<sup>65)</sup> 이 정결함은 사제의 모든 관계를 특징짓는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관계하고 사랑하는 방식인 정결은 사제가 모든 관계에 있어서 배우고 적용해야 하는 일종의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사제의 관계는 무엇보다도 사목적 맥락 안에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착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모범에서 영감을 받은 목자적 사랑으로 특징지어진다. 목자적 사랑은 사제의 생각하고 행동하고 관계하는 방식을 규정한다.<sup>66)</sup> 즉 이는 독점적이고 특권적인 관계를 포기하고 주님과 이웃을 삶의 중심에 놓는 관계이며, 자기 자신보다 내어주는 사랑에 더 초점을 맞추는 선택으로써 성숙으로 이끄는 관계이다. 이렇게 사제는 목자적 사랑으로 특징지어진 내어주는 관계 안에서 자신의 독신과 사제직을 실현한다.

사제의 관계에 있어서 사목적 관계뿐 아니라, 친밀한 우정의 관계 역시 여러 면에서 사제에게 긍정적인 힘을 제공해 준다는 면에서 중요한 한 부분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사목적 관계 안에서도 경우에 따라서 더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여 정서적 친밀함, 자기선언과 받아들여짐 등 정서적 욕구에 응답을 제공하는 장소가 되기도

65) Cf. T. Radcliff, *Amare nella libertà*, Qiqajon, 2007, pp.22-34.

66) 참조: 「현대의 사제 양성」, 23항.

한다. 물론 이 관계가 모호함 안에서 무질서해지지 않도록 질서 안에 머물러야 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 안에서 사제와 신자는 복음적 사랑의 상호 소통과 신뢰 안에서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서로에게 지지와 치유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sup>67)</sup>

구체적으로 동료 사제들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평신도 여성이나 가정생활을 하는 이들과의 관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우정의 관계는 사제의 심리적, 영성적, 성소적 건강과 성숙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정서적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힘을 제공하는 측면은 사제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독신 조건 안에서 사제가 맞닥뜨리게 되는 외로움과 성욕 안에는 단지 육체적이고 생식기적 차원의 욕구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지지받고 받아들여짐에 대한 친밀함의 욕구가 크게 자리하고 있다. 사제의 친밀한 우정의 관계는 이해받고 지지받고 사랑받음의 체험을 통해 친밀함의 욕구를 포함한 여러 정서적 차원의 욕구들이 실현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이런 면에서 사제가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더라도 건강한 우정의 관계들 안에서 긍정적인 정서적인 힘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관계의 채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우정 안에서 자기 생각이나 감정, 느낌을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사제는 불안이나 긴장, 공허함 등의 삶의 도전 앞에서 더 수월하게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는 등 내적인 안정성을 갖게 된다. 결국 정결함 안에서 이처럼 다양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은 사제에게 있어서 독신 삶을 더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끌여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반대로 사제가 친밀한 관계의 빈약함 안에서 지속적으로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할 때, 사제는 점점 로맨틱한 관계나 성적인 관계로 향하게 하는 욕구의 압박을 더 강하게 받게 되며, 그 독신은 더욱 쉽게 왜곡될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sup>68)</sup>

지금까지 독신을 성소의 차원에서 성숙하고 건강하게 실현해 나

67) Cf. G. S. Manuel, *Living celibacy: Healthy Pathways for Priest*, New York, 2021, p.57.

68) Cf. L. Sperry, *Sexo, Sacerdocio e Iglesia*, Santander, 2012, p.93.



가기 위한 다양한 측면의 양성적 제안들을 제시해 보았다. 사제가 독신을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삶의 형태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향해 전인적으로 동화되어 가는 변화의 과정을 포함한다. 이러한 전인적인 변화는 어느 한 가지 요소의 변화가 아닌, 인성적, 지성적, 영성적, 사목적인 다양한 차원의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양성적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도달할 수 있다. 또한 양성의 과정 안에서 양성 기관인 신학교와 양성자의 동반을 통한 도움<sup>69)</sup>은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양성의 제일 책임자로서 사제 본인<sup>70)</sup>이 일상 안에서 자신의 인격, 삶의 체험과 구조 그리고 관계 등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끌어가려는 노력들이 모두 함께 어우러져야 만이 사제는 성숙을 향한 끊임없는 성소의 여정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결론

사제는 성품성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며, 특별한 방식으로 그분의 인격과 삶의 스타일을 닮아가도록 초대받는다. 사제의 독신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름의 일환으로써 그분의 정결한 사랑의 투신을 더욱 특별히 닮아 살아가도록 초대한다. 이렇게 사제는 또 다른 그리스도로서 하느님 나라를 위해 독신 안에서 자신을 더욱 온전히 내어주고 투신하도록 부름을 받는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독신을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해 가는 여정 안에서 사제는 성소의 삶이 주는 보화를 발견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간다.

이렇게 독신이라는 부르심에 응답해 가는 여정은 단순히 결혼을 포기하고 혼자 살아가는 삶의 외적인 형태를 넘어서 사제 인격의 전인적인 변화를 포함한 삶의 방식을 새롭게 정의해 가는 모든 여

69) 참조: 「사제 성소의 선물」, 44-53항.

70) 참조: 「사제 성소의 선물」, 53항; 56항.

정을 포함한다. 형태를 넘어 내면을, 부분을 넘어 전인적인 변화를 포함하는 이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단기간에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독신자로서의 사제가 되어가는 여정은 사제의 심연까지 다루어 가는 여정이며,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양성적 노력이 요구된다.

양성의 여정에 있어서, 부르심이 초대하는 이상적인 삶의 내용에 대해 잘 이해함으로써 이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사제가 온 존재로 성소에 응답해 갈 수 있으려면 사제의 인간적 조건에 대한 상황과 더불어 개인의 내면 상황에 대한 이해 역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사제는 자신의 인격과 인간 조건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을 포함한 사제의 인간 조건들과 고유한 인격은 사제가 독신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가기 위한 소중한 자원이 되면서도, 동시에 사제의 조건들이 충분한 성숙함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이는 독신을 왜곡하고 미성숙에 머물게 하는 제약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성소가 사제의 인격과 삶에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기 위해서 인간 조건들이 성숙함 안에서 부르심의 삶에 통합되어가는 양성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결국, 양성적 노력에는 이와 같이 사제가 올바른 지향으로 독신 성소를 향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와 동시에, 이 부르심에 자유롭게 응답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목표<sup>71)</sup>가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소가 사제의 삶에 온전히 내면화되지 못하고 이론으로만 남아, 형식적으로 독신 삶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삶의 내용은 하느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투신하는 독신이 아니라, 여러 보상들에 머무르거나 자신 안에 머물러 있는 등 왜곡된 독신으로 머무르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성소의 여정에서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 과정 안에서 사제는 성소의 삶에서 비일관되게 하는 자신 안에 있는 모호함을 밝혀, 더욱 자유

71) 참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 2항.

롭고 겸손되이 하느님의 은총에 개방되어 삶의 여정에 투신하도록 준비되어 간다. 이를 바탕으로 사제는 영성 생활과 절제 생활의 균형 안에서 일상을 조직하고 조정해 가면서 더 자유롭고 성실하게 성소를 실현해 간다. 이렇게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성실하게 투신해 가는 가운데 사제는 사제 독신 성소가 주는 선물과 보화를 발견해 가고 성화되어 가는 여정을 간다. 이 일상 안에서 허락되는 경험들은 또 다른 그리스도로서의 성숙한 감수성을 형성해 가게 하며, 이렇게 사제는 일상 안에서 점점 더 그리스도의 마음에 동화되어 간다. 이처럼 사제 및 독신 성소에 응답해 가는 여정은 그리스도께 동화되어 가는 지속적인 성장과 양성의 여정이다. 이렇게 사제는 매일의 일상 안에서 또 다른 그리스도로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실현해 가며 성소가 주는 충만함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간다.

독신이라는 외형은 같아 보여도 규정의 차원에서 절제에만 머물러 있는 독신과 '하느님 나라를 위한' 사랑의 투신을 지향하는 독신은 그 내용과 결과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사제가 독신을 그리스도의 정결함으로 살아내기 위한 성소로 받아들이고, 이를 위한 매일의 여정을 충실히 살아낼 때, 독신 삶은 하느님 나라를 위한 사랑이라는 열매의 풍요로움에 머물게 하는 하느님의 선물이 될 것이다.

## [참고 문헌]

### 1. 교회 및 교황 문헌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 1965).  
\_\_\_\_\_,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 「온 교회의 열망」(*Optatam Totius*, 1965).  
\_\_\_\_\_, 사제의 생활과 교역에 관한 교령 「사제품」(*Presbyterorum Ordinis*, 1965).  
제2차 라테란 공의회, in *Decrees do the Ecumenical Councils: Volume I*, Sheed & Ward and Georgetown University Press, 1990, pp.197~199.  
바로로 6세, 회칙 「사제 독신 생활」(*Sacerdotalis Caelibatus*, 1967).  
요한 바로로 2세, 권고 「현대의 사제 양성」(*Pastores Dabo Vobis*, 1992).  
\_\_\_\_\_, *Insegnamenti di Giovanni Paolo II*, III-1, 1980.  
교육성성, 「사제 독신 생활을 준비하는 지침」(*Orientamenti educativi per la formazione al celibato sacerdotale*, 1974).  
신앙 교리성, 「성 윤리상 특정 문제에 관한 선언」(*Persona Humana*, 1975).  
성직자성, 「사제 직무와 생활 지침」(*Direttorio per il ministero e la vita dei presbiteri*, 2013).  
\_\_\_\_\_, 「사제 성소의 선물」(*Ratio Fundamentalis Institutionis Sacerdotalis*, 2016).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가톨릭교회 교리서(개정판)』, 2008.

### 2. 단행본

- Cencini, A., *Verginità e celibato oggi per una sessualità pasquale*, EDB, 2008.  
\_\_\_\_\_, *Per amore, con amore, nell'amore: libertà e maturità affettiva nel celibato consacrato*, Bologna, 2011.  
\_\_\_\_\_, *È cambiato qualcosa?: la Chiesa dopo gli scandali sessuali*, Bologna, 2015.  
\_\_\_\_\_, *Chiamati alla bellezza*, Milano, 2016.  
\_\_\_\_\_, *Dall'aurora io ti cerco*, Milano, 2018.  
Cipressa, S., "Ragioni teologiche e opportunità pastorali", in Id.(ed.), *Celibato e sacerdozio*, Roma, 2000, pp.49~83.  
Cochini, C., *Origini aposoliche del celibato sacerdotale*, Roma, 2011.

- Daucuort, G., *Preti spezzati*, EDB, 2021.
- Daneli, M., *Liberi per chi?: Il celibato volontario nella Chiesa*, Roma, 2005.
- Guarinelli, S., *Il celibato dei preti perché sceglierlo ancora?*, Milano, 2008.
- \_\_\_\_\_, *Un canto a tre voci- aspetti psicologici dei consigli evangelici*, Ancora, 2006.
- Manuel, G. S., *Living celibacy: Healthy Pathways for Priest*, New York, 2021.
- Ravaglioli, A. M., *Psicologia: Studio interdisciplinare della personalità*, EDB, 2019.
- Radcliff, T., *Amare nella libertà*, Qiqajon, 2007.
- Rulla, L. M., *Antropologia della Vocazione Cristiana Vol.I, Basi interdisciplinari*, EDB, 1997.
- Sebastian, B., *Pienamente in Cristo*, San Paolo, 2015.
- Sepe, C., “Attualità del celibato sacerdotale”, in C. Sepe / M. Pacenza(edd), *Solo per amore. Riflessioni sul celibato sacerdotale*, Cinsello Balsamo, 1993, pp.60~63.
- Sperry, L., *Sexo, Sacerdocio e Iglesia*, Santander, 2012.
- Tondo, M., *Di fronte al progetto di vita*, EDB, 2005.
- Uriarte, J. M., *Il celibato, appunti antropologici, spirituali e pedagogici*, Bologna, 2016.
- Vella, G., *La comunità, croce d delizia. Le gioie e le difficoltà del vivere insieme*, Milano, 1996.
- Wojtal, T., *Come Cristo Sposo della Chiesa, Aspetti dogmatici del celibato sacerdotale*, Siena, 2015.

### 3. 정기 간행물

- Balugan, L., “Quale maturità per la vita di coppi? Il contributo di Otto Kernberg”, *Tredimensioni* 2(2005), 249~260.
- Fabris, R., “Gli eunuchi per il Regno dei cieli”, *Parola Spirito e Vita* 12(1985), 128~142.
- Galot, J., “Il celibato sacerdotale alla luce del celibato di Cristo”, *La civiltà cattolica* 20(1969), 364~372.
- Marzotto, D., “Il celibato nel Nuovo Testamento”, *La scuola cattolica* 110(1982), 333~370.

## 국문초록

사제들의 독신 삶이 하느님의 부르심이요 선물인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규정적인 외형 안에서 사제를 구속하는 무거운 짐으로 경험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더욱이 사제나 수도자가 아니더라도 개인주의와 편의주의에서 기인한 독신 삶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요즘 사회의 분위기 안에서, 사제 독신이 더욱 본래의 방향을 잃고 왜곡되어 가는 경우를 많이 발견하게 된다.

이 논문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사제들이 독신이라는 부르심의 삶에 온전히 응답해 갈 수 있도록 양성의 여정에 도움을 제공하려는 데에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독신이라는 부르심에 올바른 지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제 독신이 갖는 신학적 의미에 대한 고찰을 첫째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성소의 삶은 사제의 온 인격과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독신을 살아가는 주체인 사제의 인간학적 조건, 즉 성적 조건과 심리적 조건에 대한 고찰 역시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진다. 이렇게 객관적인 진리와 주관적인 진리가 만나 서로 통합된 성소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하는 양성적 목표를 공유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최근에 발표된 사제 양성 지침 「사제 성소의 선물」은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대교회의 사제 양성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변화와 성장이라는 과제를 제시한다. 이러한 양성적 관점에 따라 이 논문은 사제가 독신 삶을 ‘하느님 나라를 위한’ 성소로써 구체적 삶 안에서 실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여러 양성적 제안을 제시한다.

▶ 주제어: 사제, 독신, 성, 성소, 양성.

[특집]

# 세속화와 사제의 정체성: 바오로 6세, 요한 바오로 2세, 베네딕토 16세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목 신학적 가르침을 바탕으로\*

■  
김 명 식

[의정부교구 지축동요한성당 주임신부]

1. 들어가는 말
2. 사제의 정체성
  - 2.1. 바오로 6세: 삼위일체 차원, 사도적 차원, 신비적 차원의 사제 정체성
  - 2.2. 요한 바오로 2세: 사제, 머리이자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사적 대리인
  - 2.3. 베네딕토 16세: 사제직의 신학적·영성적 측면
  - 2.4. 프란치스코: 사제, 그리스도의 자비의 상징인 착한 사마리아인
3. 세속화: 수평적 그리스도교에서부터 영적 세속성까지
  - 3.1. 세속화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
  - 3.2. 네 교황의 가르침에 따른 세속화
4. 세속화된 세상에서 올바른 사제 정체성을 살기 위한 제언:
 

사제의 올바른 삼중 직무

  - 4.1. 가르치는 직무: 올바르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설명하는 직무
  - 4.2. 거룩하게 하는 직무: 그리스도 은총의 살아 있는 도구
  - 4.3. 통치하는 직무: 영원한 생명을 향한 그리스도의 은총과 진리를 통한 인도
5. 나가는 말

## 1. 들어가는 말

성 목요일 오전에 교구의 모든 사제들은 교구장 주교가 집전하는 성유축성미사에 참석한다. 성유축성미사 중에 주교는 사제들이 성사를 베풀 때 사용하게 될 성유를 축성할 뿐만 아니라, 사제들이 사제 서품식 때 교구장 주교와 한 약속<sup>1)</sup>을 갱신한다. 그러나 안타

\* 이 글은 2023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계광학술연구기금’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작성된 논문임.

1) 사제들의 서약 갱신 예식에서 주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사제들에게 한다. “친

깝게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 서약에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는 사제들이 있다. 사목적인 사랑 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를 공무원처럼 처리하는 사제, 사제 생활의 행복을 취미나 자신이 소유한 물건 혹은 사제 직무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을 통해서 얻는 사제,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진리와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기와 경력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제들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으며 사제 삶의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없다.

왜 오늘날 많은 사제들이 서품식과 성유축성미사 때 한 서약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그 어떤 사제도 서품 때 한 약속과는 다른 삶을 꿈꾸며 사제가 되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다. 모든 사제들은 자신의 삶을 하느님과 하느님 백성에게 내어주면서 하느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사제가 사제의 삶에서 직면하는 상황들은 사제들을 유혹하고 그 상황들은 사제의 삶을 변화시킨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세속화된 세계는 사제들에게 많은 유혹을 준다.

2022년 바티칸 성유축성미사에서 교황 프란치스코는 오늘날의 사제들이 반드시 경계해야 하는 세 가지 우상에 대해서 강조하였다. 첫째는 영적 세속성이고, 둘째는 실용주의이며, 셋째는 기능주의이다.<sup>2)</sup>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적한 바와 같이 세 가지 우상은 교회 안의 성직자들이 쉽게 섬길 수 있는 우상들이다. 그래서 이 논

---

애하는 사제 여러분, 우리는 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제직을 사도들과 우리에게 주신 날을 해마다 기념합니다. 이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일찍이 수품 때에 한 서약을 그대들의 주교와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 앞에서 서약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사제 서품을 받은 날 그리스도의 사랑에 인도되어 기쁨으로 받아들인 거룩한 직무에 충실하고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면서 주님을 닮고 주님과 친밀하게 일치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성찬례와 그 밖의 전례를 집전함으로써 하느님의 신비를 전달하며 머리아시요 목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말씀의 직무를 인간적인 이익 때문이 아니라 신자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충실히 수행하기를 원합니까?” 교구장 주교의 이 세 가지 질문에 사제들은 “네, 원합니다”라고 대답하며 서품식 때 교구장 주교와 한 약속을 갱신한다.

2) Cf. Francesco, “Omelia della santa Messa del Crisma”,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homilies/2022/documents/20220414-omelia-crisma.html>(2024.04.09).



문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적한 세 가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과 일치하여 ‘제2의 그리스도’로서 사제직을 수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사제들이 지녀야 할 사제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세 가지 우상 중에 오늘날 가장 영향력이 큰 세속주의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본 논문의 마지막에는 세속화를 극복하고 올바른 사제의 삶을 살기 위한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이 글을 진행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등장한 네 교황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제의 정체성과 세속화 그리고 오늘날 사제들에게 도움이 될 제언들을 할 것이다.

## 2. 사제의 정체성

### 2.1. 바오로 6세: 삼위일체 차원, 사도적 차원, 신비적 차원의 사제 정체성

바오로 6세 교황은 그의 재임 기간에 그 이전의 어떤 교황보다도 더 많이 올바른 사제의 정체성에 대해서 강조하였다. 이것은 그가 사제들에 대한 애정이 많았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전에는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사제직의 위기’<sup>3)</sup>에 대한 염려에서 나온 것이다.

바오로 6세 교황은 사제의 정체성에 관하여 삼위일체 차원, 사도적인 차원, 신비적인 차원에서 설명하였다. 삼위일체의 차원에서 사제는 ‘하느님의 사람’ ‘제2의 그리스도’ ‘성령과 친교를 맺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하느님의 사람’은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사제의 정체성이다. ‘하느님의 사람’인 사제는 하느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다. 하느님의 사람인 사제는 하느님과 하느님 백성의 사이에서

3) Cf. Paolo VI, “L’omaggio filiale del clero romano”, in *Insegnamenti*, vol.I,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64, p.15.

하느님의 대변인이자 백성의 대변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사람인 사제는 하느님 백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sup>4)</sup>

사제는 공생활 중에 하느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하느님의 백성을 가르치고, 하느님의 백성을 영적으로 인도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연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협력자이다.<sup>5)</sup> 그러므로 모든 사제는 ‘제2의 그리스도’이다.

‘제2의 그리스도’인 사제는 인간의 영혼과 친교를 이루는 성령의 전달자이다. 그러므로 사제는 성령과 친교를 맺어야 하는 사람이다. 성령은 성품성사를 통하여 하느님께 봉헌된 사람들의 영혼을 가장 높은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동화시킨다.<sup>6)</sup> 따라서 성품성사를 통해 맺어진 성령과의 관계는 성품성사의 집전으로 끝나지 않는다. 성령께서는 사제를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사제의 마음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린다. 그러므로 사제는 성령의 말씀을 듣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sup>7)</sup>

사목적인 차원에서 사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제직을 받은 것이 아니다. 사제는 다른 이들, 특별히 하느님의 백성을 위해서 사제직을 받은 것이다. 이는 사제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임을 의미하는 것이다.<sup>8)</sup> 타인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사제에게 행위의 규범이 되고 존재의 이유가 된다. 사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속하지 않으며 그의 영적인 삶은 사제 직무의 대상이 되는 공동체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입고 사제는 하느님 백성에게 하

4) Cf. Paolo VI, “Omelia di XVII congresso eucaristico nazionale d’Italia”, in *Insegnamenti*, vol.III,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66, p.337.

5) Cf. Paolo VI, “Discorso ai sacerdoti anziani e novelli della diocesi Brescia”, in *Insegnamenti*, vol.XII,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75, p.635.

6) Cf. Paolo VI, “Omelia di consecrazione di cinque nuovi vescovi”, in *Insegnamenti*, vol.II,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65, p.433.

7) Cf. *Ibid.*, 434.

8) Cf. Paolo VI, “Messaggio a tutti sacerdoti della Chiesa cattolica”, in *Insegnamenti*, vol.VI,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69, p.314.

느님 말씀의 해석자이자 하느님 신비의 전달자 역할을 한다.<sup>9)</sup>

신비적·금욕적 차원에서 사제의 정체성은 사제의 거룩한 차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왜냐하면 사제가 하느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봉사자이며, 성령의 전달자라면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며 하느님과 대화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sup>10)</sup> 사제는 하느님에 대한 전문가로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영광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sup>11)</sup> 또한 사제는 자신에게 맡겨진 성체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크신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다.

## 2.2. 요한 바오로 2세: 사제, 머리아자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사적 대리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세상에는 세속화된 방식의 사제 직무가 아니라 복음과 교회 전통에 부합하는 사제 직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sup>12)</sup> 왜냐하면 사제직은 하느님께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사제직의 세속화는 하느님의 세속화를 야기한다. 그러므로 사제 정체성은 수직적 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한다.<sup>13)</sup>

사제 정체성을 수직적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사제가 신자들의 인간적 관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제는 공동체를 하나로 모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제는 신자들의 모든 문제에 가까이 있어야 한다. 공동체를 모은다는 것은 자신을 중심으로 신자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으는 것이며, 자신을 위해서가

9) Cf. Paolo VI, “Udienza generale”, in *Insegnamenti*, vol.VIII,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71, p.597.

10) Cf. M. Caprioli, “Il sacerdozio nel magistero di Paolo VI”, *Ephemerides Carmeliticae* 30/II (1979) 345-359.

11) Cf. Paolo VI, “Discorso agli aspiranti al sacerdozio”, in *Insegnamenti*, vol.IX,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72, p.515.

12) Cf. Giovanni Paolo II, “Lettera ai sacerdoti”, in *Insegnamenti*, vol.XIV/1,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93, p.495.

13) Cf. Giovanni Paolo II, “Lettera ai sacerdoti”, in *Insegnamenti*, vol.IX/1,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86, p.752.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모으는 것이다.<sup>14)</sup>

게다가 사제 정체성은 사제의 기능적인 측면만으로 정의되지 않고, 인격과 삶 그리고 봉사의 통합을 통해서 정의된다. 사제들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표징을 새긴 성품성사의 토대 위에 세워진 사제직은 그 삶을 통해서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표징과 증언이 되어야 한다. 신자들은 사제들에게서 그러한 표징을 보기를 원하며 그들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다.<sup>15)</sup>

요한 바오로 2세는 교회를 그리스도 사제직의 일치에 비추어 인류를 위한 구원의 성사로 여겼다. 그리스도께서 예언자, 사제, 왕이셨던 것처럼 교회도 이 세 가지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그분의 일을 대신한다.<sup>16)</sup> 이러한 이유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사도 권고 「현대의 사제 양성」에서 성사 차원에서 사제의 세 가지 기능적 정체성(사목적 통치의 직무, 가르치는 직무, 거룩하게 하는 직무)에 대해서 언급한다.<sup>17)</sup>

사제들의 사명은 하느님 백성의 최고 목표인 영원한 생명을 달성하기 위해 사목적으로 하느님 백성을 다스리고 조직하는 것이다. 사제들은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직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사목적 성격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sup>18)</sup> 사목적 성격의 목적은 신자들이 지니고 있는 인간성의 기초, 인간 존엄의 가장 깊은 뿌리로 신자들을 인도하면서, 하느님 안에서의 충만한 삶을 향하여 그들을 동반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과 교회에 모든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임무를 맡기셨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직무는 근본적으로 그리

14) Cf. Giovanni Paolo II, “Lettera ai sacerdoti”, in *Insegnamenti*, vol.XII/1,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91, pp.547-548.

15) Cf. Giovanni Paolo II, “Lettera a tutti i sacerdoti”, in *Insegnamenti*, vol.II/1,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79, p.870.

16) Cf. A. Dulles, *Modelli di Chiesa*, Padova: Messaggero, 2005, p.279.

17) Cf. Giovanni Paolo II, “Pastores dabo vobis”, in *Enchiridion Vaticanum*, vol.13, Bologna: EDB, 1995, p.1229.

18) Cf. Giovanni Paolo II, “Lettera a tutti i sacerdoti”, in *Insegnamenti*, vol.II/1,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79, p.869.

스도의 독특한 사명에 기원을 두고 있다.<sup>19)</sup> 요한 바오로 2세에 따르면 사제는 자신에게 맡겨진 말씀의 주인이나 소유자가 아니라, 하느님 백성을 향한 종이다.<sup>20)</sup> 하느님 말씀 선포의 내용은 신앙의 형식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간의 현세적 차원에서도 진리와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sup>21)</sup> 따라서 효과적인 말씀의 선포자가 되고 가르치는 직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제들은 교회가 지시하는 선포의 내용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삶에서 실천해야 한다.<sup>22)</sup>

교회는 일곱 성사의 거룩한 전례를 통해 성화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성사를 집전하는 사제는 성화 직무를 가지고 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사제들에게 일곱 가지 성사들 중에서 특별히 성체 성사와 고해성사에 큰 관심을 기울이라고 권고하였다.<sup>23)</sup>

### 2.3. 베네딕토 16세: 사제직의 신학적·영성적 측면

베네딕토 16세 교황에 따르면 사제의 정체성은 신학적 차원과 영성적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신학적 차원에 따르면 사제는 ‘제2의 그리스도’이다. 왜냐하면 사제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직무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한 복음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요한 17,18).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냈고 아들은 아버지께 복종하였다. 왜냐하면 아들은 아버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참조: 요한 15,5). 그러므로 사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동해야 하며,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

19) Cf. Concilio Vaticano II, “Lumen Gentium”, in *Enchiridion Vaticanum*, vol.1, Bologna: EDB, 192013, p.342.

20) Cf. Giovanni Paolo II, “Pastores dabo vobis”, in *Enchiridion Vaticanum*, vol.13, Bologna: EDB, 1995, p.1281.

21) Cf. Giovanni Paolo II, “Lettera a tutti i sacerdoti”, in *Insegnamenti*, vol.II/1,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1979, p.871.

22) Cf. Giovanni Paolo II, “Pastores dabo vobis”, in *Enchiridion Vaticanum*, vol.13, Bologna: EDB, 1995, p.1281.

23) Cf. *Ibid.*, p.1175.

다. 사제의 삶은 그리스도와 동일시되어야 한다.<sup>24)</sup> 이런 의미에서 아무도 자기 스스로 사제가 될 수 없다. 오직 하느님에게서 비롯되는 성사를 통하여 사제는 사제가 될 수 있다.<sup>25)</sup>

사제가 제2의 그리스도가 되려면 사제는 친밀하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특별히 사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야 한다.<sup>26)</sup> 사제는 직접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친교를 나누면서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직무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를 알고 싶어 한다. 사제는 하느님을 내적으로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하느님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한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사제들에게서 이것을 바라고 있다. 만약 사제가 하느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사제는 조금씩 열정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sup>27)</sup>

신학적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사제의 정체성은 사제는 하느님 말씀과 성사의 봉사자이며 신자들의 영적인 삶을 돌보는 사람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강론을 통하여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사제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되었다.<sup>28)</sup> 교회를 하느님 말씀의 집으로 생각하였을 때, 사제는 전례에서 강론을 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사제의 말씀 선포는 사제 자신의 말이 아니다. 말씀 선포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일치해야 하기에 존재론적으로 사제는 아버지와의 관계에 열려 있어야 하며, 아버지께 순종해야 한다. 사제가 이런 자세를 지닐 때 사제는 비로소

24) Cf. Benedetto XVI, “Udienza generale”, in *Insegnamenti*, vol.VI/1,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2010, p.491.

25) Cf. J. Ratzinger, “Annunciatori della parola e servitori della vostra gioia”, in *Opera Omnia*, vol.12,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13, p.27.

26) Cf. Benedetto XVI, “Udienza generale”, in *Insegnamenti*, vol.V/2,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2010, pp.1~4.

27) Cf. Benedetto XVI, “Discorso alla curia romana”, in *Insegnamenti*, vol.II/2,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2007, p.890.

28) Cf. Concilio Vaticano II, “Presbyterorum ordinis”, in *Enchiridion Vaticanum*, vol.1, Bologna: EDB, <sup>19</sup>2013, p.1250.

진정한 말씀의 봉사자가 된다. 말씀의 봉사자로 살아가는 사제는 바오로 사도가 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갈라 2,20)처럼 사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다.<sup>29)</sup>

사제는 또한 성사의 봉사자이다. 성사는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나시기 위해서 성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당신께로 인도하신다. 각 사제는 하느님 구원 경륜을 위해 자신이 필요한 도구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sup>30)</sup> 특별히 사제는 사랑의 성사인 성체성사의 종이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모든 사제들이 성체성사와 사랑에 빠지기를 바랐다.<sup>31)</sup>

사제는 신자들의 안내자이다. 그런데 사제는 어디로 신자들을 안내해야 하는 것일까? 사제는 반드시 신자들을 하느님께 인도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사제가 하느님을 잘 알지 못한다면 사제는 올바르게 하느님 백성을 하느님께로 인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제는 하느님 백성을 하느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sup>32)</sup>

영적인 차원에서 사제는 거룩함으로 초대받은 사람이다. 이 거룩함은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노력을 전제로 한다. 초대는 초대하는 사람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사제 영성을 산다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사제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정의한다.<sup>33)</sup>

#### 2.4. 프란치스코: 사제, 그리스도의 자비의 상징인 착한 사마리아인

첫째로 사제는 자비와 공감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sup>34)</sup> 사

29) Cf. Benedetto XVI, “Udienza generale”, in *Insegnamenti*, vol.V/1,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10, p.1061.

30) Cf. *Ibid.*, p.633.

31) Cf. *Ibid.*, p.634.

32) Cf. *Ibid.*, p.915.

33) Cf. J. Ratzinger, *op.cit.*, p.558.

34) Cf. Francesco, “Discorso ai parroci della diocesi di Roma”, *AAS* 106(2014), 184.

제는 온 마음을 다해 가난한 이들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가난한 이들과의 친교를 통해 영적인 부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sup>35)</sup> 사제는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공감과 친밀감을 통해서 가난한 이들의 상처를 돌봐 줄 수 있어야 한다.<sup>36)</sup> 사제는 가난한 이들의 상처를 돌보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사제는 또한 지치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도 주님과 관계에서 나오는 사랑과 용서를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sup>37)</sup> 주님과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사랑과 용서로 사제는 증오가 있는 곳에 사랑을, 갈등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sup>38)</sup>

사제는 또한 기쁨의 사도이다.<sup>39)</sup> 사제는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데서 오는 기쁨을 하느님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sup>40)</sup> 사제의 기쁨은 일시적인 감정이나 단순한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아니다. 사제의 기쁨은 삶의 모든 상황을 사랑과 희망의 눈으로 마주하는 태도이다. 기쁨이 없는 믿음은 경직되고 억압적인 것으로 변질되기 마련이다. 그럴 때 믿음은 또 다른 고통이 된다. 왜냐하면 기쁨이 없이는 거룩함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룩함으로 초대받은 사제는 언제나 기쁨의 사도가 되어야 한다.<sup>41)</sup>

사제는 파스카의 사람이고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며, 아

35) Cf. Francesco, “Discorso alla conferenza episcopale italiana”, *AAS* 108(2016), 642.

36) Cf. Francesco, “Messaggio ai partecipanti all’incontro dei consacrati ungheresi nell’anno della vita consacrata”, [http://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messages/pont-messages/2015/documents/papa-francesco\\_20150918\\_video-messaggio-religiosi-ungheresi.html](http://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messages/pont-messages/2015/documents/papa-francesco_20150918_video-messaggio-religiosi-ungheresi.html)(2024.04.09).

37) Cf. Francesco, “Discorso ai partecipanti al convegno promosso dalla congregazione per il clero”, in *Insegnamenti*, vol.III/2,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2021, p.772.

38) Cf. Francesco, “Incontro con il clero, i religiosi e i seminaristi”, *AAS* 110(2018), 1417.

39) Cf. Francesco, “Discorso ai partecipanti al convegno promosso dalla congregazione per il clero”, in *Insegnamenti*, vol.III/2,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2021, p.772.

40) Cf. Francesco, “Discorso ai preti, consacrati e seminaristi di Genova”,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speeches/2017/may/documents/papa-francesco\\_20170527\\_consacrati-genova.html](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speeches/2017/may/documents/papa-francesco_20170527_consacrati-genova.html)(2024.04.09).

41) Cf. Francesco, “Angelus”,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angelus/2021/documents/papa-francesco\\_angelus\\_20211101.html](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angelus/2021/documents/papa-francesco_angelus_20211101.html)(2024.04.09).



무리 어둡고 불합리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하느님이 현존하시고 살아 계시는 지금 이 순간을 부지런히 살아가며 하느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한다.<sup>42)</sup> 사제는 하느님 나라를 향한 순례의 길에서 성숙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해야 한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과 하느님 백성에 대한 사랑 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하느님께서는 사제들이 서품을 받을 때 지녔던 열정을 시간이 지나도 보존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고, 날마다 복음의 신선함을 느끼도록 해 주시며, 하느님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격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sup>43)</sup>

사제는 하느님의 말씀과 하느님 백성의 삶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sup>44)</sup> 사제는 자신의 마음 안에서 울려 퍼진 말씀을 하느님 백성에게 선포하고, 그 말씀이 하느님 백성의 마음과 삶에 울려 퍼지도록 해야 한다.<sup>45)</sup> 왜냐하면 사제에 의해서 선포된 하느님의 말씀은 사제에게는 명료한 생각과 사제직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주며,<sup>46)</sup> 하느님 백성에게는 존엄성, 자유, 정의 그리고 희망을 주기 때문이다.<sup>47)</sup> 이런 의미에서 사제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키우는 사람이다.<sup>48)</sup>

### 3. 세속화: 수평적 그리스도교에서부터 영적 세속성까지

사제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수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느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사

42) Cf. Francesco, “Discorso alla conferenza episcopale italiana”, *AAS* 108(2016), 643.

43) Cf. Francesco, “Discorso ai partecipanti al convegno internazionale”, *AAS* 109(2017), 1189.

44) Cf. Francesco, “Evangelii Gaudium”, in *Enchiridion Vaticanum*, vol.29, Bologna: EDB, 2015, p.2260.

45) Cf. *Ibid.*, p.2255.

46) Cf. Francesco, “Discorso della visita alla tomba di don Lorenzo Milani”, *AAS* 109(2017), 745.

47) Cf. *Ibid.*, 745.

48) Cf. Francesco, “Discorso ai partecipanti al IV convegno missionario nazionale”, in *Insegnamenti*, vol.II/2,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16, p.604.

제는 하느님과 하느님 백성 사이의 중개자로 활동하며, 하느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백성들이 거룩해지도록 돕는다. 반면에 사제는 백성의 기도를 하느님께 전달해야 하는 임무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사제를 통해 모든 사람의 삶의 경험과 감정이 하느님께 전달되기 때문이다. 하느님 백성의 삶의 경험과 감정을 알기 위해서 사제는 하느님 백성과 함께 살아야 한다. 모든 사제들이 닮아야 하는 대사제이신 그리스도 역시 사람들 가운데 사시며 죄를 제외한 인간의 모든 현실을 공유하셨다.<sup>49)</sup>

하지만 사제는 하느님의 백성 중에서 선택을 받아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으므로(히브 5,1 참조), 그는 세상의 일반적인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나 사제는 사람들의 삶과 삶의 상태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사제 정체성의 위기는 사제 삶의 이러한 이중적 측면에서 비롯된다. 사제는 비록 세속적인 삶을 공유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인간 현실의 변화에 무관심할 수 없다. 그렇기에 오늘날의 사제들은 유혹을 받는다. 사제는 세상에서 활동하면서 사회적·문화적 변화에 영향을 받아 주님께서 바라시는 사제 정체성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유혹을 받는다.<sup>50)</sup>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사제는 비록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지만 이 세상의 영에 따라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큰 혼란과 사제 정체성의 위기를 야기하는 세속화의 유혹이 널리 있다.<sup>51)</sup> 따라서 이 장에서는 오늘날 사제 정체성의 위기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세속화의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네 교황의 가르침을 통해 세속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49) Cf. Concilio Vaticano II, “Presbyterorum ordinis”, in *Enchiridion Vaticanum*, vol.1, Bologna: EDB, <sup>19</sup>2013, p.1249.

50) Cf. Paolo VI, “Ecclesiam Suam”, in *Enchiridion Vaticanum*, vol.2, Bologna: EDB, <sup>10</sup>1976, p.181.

51) Cf. *Ibid.*, p.183.

### 3.1. 세속화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

세속화는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는 해당 지역의 종교와 정치 그리고 역사에 따라서 다양한 측면으로 달리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네 교황의 세속화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보기에 앞서 세속화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세속화는 종교의 쇠퇴로 이해될 수 있다. 종교 교리, 종교적 가치, 종교 제도가 사회를 지배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종교는 그 중심적 위치와 영향력을 모두 잃었다. 전통적으로 종교적이었던 사회에서 사용되어 온 종교적 상징이나 종교적 형태는 오늘날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세속화는 종교 없는 사회의 도래와 종교 자체의 쇠퇴를 의미한다. 종교의 쇠퇴는 곧 하느님의 몰락, 하느님의 죽음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인식에서 세속화는 무신론과도 연결된다.<sup>52)</sup>

둘째로 세속화는 세상과의 연합을 의미한다. 종교는 초자연적이고 종말론적인 삶에 대해 말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종교는 초자연적이고 종말론적인 삶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주변 사회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세속화는 세상의 일부가 되고 세상과 유사하게 되는 종교적 경향으로 정의할 수 있다.<sup>53)</sup>

셋째로 세속화는 세상의 거룩한 요소의 상실로 해석될 수 있다. 인간과 자연이 합리적이고 인과적인 설명의 대상이 되면서 세상은 점점 거룩한 요소를 잃어버렸다. 이런 의미에서 세속화는 초자연적 현상과 신비에 기초한 개념에 따른 설명의 여지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인간과 자연이 탐구의 대상이 된 세속화된 사회에서는 인간의 존재론적인 지위에 대한 문제조차 제기될 수 없다.<sup>54)</sup> 인간과 세계

52) Cf. Giovanni Paolo II, “Discorso al Congresso ‘Evangelizzazione e ateismo’”, in *Insegnamenti*, vol.III/2,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1980, pp.825-833.

53) Cf. H. Pfautz, “Christian Science: A Case Study of the Social Psychological Aspect of Secularization”, *Social Forces* 34(1956), 246.

를 합리적 관찰의 대상으로 보는 세속화는 이성을 절대화하려는 합리주의와 연결되며, 실용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 그 결과 세속적인 사람은 달성한 결과만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 더욱이 세계는 단일한 형이상학적 체계가 아니라, 문제와 계획들의 일련으로 인식된다.<sup>55)</sup>

넷째로 세속화는 사회가 종교로부터 분리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종교로부터 분리된 사회는 종교적 가르침과 분리된 삶을 살고, 개인 생활에 종교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으며, 종교의 공적인 역할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한 사회에서 종교는 인간의 내부적 요소만을 다룰 뿐, 사회 제도와 사회 구성원들의 집단 활동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sup>56)</sup>

### 3.2. 네 교황의 가르침에 따른 세속화

#### 3.2.1. 바오로 6세: 세속화와 수평적 그리스도교의 위험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변화하는 세상과 대화하고 세상과의 관계를 쇄신하려는 교회의 노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공의회 이후에 교회 내에서는 의견 차이가 있었다. 교회는 여러 분야에서 단순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차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신성하고 초자연적인 차원의 것들을 내려놓는 위험을 감수하려고 했다.

바오로 6세는 교회의 감정과 관습이 세속적인 사고와 행동 방식에 적응함으로써 오늘날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성실하게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말했다.<sup>57)</sup> 세속의 유혹은 너무나 강력하기에 바오로 6세 교황은 재임 기간 동안 신자들과 사제들에게 세속적인 사고방식과 행동 방식을 조심하라고 거듭 경고했다. 하느

54) Cf. M. Eliade, *Il sacro e il profano*, Torino: Boringhieri, 1973, pp.16-18.

55) Cf. H. Cox, *La città secolare*, Firenze: Vallecchi, 1968, p.60.

56) Cf. R. Mehl, “De la sécularisation à l’athéisme”, *Foi & Vie* 1-2(1966), 70.

57) Cf. Paolo VI, “Ecclesiam Suam”, in *Enchiridion Vaticanum*, vol.2, Bologna: EDB, <sup>10</sup>1976, p.183.

님의 개념이 사라진 세속주의에서는 하느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지 않으며, 하느님의 드러남 없이는 그리스도의 이미지와 인간의 거룩함도 제시될 수 없다.<sup>58)</sup> 이러한 방식으로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풍성하게 만들어 줄 진리와 생명의 풍요로움에 다가갈 수 없다.<sup>59)</sup>

세속화의 또 다른 위험은 아무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속화는 문화와 과학의 베일 아래 숨겨져 있어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없게 된다.<sup>60)</sup> 문화와 과학의 베일 아래 숨은 세속주의는 불필요하고 번거로워진 하느님께 의지할 필요 없이 스스로 설명되는 세계관을 지지한다. 그리고 문화와 과학의 베일에 숨은 세속주의는 인간의 능력을 인정하기 위해 결국 하느님 없이 행하고 심지어 하느님을 부정한다.<sup>61)</sup>

바로 6세는 세속화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 그것을 세속주의와 구별한다. 왜냐하면 세속주의는 세속화에 비해 문제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6세는 세속화에서 세속주의로의 전환이 매우 쉽기 때문에 언제나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사실 세속화가 형이상학적, 초월적, 종교적 영역에서 분리되면 세속주의가 된다.<sup>62)</sup>

세속화의 세 번째 위험은 세속화가 그리스도교 신앙을 제한하여 세속주의로 변질시킬 수 있는 신학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6세에 따르면 세속화는 순전히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가치의 현실을 주장하는 사고의 경향이다.<sup>63)</sup> 이러한 경향은 초월적인 것을 거부하면서 수직적인 차원의 신학보다는 수평적인 차원의 신학을 강조한

58) Cf. Concilio Vaticano II, "Lumen Gentium", in *Enchiridion Vaticanum*, vol.1, Bologna: EDB, <sup>9</sup>2013, pp.388-389.

59) Cf. Paolo VI, "Udienza Generale", in *Insegnamenti*, vol.XI,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74, p.597.

60) Cf. Paolo VI, "Evangelii Nuntiandi", in *Insegnamenti*, vol.XIII,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76, pp.1467-1468.

61) Cf. *Ibid.*, pp.1467-1468.

62) Cf. Paolo VI, "Udienza Generale", in *Insegnamenti*, vol.XII,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75, p.667.

63) Cf. *Ibid.*, p.666.

다. 수평적인 차원의 신학은 그리스도의 신성의 신비를 선포하지 않고도 그분 안에서 스승이시며 구원자인 그리스도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것처럼 이야기한다.<sup>64)</sup>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평적인 차원과 수직적인 차원을 모두 강조해야 한다.<sup>65)</sup> 교회의 현대성은 항상 전통적인 구조를 거부하는데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숨결과 기도와 은총의 삶, 사랑과 순종의 거룩함을 실천하는데 달려 있다.<sup>66)</sup>

### 3.2.2. 요한 바오로 2세: 구원의 길에 있어서 세속화의 위험

요한 바오로 2세의 재임 기간에 세속화는 교회 깊숙이 침투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세속주의를 하느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생산에만 전적으로 집중하고, 소비와 쾌락에 압도되는 인본주의적 사상과 관습의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sup>67)</sup>

세속주의는 놀라운 과학기술 발전과 하느님처럼 되고자 하는 유혹, 무한한 자유를 누리려는 유혹에서 파생된다(창세 11,1~9 참조). 세속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종교적인 뿌리를 잘라내고 하느님을 망각하려고 한다.<sup>68)</sup> 사실 인간은 하느님 없이도 세상을 세울 수 있지만, 이 세상은 결국 인간을 등지게 될 것이다. 실제로 하느님은 인간의 뿌리이자 최고의 목적이시며, 그분 자신 안에 신성한 씨앗을 지니고 계신다. 그러므로 인간의 신비를 드러내고 밝혀 주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실재이다.<sup>69)</sup> 그러나 사람이 하느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자기 자신에게 모든 관심을 쏟고, 자신이 모든 현실의 원리이자 이유라

64) Cf. *Ibid.*, p.667.

65) Cf. Paolo VI, “Udienza Generale”, in *Insegnamenti*, vol.VII,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70, pp.898-899.

66) Cf. *Ibid.*, p.950.

67) Cf. Giovanni Paolo II, “Reconciliato et Paenitentia”, in *Enrichidion Vaticanum*, vol.9, Bologna: EDB, 1984, p.1461.

68) Cf. Giovanni Paolo II, “Christifideles Laici”, in *Insegnamenti*, vol.XI/4,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91, pp.2087-2088.

69) Cf. Giovanni Paolo II, “Reconciliato et Paenitentia”, in *Enrichidion Vaticanum*, vol.9, Bologna: EDB, 1984, p.1461.

고 생각한다면, 그는 머지않아 영혼의 고통과 불만족을 느끼게 될 것이며,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부와 물질로 만족을 추구하려고 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간은 점점 더 굴욕적이고 비정상적인 착취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성(性)의 진정한 의미가 약화되거나 왜곡되고 부의 집중이 극도로 심화되어 사회 안에 갈등과 긴장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sup>70)</sup>

요한 바오로 2세에 따르면 사람들이 물질적 번영을 추구하고 소비주의적 물질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삶의 의미에 대한 탐구, 기도의 새로운 형태와 방법을 배우려는 열망이 있다.<sup>71)</sup>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과 소통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가 신앙을 전달하는 것을 중단하면 교회에 대한 무관심은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sup>72)</sup> 교회는 인류와 소통하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해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는 인류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엄청난 영적 유산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sup>73)</sup> 특별히 교회는 인류를 위협하는 다양한 형태의 악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하느님의 자비라는 유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강력한 사랑으로 죽음과 죄와 모든 악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인류를 교회 안으로 끊임없이 초대해야 한다.<sup>74)</sup>

요한 바오로 2세에 따르면 세속화는 인간 구원에 대한 그리스도 교적 개념에 영향을 미친다. 세속화는 구원의 차원에서 신성한 것과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줄이고, 구원을 물질적, 육체적, 수평적 차원으로 축소시킨다. 인간 구원을 위한 올바른 신앙은 예

70) Cf. Giovanni Paolo II, "Pastores dabo vobis", in *Enchiridion Vaticanum*, vol.13, Bologna: EDB, 1995, p.1188.

71) Cf. Giovanni Paolo II, "Redemptoris Missio", in *Insegnamenti*, vol.XIII/2,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92, p.1517.

72) Cf. Giovanni Paolo II, "Reconciliato et Paenitentia", in *Enrichidion Vaticanum*, vol.9, Bologna: EDB, 1984, pp.1444-1445.

73) Cf. Giovanni Paolo II, "Redemptoris Missio", in *Insegnamenti*, vol.XIII/2,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92, pp.1517-1518.

74) Cf. Giovanni Paolo II, "Dives in Misericordia", in *Enchiridion Vaticanum*, vol.7, Bologna: EDB, <sup>13</sup>1982, pp.904-910.

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삶을 닮겠다는 결단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세속화로 인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믿음과 도덕적 판단을 분리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비그리스도교적인 맥락에서 도덕적 판단을 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는 경향이다.<sup>75)</sup> 그럴 경우 구원과 선교의 내용은 너무 인간중심적이게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 전체에 비추어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인간의 필요에만 초점을 맞추어 도덕적 판단을 내리기 때문이다. 이 비전에서 하느님 나라와 교회는 전적으로 인간적이고 세속화된 현실이 된다.<sup>76)</sup>

### 3.2.3. 베네딕토 16세: 세속화와 신앙과 삶의 분리로 야기되는 위험

세속화가 일상생활의 모든 분야에 침투하여 사실상 인간의 존재와 양심에서 하느님을 부정하는 사고방식을 발전시켰다고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말했다.<sup>77)</sup> 이러한 세속화는 신자들의 신앙, 행동, 일상생활 방식에도 심오한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신자들은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하느님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하느님을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는 문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더욱이 쾌락주의적이고 소비주의적인 사고방식은 피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갖게 만든다. 일상생활에서 피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로 인해 발생하는 하느님의 죽음은 신자와 사제들에게 모두 개인 중심의 삶을 강요한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위축과 공허함에 빠질 위험이 있다.<sup>78)</sup>

베네딕토 16세 교황에 따르면 일부 국가에서는 세속적 사고방식이

75) Cf. Giovanni Paolo II, “Veritatis Splendor”, in *Insegnamenti*, vol.XVI/2,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95, p.348.

76) Cf. Giovanni Paolo II, “Redemptoris Missio”, in *Insegnamenti*, vol.XIII/2,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92, pp.1500~1501.

77) Cf. Benedetto XVI, “Discorso ai partecipanti all’assemblea plenaria del pontificio consiglio della cultura”, in *Insegnamenti*, vol.IV/1,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2009, p.378.

78) Cf. *Ibid.*, pp.377~380.



종교를 배척하지 않는다. 세속화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고, 종교와 교회의 공적인 역할을 인정한다. 그러나 인간 활동과 종교의 관계가 너무 가까워지면 인간의 자율성이 침해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로 인해 종교의 신념이나 가치는 계속해서 경시된다.<sup>79)</sup> 그 결과 신앙과 삶의 분리는 점점 커진다.<sup>80)</sup>

베네딕토 16세 교황에 따르면 생활과 신앙이 분리된 세속화된 사회에서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는 데에 야기되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구원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종말론적인 의미에 대한 것이다.<sup>81)</sup> 세속화된 사회에서는 교회가 구원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 구원은 복음의 핵심이다. 교회는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고,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충만함에 대한 갈증을 일깨우기 위한 새롭고 설득력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현실은 교회의 전례에서, 특히 성찬례에서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고 신자들의 삶 안에서 경험되어야 한다.<sup>82)</sup>

세속화에 따른 두 번째 문제는 그리스도교 사회에서 종말론에 대한 인식이 거의 사라진 것이다. 그리스도교는 구원을 말하는 종교이지만 그 구원은 희망을 통해 얻는다(로마 8,24 참조). 에페소에서 바오로는 에페소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아무 희망도 가지지 못한 채 하느님 없이 살았다”(에페 2,12 참조)고 말한다. 그들에게 신이 있었지만 희망이 없었기에, 어두운 세계에서 어두운 미래를 가졌었다. 그러나 바오로 사도는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하여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마십시오”(1테살 4,13). 우리는 바오로 사도의 말을 통해서 희망을 갖는 것, 미래를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

79) Cf. Concilio Vaticano II, “Gaudium et Spes”, in *Enchiridion Vaticanum*, vol.1, Bologna: EDB, 192013, p.1430.

80) Cf. Benedetto XVI, “Incontro con i vescovi degli Stati uniti d’America”, *AAS* 100(2008), 316.

81) Cf. Benedetto XVI, “Spe Salvi”, in *Enchiridion Vaticanum*, vol.24, Bologna: EDB, 2009, p.1454.

82) Cf. Benedetto XVI, “Incontro con i vescovi degli Stati uniti d’America”, *AAS* 100(2008), 317.

의 특징임을 알 수 있다.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공허하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성경에서 희망은 종종 믿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sup>83)</sup> 하지만 믿음이 상실된 세속화 사회에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미래가 없는 사회에서 인간은 공허함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된다.

### 3.2.4. 프란치스코: 세속화와 영적 세속성의 위험

프란치스코 교황의 가르침은 역대 교황들의 가르침과 비교하면 뭔가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 이전의 세 명의 교황은 하느님의 존재에 대한 부정, 종교로부터의 독립, 종교적 교리와 도덕의 분리에 기초하여 세속화 또는 세속주의를 정의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황의 가르침에는 세속화와 세속주의라는 단어보다 ‘영적 세속성’이라는 표현이 더 자주 사용된다.<sup>84)</sup>

프란치스코 교황은 복음의 기쁨에서 ‘영적 세속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영적 세속성은 신앙심의 외양 뒤에, 심지어 교회에 대한 사랑의 겉모습 뒤에 숨어서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적인 영광과 개인의 안녕을 추구하는 것이다.”<sup>85)</sup> ‘영적 세속성’은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와 같은 자기애의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영적 세속성’은 타인의 문제들과 삶에 대한 관심 부족(필리 2,5 참조),<sup>86)</sup> 다른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과 마음의 완고함(사도 7,51 참조),<sup>87)</sup> 마르타처럼 과도하게 일을 하고(루카 10,38-42 참조) 개인의 소명에 있어서 하느님의 본래 위치를 망각

83) Cf. Benedetto XVI, “Spe Salvi”, in *Enchiridion Vaticanum*, vol.24, Bologna: EDB, 2009, p.1440.

84) Cf. H. De Lubac, *Meditazione sulla Chiesa*, Milano: Jaca Book, 2017, p.269.

85) Cf. Francesco, “Evangelii Gaudium”, in *Enchiridion Vaticanum*, vol.29, Bologna: EDB, 2015, p.2199.

86) Cf. Francesco, “Angelus”,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angelus/2022/documents/20220116-angelus.html>(2024.04.09).

87) Cf. Francesco, “Meditazione mattutina”,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cotidie/2019/documents/papa-francesco-cotidie\\_20190108\\_noalla-cultura-dellindifferenza.html](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cotidie/2019/documents/papa-francesco-cotidie_20190108_noalla-cultura-dellindifferenza.html)(2024.04.09).

(묵시 2,4 참조),<sup>88)</sup> 진정한 기쁨의 상실로 인해 물질적 재화의 축적으로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욕구,<sup>89)</sup> 경쟁과 허영,<sup>90)</sup> 이중생활,<sup>91)</sup> 뒷담화,<sup>92)</sup> 아침,<sup>93)</sup> 경력주의<sup>94)</sup> 등의 문제들을 야기한다. 교회가 영적 세속성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 폐쇄적으로 변해 선교를 등한시한다. 더 이상 복음주의적 열정은 없고, 자기중심적인 자기만족의 즐거움만이 교회에 존재하게 된다.<sup>95)</sup>

#### 4. 세속화된 세상에서 올바른 사제 정체성을 살기 위한 제안: 사제의 올바른 삼중 직무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세속화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특히 그리스도교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세속화의 영향으로 인간은 종교와 신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였고, 종교의 영역과 세상의 영역을 분리하여 살아가기 시작하였다. 세속화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을 섬기고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논리가 그

88) Cf. Francesco, “Incontro con il mondo del lavoro”,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speeches/2017/may/documents/papa-francesco\\_20170527\\_lavoratori-genova.html](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speeches/2017/may/documents/papa-francesco_20170527_lavoratori-genova.html)(2024.04.09).

89) Cf. Francesco, “Meditazione mattutina”,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cotidie/2018/documents/papa-francesco-cotidie\\_20181126\\_santa-marta.htm](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cotidie/2018/documents/papa-francesco-cotidie_20181126_santa-marta.htm)(2024.04.09).

90) Cf. Francesco, “Angelus”,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angelus/2021/documents/papa-francesco\\_angelus\\_20211107.html](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angelus/2021/documents/papa-francesco_angelus_20211107.html)(2024.04.09).

91) Cf. Francesco, “Meditazione mattutina”,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cotidie/2016/documents/papa-francesco-cotidie\\_20160429\\_doppia-vita.html](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cotidie/2016/documents/papa-francesco-cotidie_20160429_doppia-vita.html)(2024.04.09).

92) Cf. Francesco, “Meditazione mattutina”,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cotidie/2013/documents/papa-francesco-cotidie\\_20130902\\_pettegolezzo.html](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cotidie/2013/documents/papa-francesco-cotidie_20130902_pettegolezzo.html)(2024.04.09).

93) Cf. Francesco, “Meditazione mattutina”,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cotidie/2017/documents/papa-francesco-cotidie\\_20170606\\_doppia-faccia.html](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cotidie/2017/documents/papa-francesco-cotidie_20170606_doppia-faccia.html)(2024.04.09).

94) Cf. Francesco, “Discorso alle comunità del pontificio collegio spagnolo”,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speeches/2017/ap-ril/documents/papa-francesco\\_20170401\\_collegio.spagnolo.html](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speeches/2017/ap-ril/documents/papa-francesco_20170401_collegio.spagnolo.html)(2024.04.09).

95) Cf. J. L. Narvaja, “Narcisismo e mondanità spirituale”, *La Civiltà Cattolica* 4044(2018), 602-603.

들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종교가 그들의 삶에서 분리된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이끈다. 그러나 인간은 하느님과 관계 없이는 자기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알 수 없고 참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러므로 세속화된 시대에 하느님으로부터 독립한 인간은 하느님 없는 삶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와 가치, 행복을 얻기 위해 다른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이러한 인간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교회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인간이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인간 존재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세상과 소통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세속화된 시대에 교회의 이러한 노력은 종종 무시되거나 조롱당하기 일췌이다. 많은 사제들이 세속화된 세상과 소통하고 세속화된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노력에 비해 결과는 미미하다. 그 결과 사제들은 세상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낀다. 사람들로부터 이해나 관심을 받지 못할 때, 자신이 하는 일이 세상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느낄 때, 사제는 큰 외로움과 괴로움을 느낀다.<sup>96)</sup>

그렇다면 세속화된 세상과 세속화된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사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사제는 세상과 하나가 되어야 할까? 그러나 세상의 삶의 방식과 하나가 되는 사제는 그 맛을 잃은 소금과 같으며, 그 사제는 심각한 오류에 빠져 교회 전체에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sup>97)</sup>

그러므로 세속화된 사회에서 구원을 위한 노력은 세상과 함께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다. 사목적 열정으로 세속적 요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제는 세상에 구원을 가져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제의 사목 활동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사제의 삶을 망가뜨릴 것이다.<sup>98)</sup> 그러므로 현시대에 사제는 사제의 고유한 정체성을 자신의 사목 안에서 적절하게 부각시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

96) Cf. Y. Congar, *Ai miei fratelli*, Brescia: Queriniana, 1968, pp.189~190.

97) Cf. Paolo VI, “Discorso a sacerdoti e seminaristi del clero diocesano e degli istituti religiosi”, in *Insegnamenti*, vol.VI,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1969, p.1191.

98) Cf. *Ibid.*, p.1191.

하다. 최고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사제의 정체성을 사제들이 유지한다면, 사제는 세속화된 세상에 구원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의 사제 양성」에서는 사제의 정체성이 삼중 직무, 가르치는 직무, 성화하는 직무, 통치하는 직무를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한다.<sup>99)</sup> 모든 사제는 성품성사를 통하여 유일하고 최고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므로,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특징짓는 본질적 요소들에 따라 정체성을 실천하고 사명을 수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사제직의 삼중(가르치고, 성화하고, 통치하는) 직무는 사제 사목 직무의 독창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이므로 모든 시대와 상황에 유효하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삼중 직무를 세속화된 시대에 어떻게 실천하며 사제 정체성을 유지하며 사제들이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4.1. 가르치는 직무: 올바르고 완전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설명하는 직무

##### 4.1.1. 하느님 말씀에 신뢰

세속화된 세상에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제는 그리스도의 성사적 현존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계시가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이다.<sup>100)</sup> 그리스도의 성사적 현존이 되기 위해서 사제는 그리스도의 태도와 생각과 행동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사제는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아야 한다.<sup>101)</sup>

오직 말씀 안에 머무름으로써, 즉 말씀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사

99) Cf. Giovanni Paolo II, “Pastores dabo vobis”, in *Enchiridion Vaticanum*, vol.13, Bologna: EDB, 1995, p.1228.

100) Cf. Concilio Vaticano II, “Dei Verbum”, in *Enchiridion Vaticanum*, vol.1, Bologna: EDB, 192013, p.875.

101) Cf. Benedetto XVI, “Udienza generale”, in *Insegnamenti*, vol.VII/1,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2012, pp.450-451.

제는 주님의 완전한 제자가 될 것이며, 진리를 알게 되고, 복음에 어긋나는 것들을 극복하고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사제의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아지게 되어, 사제의 말은 하느님의 비밀과 하느님의 계획과 하느님의 약속을 드러내며, 인간의 마음과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다.<sup>102)</sup>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사제의 반응은 믿음이어야 한다.<sup>103)</sup> 그러나 사제는 하느님께 응답하지 않으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 이 유혹은 사제를 죄짓게 만든다.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인간의 죄는 불순종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죄는 하느님을 향한 사제의 마음을 달아버린다.<sup>104)</sup>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느님 아버지의 뜻과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셨다.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새 계약이 성취되었고 인간에게는 하느님과 화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졌다. 사제는 제2의 그리스도이다. 그러므로 사제는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여야 한다.

## 4.1.2. 하느님 말씀의 전파

### 4.1.2.1. 복음 선포: 강론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현재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는 받았지만 충분히 복음화되지는 않았다. 한때 신앙과 성소가 풍부했던 국가들이 세속화된 문화의 영향으로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sup>105)</sup> 바오로 6세는 오늘날 신자들이 말하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듣는 것에는 지쳐 있으며, 더 나쁜 것은 하느님의 말씀에

102) Cf. Paolo VI, “Evangelii Nuntiandi”, in *Insegnamenti*, vol.XIII,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76, p.1444.

103) Cf. Benedetto XVI, “Verbum Domini”, in *Enchiridion Vaticanum*, vol.26, Bologna: EDB, 2012, p.2265.

104) Cf. *Ibid.*, p.2266.

105) Cf. *Ibid.*, p.2390.

반대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고 말했다.<sup>106)</sup> 그러나 강론, 즉 메시지를 말로 선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바오로 사도도 말했듯이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로마 10,14) 있겠으며,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로마 10,17)지기 때문이다.

사제의 강론이 사목적 효율성을 얻기 위해서 사제는 강론의 필요와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사랑과 헌신으로 잘 준비된 사제의 강론을 통하여 신자들은 성찬례 전에 특별한 힘과 활력을 얻는다. 또한 사제가 강론을 통하여 자신의 깊은 신앙을 표현하고, 신자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면, 신자 전체의 복음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sup>107)</sup> 그러므로 사제의 가르치는 직무에 없어서는 안 될 도구가 강론이다. 사제는 신자들이 자신의 강론을 듣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걱정하면 안 된다. 오히려 사제는 무엇보다도 먼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하느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하고, 우리 자신은 예수님을 위한 여러분의 종으로 선포합니다”(2코린 4,5).

사제는 세상의 나쁜 소식 가운데서 신자들이 항상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강론을 준비해야 한다. 오늘날 사람들은 폭력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다. 폭력적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더 고요하고, 더 평화로운 삶을 갈망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복음의 기쁨」에서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 사제는 기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쁨이 없으면 복음은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다. 사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새로운 기쁨을 끊임없이 새로 얻는다.<sup>108)</sup> 사제는 이 기쁨을 통하여 사람들이 교회가 선포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현대 문명이

106) Cf. Paolo VI, “Evangelii Nuntiandi”, in *Insegnamenti*, vol.XIII,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1976, p.1459.

107) Cf. *Ibid.*, 1460.

108) Cf. Francesco, “Evangelii Gaudium”, in *Enchiridion Vaticanum*, vol.29, Bologna: EDB, 2015, p.2104.

제공하는 불안과 불확실성, 외로움과 공허함에서 벗어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나 만약 사제에게 기쁨이 없다면 사제의 생활은 공허하고, 무미건조하고, 외롭고, 괴로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 4.1.2.2. 가톨릭교회의 신앙을 가르침: 교리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마태 28,20). 사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신앙의 교육자로서 가톨릭 신앙을 설명하면서 사람들을 하느님의 소중한 자녀로 가르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시간과 힘, 필요하다면 자신의 생명도 바칠 수 있어야 한다. 사제의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발전시키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온전히 증진하고 날마다 자양분을 공급할 수 있다.<sup>109)</sup>

그러나 오늘날의 세상은 하느님을 무시한다. 현대 세계에서는 종교적인 문제에 관해 우호적인 대화를 장려하기보다는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고 교육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하느님을 찾는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으며, 모든 사람과 구원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려면 교리 교육이 필수적이다.<sup>110)</sup>

그렇다면 사제는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이 세상은 구원과 희망을 추구하지만 건강, 부, 물질적인 복지에 더 관심이 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에게 구원은 너무 모호하고, 너무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더 쉽고, 더 체계적인 것들에 더 마음이 끌리기 때문이다. 사도 바오로는 티모테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신화나 끝없는 족보에 정신을 팔지 말라고 지시하십시오

109) Cf. Giovanni Paolo II, “Catechesi Tradendae”, in *Enchiridion Vaticanum*, vol.6, Bologna: EDB, 1980, p.1804.

110) Cf. *Ibid.*, p.1895.



오. 그러한 것들은 믿음을 통하여 알려지는 하느님의 계획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억측만 불러일으킵니다”(1티모 1,4). 사제는 인간의 미래에 대한 고민들에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고 싶은 유혹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혹에 베드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 줄 때, 교묘하게 꾸며 낸 신화를 따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위대함을 목격한 자로서 그리한 것입니다”(2베드 1,16). 종교와 구원에 관한 사제의 인간적인 대답으로 사람들은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그리스도교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것이다.<sup>111)</sup> 만약 사제의 교리 교육이 정통 케리그마에 중심을 두지 않고 인간의 생각에 기초를 두고 있다면, 사제의 가르침은 초월적이고 신적인 차원이 결여된 세속화된 것이 된다.

또 사제는 희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도 희망을 가르쳐야 한다.<sup>112)</sup> 사제는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형이상학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희망은 일관성 없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약속한 것을 실현하는 신뢰할 수 있는 하느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 4.2. 거룩하게 하는 직무: 그리스도 은총의 살아 있는 도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1베드 1,16). 하느님은 인간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 거룩함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온전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으며,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출발했을 때 거룩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거룩함은 그리스도와 일치하여 그분의 삶의 신비를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독특하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자신을 결합시키는 것이며,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다.<sup>113)</sup> 교회

111) Cf. F. X. Bustillo, *Testimoni, non funzionari*,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22, pp.120~122.

112) Cf. Benedetto XVI, “Spe Salvi”, in *Enchiridion Vaticanum*, vol.24, Bologna: EDB, 2009, p.1439.

113) Cf. Francesco, *Gaudete et exsultate*, Milano: Ancora, 2019, p.20.

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고, 그분 삶의 신비에 대하여 묵상하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일치를 이룸으로써 성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제들에게 맡겼다.

오늘날에도 세속화된 사회에 인간을 거룩함에서 떨어뜨리는 두 가지 위험, 영지주의와 펠라지우스 주의가 있다.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지주의는 위로와 깨달음, 헌신과 지식을 줄 수 있지만, 사람들을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만 갇혀 있게 만든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들은 부정한다. 펠라지우스 주의는 신비와 은총보다 인간의 의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 결과 인간은 하느님의 자비, 인간을 먼저 사랑하는 하느님의 사랑을 망각하게 된다.<sup>114)</sup>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 헌장」에서는 인간은 성사들을 통하여 거룩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sup>115)</sup> 특히 신자들은 성찬례와 고해성사에 자주 참여함으로써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어 신앙을 강화하고 더욱 거룩해질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세속화된 세상에서는 하느님의 은총과 신앙의 신비가 무시되고 그리스도인의 성찬례와 화해의 성사의 중요성은 무시되기 쉽다. 그렇다면 세속화된 세상에서 사제는 성화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

#### 4.2.1. 성체성사: 사목적 사랑과 교회 일치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원천

직무 사제직은 성찬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루카 22,19). 예수님께서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성찬례를 제정하시면서 새 계약의 사제직도 제정하셨다. 그러므로 사제는 성품성사를 통해 독특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성찬례에 결합되며, 성찬례에 특별한 책임을 진다. 빵과 포도주는 직무 사제직의 중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 영원한 사제

114) Cf. *Ibid.*, pp.35~51.

115) Cf. Concilio Vaticano II, “Sacrosanctum Concilium”, in *Enchiridion Vaticano*, vol.1, Bologna: EDB, <sup>19</sup>2013, p.107.

이신 그리스도와 성사적으로 일치될 이름으로써 사제는 사실상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제2의 그리스도’가 된다.<sup>116)</sup>

성찬례에서 흘러나오는 은총은 무엇보다 먼저 사제를 거룩하게 하여 사제가 사목적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도록 만든다. 실제로 사제는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봉헌되는 성찬례를 통해 주어지는 은총, 즉 사목적 사랑이 사제의 영혼 깊숙이 침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제의 사목적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적 사랑에 참여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적 사랑에 참여하는 은총은 성령의 은총이며, 사제의 자유롭고 책임 있는 응답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 사목적 사랑의 본질적인 내용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다.<sup>117)</sup>

오늘날 사제들은 다양한 사목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사제는 다양한 영역에서 사목 활동을 하면서 위협해질 수 있다. 하지만 사제들이 성찬의 희생 제사에 뿌리를 두고 생활한다면, 사제들이 비록 다양한 사목 분야에서 활동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목적 사랑을 충전할 수 있을 것이며, 사제 삶의 집중력을 잃게 만들 수 있는 일상적인 긴장에 맞서 싸울 수 있다.<sup>118)</sup>

사제는 또한 성찬례가 선사하는 친교의 신비를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이다. 파라클리토이신 성령을 청하는 성찬례 두 번째 감사기도는 교회 일치에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한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갈등과 폭력으로 얼룩진 오늘날의 세상에서 사제는 성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친교의 영성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오늘날 사람들은 일치를 원하지만 연령, 문화, 인종, 경제 수준에 따라 분열되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사제는

116) Cf. Giovanni Paolo II, “Ecclesia de Eucharistia”, in *Insegnamenti*, vol.XXVI/1,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2005, p.530.

117) Cf. Giovanni Paolo II, “Omelia durante l’adorazione eucaristica a Seoul”, in *Insegnamenti*, vol.XII/2,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91, p.785.

118) Cf. Concilio Vaticano II, “Presbyterorum ordinis”, in *Enchiridion Vaticanum*, vol.1, Bologna: EDB, <sup>19</sup>2013, p.1291.

자신을 희생하고 성찬례를 통해 얻은 사목적 사랑으로 세상에 친교의 영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sup>119)</sup>

성찬례에서 사제는 성령의 활동을 통하여 하느님의 외아들 독생 성자와 친교를 이루면서 하느님과의 친교를 완성한다.<sup>120)</sup> 사제는 성찬례를 통해 하느님과 이루는 친교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대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감정과 태도에 더욱 깊이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존재론적, 심리적, 윤리적, 실존적 유대를 맺고 살아가야 한다.<sup>121)</sup>

사제는 성찬례를 통해 주교와 친교를 이루어야 한다. 사제의 직무는 그가 주교와 교계적 친교를 맺을 때에만 실현된다. 사제는 사제단의 구성원으로서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개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역사적 상황과 사회적 상황 속에서 복음에 따라 목자로서 하느님의 백성을 돌보는데 헌신해야 한다.<sup>122)</sup> 사제와 주교의 친교에서 우리는 사제들이 지켜야 할 복음 삼덕 중에 하나인 순종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다.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자유가 남용되는 이 시대에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올바른 권위에 대한 사제의 순종은 세속화된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sup>123)</sup>

사제는 성찬례의 은총을 통해 형제 사제들과도 친교를 이루어야 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제 생활과 교역에 관한 훈령에서 사제는 먼저 주교와 다른 형제 사제들과 친교를 이루어 그가 사목적 사랑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sup>124)</sup> 사제는 자신이 개별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키우고 자신이 속한 개별 교회 안에서 사랑을

119) Cf. Giovanni Paolo II, “Vita Consecrata”, in *Enchiridion Vaticanum*, vol.15, Bologna: EDB, 1999, pp.585~586.

120) Cf. Giovanni Paolo II, “Ecclesia de Eucharistia”, in *Insegnamenti*, vol. XXVI/1,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05, p.34.

121) Cf. Giovanni Paolo II, “Pastores dabo vobis”, in *Enchiridion Vaticanum*, vol.13, Bologna: EDB, 1995, p.1503.

122) Cf. *Ibid.*, p.1306.

123) Cf. Giovanni Paolo II, “Vita Consecrata”, in *Enchiridion Vaticanum*, vol.15, Bologna: EDB, 1999, pp.707~708.

124) Cf. Concilio Vaticano II, “Presbyterorum ordinis”, in *Enchiridion Vaticanum*, vol.1, Bologna: EDB, 192013, p.1292.

발전시키도록 불리움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사랑은 사제가 자신의 직무 안에서 형제애를 느낄 때 발전한다. 사제는 자신이 지닌 이 사랑으로 교회의 부요함과 취약함, 어려움과 희망에 동참할 수 있으며 교회 성장을 위해 일할 수 있다.<sup>125)</sup> 더욱이, 사제들 사이의 형제적 사랑은 사제가 독신 생활을 하면서 정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성의 존엄성이 무시되고 성의 착취가 무차별적으로 자행되는 세속화된 시대에 사제의 정결은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줄 것이다.<sup>126)</sup>

사제는 목자처럼 하느님의 백성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제는 자신을 하느님 백성과 묶어 주는 심오한 친교를 더욱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사제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세례성사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존엄성과 자유를 얻었으며, 자신도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임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 사제는 하느님 백성과의 친교를 인식함으로써 교회를 더욱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 성령께서 신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은총과 역할을 존중할 수 있게 된다.<sup>127)</sup> 또한 사제는 개별 교회의 신자들 뿐만 아니라 보편 교회의 모든 신자들과도 친교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사제는 가난과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움의 기회를 모색함으로써 그들과 친교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주 사제들에게 하느님, 주교, 형제 사제들 그리고 하느님 백성 전체와의 친교를 결코 소홀히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만약 사제가 이 네 가지 친교 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한다면, 그는 자신의 소명을 완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직주의에 집착하거나 완고한 태도를 갖게 되어 그리스도와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다.<sup>128)</sup>

125) Cf. Giovanni Paolo II, “Pastores dabo vobis”, in *Enchiridion Vaticanum*, vol.13, Bologna: EDB, 1995, p.1523.

126) Cf. *Ibid.*, p.1408.

127) Cf. *Ibid.*, p.1406.

128) Cf. Francesco, “Discorso alla comunità del Pontificio seminario regionale Flaminio ‘Benede

#### 4.2.2. 고해성사: 죄의식과 하느님 자비에 대한 신뢰

오늘날 인간은 죄책감과 죄의식을 잃게 만드는 문화 속에 살고 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1요한 1,8). 죄는 마치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고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하느님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하느님을 삶에서 배제하려는 경향이 만연한 세속화된 사회에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 죄책감의 부족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써 하느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죄로 인해 인간의 내적인 조화가 깨어지면서 내부 갈등의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상처는 필연적으로 다른 이들과 피조물 전체에 해를 미치게 된다.<sup>129)</sup> 그러므로 오늘날의 사제는 고해성사가 주는 은총을 이해하고, 고해성사의 신비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체험하고, 그것을 신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고해성사를 통해 신자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제 자신이 먼저 그 은총을 맛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사제는 고해성사를 통해 자신의 죄를 올바르게 고백하기 위해 매일 자신의 양심을 성찰해야 한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인식과 하느님에 대한 인식은 인간의 도덕적 양심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양심의 소리가 완전히 억제될 수 없듯이, 하느님에 대한 감각과 죄의식도 완전히 제거될 수 없다. 인간의 도덕적 양심은 인간의 가장 은밀한 공간이며, 인간이 하느님과 함께 머무르는 거룩한 곳이다. 게다가 인간의 양심은 인간의 자유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인간 존엄성의 기초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고 진정한 자유의 감각이 상실된 세속화된 사회에서 인간의 양심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하다. 도덕적 양심이 흐려지면 사람은 하느님에 대한 감각을 잃

tto XV' in Bologna”,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speeches/2019/december/documents/papa-francesco\\_20191209\\_seminario-benedettoxv.html](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speeches/2019/december/documents/papa-francesco_20191209_seminario-benedettoxv.html)(2024.04.09).

129) Cf. Giovanni Paolo II, “Reconciliato et Paenitentia”, in *Enchiridion Vaticanum*, vol.9, Bologna: EDB, 1984, p.1112.

고 죄에 대한 감각을 잃게 만드는 내적 기준도 잃게 된다.<sup>130)</sup> 그러므로 사제는 하느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양심을 자주 성찰하여 하느님과 죄에 대한 인식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제들에게 고해실은 고문실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하도록 자극하시는 주님의 자비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sup>131)</sup> 현대의 사고방식은 과거의 사고방식보다 자비의 하느님에 더 반대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비라는 개념 자체를 삶에서 배제하고 인간의 마음 안에서 제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의 발달로 지구의 주인이 되어 모든 창조물들의 원리를 설명하고 지배하려는 인간에게 자비라는 단어는 매우 불편한 것이기 때문이다.<sup>132)</sup> 자비는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진실한 사랑 표현이다. 그러므로 자비로우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자들의 죄를 용서하는 사제들은 고해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진실한 사랑을 드러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게다가 사제들은 신자들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인간다운 선함이 그들 안에 살아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기뻐해야 한다.<sup>133)</sup> 이러한 사제의 모습을 통해 신자들은 세속화된 시대에 만나기 어려운 하느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자비를 경험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느님을 거스르거나 하느님 없이 살 수 없기에 항상 회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sup>134)</sup>

---

130) Cf. *Ibid.*, p.1128.

131) Cf. Francesco, “Evangelii Gaudium”, in *Enchiridion Vaticanum*, vol.29, Bologna: EDB, 2015, p.2150.

132) Cf. Giovanni Paolo II, “Dives in misericordia”, in *Enchiridion Vaticanum*, vol.7, Bologna: EDB, <sup>13</sup>1982, p.863.

133) Cf. *Ibid.*, p.894.

134) Cf. *Ibid.*, p.935.

### 4.3. 통치하는 직무: 영원한 생명을 향한 그리스도의 은총과 진리를 통한 인도

#### 4.3.1. 오늘날의 권위: 그리스도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끌기 위한 봉사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권위가 자유를 위협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권위가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이 추구하는 자유는 자신의 본능과 욕망을 따르는 것이며, 지극히 개인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주의는 사회적 유대, 공동체, 연대를 붕괴시킨다.<sup>135)</sup> 사제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곳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초대함으로써 세속화된 세상에 사회적 연대와 안정감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교회는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계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계 제도는 항상 지배와 연결되어 이해된다. 그러나 이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다. 왜냐하면 교회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교회가 추구하는 인간의 권위는 결코 목적이 아니며, 항상 수단일 뿐이다. 목적은 언제나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다.<sup>136)</sup> 그러므로 사제는 사람들의 참된 선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유일한 최고의 선이신 하느님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권위는 인간에게 이질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깨달음과 구원을 향한 길에 귀중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sup>137)</sup> 그러므로 사제의 통치 직무의 목적은 인간이 생명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와의 구원의 만남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거룩함으로 양 떼를 이끄는 봉사이다.<sup>138)</sup>

마태오 복음 5~7장은 예수님께서 군중을 가르치신 이야기를 소개한다. 그리고 7장의 끝부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군중들

135) Cf. Francesco, “Evangelii Gaudium”, in *Enchiridion Vaticanum*, vol.29, Bologna: EDB, 2015, p.2105.

136) Cf. Benedetto XVI, “Udienza Generale”, in *Insegnamenti*, vol.VI/1,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09, p.778.

137) Cf. *Ibid.*, p.778.

138) Cf. *Ibid.*, p.778.



의 반응을 소개한다. “군중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자기들의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마태 7,28-29). 예수님의 권위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겸손하고 사랑이 넘치는 섬김이며, 우주를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왕권은 지상의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정점에 도달한다.<sup>139)</sup> 오늘날의 이 시대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권위를 지닌 사제들이 필요하다. 오직 이 권위를 지닌 사제만이 이 막연하고 불안정한 시대에 사람들에게 믿음과 안정을 주고 구원에 대한 참된 사랑으로 모든 신자들을 대할 수 있다.

#### 4.3.2. 착한 목자: 사랑으로 양들을 돌보기

사제의 통치하는 직무는 목자처럼 양들을 돌보는 것을 말한다. 사제는 양 냄새 나는 목자가 되어,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그들을 보살펴야 한다(요한 10,14-15 참조). 그러나 오늘날의 사제들은 점점 자신의 활동을 기능적, 실용적으로 하며 급여를 받으면서 일하는 관리자가 되는 것 같다.<sup>140)</sup>

에제키엘 예언서 34장은 착한 목자(34,10-26)와 나쁜 목자(34,2-6)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나쁜 목자는 양 떼가 하느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고 양 떼를 자신의 소유로 하고, 양 떼와 동행하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으며, 적의 공격으로 양 떼가 병들거나 약해졌을 때 그것을 이용하여 양 떼들을 착취하고, 양 떼들 가운데 혼란을 심어 놓는다. 이런 상황에서 목자들은 자신을 절대적인 주인으로 여기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그들은 양 떼를 착취하여 옷을 입고 음식을 먹는다. 그들은 가혹하고 무자비하다. 사제들이 만약 이러한 나쁜 목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목자는 양 떼를 약하게 만들고 양 떼들을 위협에 직면하게 만들고 그들을 흩어버린다.<sup>141)</sup>

139) Cf. *Ibid.*, p.781.

140) Cf. Francesco, “Omelia della santa Messa del Crisma”,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homilies/2022/documents/20220414-omelia-crisma.html> (2024.04.09).

141) Cf. F. X. Bustillo, *op.cit.*, pp.77-80.

나쁜 목자들과는 대조적으로 에제키엘 예언자는 착한 목자의 모습도 제시한다. 착한 목자는 자신의 양 떼를 돌보는 일에 헌신하고 그들과 친교를 맺으며, 이를 통해 자신을 양 떼의 목자로 드러낸다. 그는 절대로 양 떼를 버리지 않는다. 에제키엘 예언서는 착한 목자의 여러 측면을 소개한다. 우선 착한 목자는 양 떼를 돌보고,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양을 다시 자기 땅으로 데리고 와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해 준다(에제 34,12~13 참조). 착한 목자는 일치와 공감의 마음으로 양들을 돌본다. 그는 아픈 양의 상처를 싸매 주고, 힘을 주며, 돌봐 준다(에제 34,16 참조). 착한 목자의 존재는 적의 공격을 막고 양 떼에게 평화를 가져다준다(에제 34,25~28 참조).

에제키엘 예언서를 통해 소개된 착한 목자에 빗대어 예수님께서서는 친히 “나는 착한 목자다”(요한 10,14)라고 말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착한 목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제는 누구든지 오직 그분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과의 친밀한 친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 떼의 목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sup>142)</sup> 요한 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에게 세 번의 질문을 하신다.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요한 21,15),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요한 21,16),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요한 21,17).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에게 양 떼를 맡기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양 떼를 이끌기 전에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라고 당부하신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제 역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백성을 인도하고, 모을 수 없으며, 돌볼 수 없다.

세속화된 시대에 사제들은 양 떼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양 떼들을 인도하기보다는 자기 이익에만 관심을 두는 목자가 되려는 유혹을 받는다. 그러나 모든 사제들은 예수님을 닮은 착한 목자가 되어 예수님을 대신하여 자신을 희생하면서 양들을 돌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님께서서는 복음을 통해 당신 백성에게 참된 착한 목자의 모습을 보여 주셨고, 그 모습은 모든

142) Cf. Benedetto XVI, “Omelia alla santa Messa per l’ordinazione presbiterale”, in *Insegnamenti*, vol.II/1,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07, p.511.

사제들에 모범이 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착한 목자가 되고 싶은 사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각 사제에게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예.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사제는 예수님과 친밀한 친교를 나눌 수 있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양 떼를 돌볼 수 있다.<sup>143)</sup>

## 5. 나가는 말

우리는 세속화된 세상에서 사제들이 어떻게 삼중 직무를 수행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해보았다. 하느님의 백성이 사제를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사제는 삼중 직무를 수행하면서 성사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존적으로도 예수님을 닮은 ‘제2의 그리스도’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르치는 직무는 사제가 참된 복음 선포와 교리 교육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알릴 때 올바르게 수행된다. 사제는 가르치는 직무를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말씀에 가까운 삶을 살아야 한다. 사제는 온 마음을 다해 강론을 준비해야 하며, 특히 삶의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영적 기쁨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사제는 생명의 근원과 방향을 찾지 못하고 불안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희망을 가르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제가 거룩한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사제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의 참된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

거룩하게 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제는 예수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성찬례와 고해성사를 통해 자신도 거룩하게 하고 하느님의 백성도 거룩하게 만들려고 노력해야

143) Cf. F. X. Bustillo, *op.cit.*, pp.86-87.

한다. 사제는 성찬례를 통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사목적 사랑의 은총을 청하고, 자신의 삶을 거룩한 제물로 하느님께 봉헌하며, 신자들을 위해 자신을 바칠 수 있는 마음을 키워야 한다. 더욱이 사제는 성체성사의 신비인 친교의 신비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하느님과의 친교, 주교와의 친교, 형제 사제들과의 친교, 하느님 백성과의 친교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또한 사제는 고해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통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제는 착한 목자의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예수님이 지나셨던 권위를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사제는 잃어버린 양을 찾고, 곤경에 처하고 상처받은 양들을 돌보며, 하느님의 말씀과 성찬례로 그들을 양육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교회는 하느님과 종교,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초자연적 신비를 제거하는 세속화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이 위기는 사제들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 스스로를 쇄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사제들이 삼중 직무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다면, 하느님이 사라지고 있는 이 세속화된 세상에서 사제는 하느님의 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삶에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세속화된 시대에 사제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긋나는 많은 이론과 사상의 영향을 받아 길을 잃고 방황할 수 있다.<sup>144)</sup>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들은 세속화의 유혹으로 인해 때로는 자신의 욕망과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기도 한다. 이때 사제의 정체성은 흔들릴 수 있고, 사제는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중으로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마태 25,26-27 참조).

그러나 사제에게는 사제 삶의 분명한 척도가 있다. 모든 사제들의 문제의 해결책은 그리스도 예수를 사제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

144) Cf. J. Ratzinger, “Omelia della Messa Pro Eligendo Romano Pontifice”, [https://www.vatican.va/gpII/documents/homily-pro-eligendo-pontifice\\_20050418\\_it.html](https://www.vatican.va/gpII/documents/homily-pro-eligendo-pontifice_20050418_it.html)(2024.04.09).

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제직의 결정적인 척도이시며, 모든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생겨나는 사제직의 위기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제들이 이 세상에서 ‘제2의 그리스도’가 되어 당신의 삶을 살도록 사제들을 초대하신다. 주님께서서는 사제들을 친구라 부르시고,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사제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사제들에게 완전한 신뢰를 주시며, 사제들에게 당신 얼굴을 드러내신다.<sup>145)</sup> 그렇기에 모든 사제들이 받은 성소는 매우 고귀하다. 모든 사제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면서 세속화된 시대에 참된 하느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

---

145) *Ibid.*

## [참고 문헌]

### 1.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 CONCILIO VATICANO II, “Sacrosanctum Concilium”(1963.12.04.), in *Enchiridion Vaticanum*, vol.1, Bologna: EDB, <sup>19</sup>2013, pp.1~244.
- \_\_\_\_\_, “Lumen Gentium”(1964.11.21.), in *Enchiridion Vaticanum*, vol.1, Bologna: EDB, <sup>19</sup>2013, pp.284~456.
- \_\_\_\_\_, “Dei Verbum”(1965.11.18.), in *Enchiridion Vaticanum*, vol.1, Bologna: EDB, <sup>19</sup>2013, pp.872~911.
- \_\_\_\_\_, “Gaudium et Spes”(1965.12.07.), in *Enchiridion Vaticanum*, vol.1, Bologna: EDB, <sup>19</sup>2013, pp.1319~1644.
- \_\_\_\_\_, “Presbyterorum ordinis”(1965.12.07.), in *Enchiridion Vaticanum*, vol.1, Bologna: EDB, <sup>19</sup>2013, pp.1243~1318.

### 2. 교황 문헌(편집 단행본)

- Benedetto XVI, “Omelia alla santa Messa per l’ordinazione presbiterale”(2006.05.07.), in *Insegnamenti*, vol.II/1,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2007, pp.550~555.
- \_\_\_\_\_, “Discorso alla curia romana”(2006.12.22.), in *Insegnamenti*, vol.II/2,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2007, pp.883~894.
- \_\_\_\_\_, “Spe Salvi”(2007.11.30.), in *Enchiridion Vaticanum*, vol.24, Bologna: EDB, 2009, pp.1439~1488.
- \_\_\_\_\_, “Discorso ai partecipanti all’assemblea plenaria del pontificio consiglio della cultura”(2008.03.08.), in *Insegnamenti*, vol.IV/1,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2009, pp.377~380.
- \_\_\_\_\_, “Udienza generale”(2009.06.24.), in *Insegnamenti*, vol.V/1,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2010, pp.1059~1067.
- \_\_\_\_\_, “Udienza generale”(2009.07.01.), in *Insegnamenti*, vol.V/2,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2010, pp.1~8.
- \_\_\_\_\_, “Udienza generale”(2010.04.14.), in *Insegnamenti*, vol.VI/1,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2009, pp.489~497.
- \_\_\_\_\_, “Udienza generale”(2010.05.05.), in *Insegnamenti*, vol.VI/1,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2009, pp.489~497.

-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2009, pp.630-640.
- \_\_\_\_\_, “Udienza Generale”(2010.05.26.), in *Insegnamenti*, vol.VI/1,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2009, pp.777-786.
- \_\_\_\_\_, “Angelus Domini”(2010.06.13.), in *Insegnamenti*, vol.VI/1,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2009, pp.915-919.
- \_\_\_\_\_, “Verbum Domini”(2010.09.30.), in *Enchiridion Vaticanum*, vol. 26, Bologna: EDB, 2012, pp.2018-2433.
- Benedetto XVI, “Udienza generale”(2011.04.13.), in *Insegnamenti*, vol.VII/1,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2012, pp.449-460.
- Francesco, “Discorso ai partecipanti al IV convegno missionario nazionale”(2014.11.22.), in *Insegnamenti*, vol.II/2,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2016, pp.602-605.
- \_\_\_\_\_, “Evangelii Gaudium”(2014.11.24), in *Enchiridion Vaticanum*, vol.29, Bologna: EDB, 2015, pp.2104-2396.
- \_\_\_\_\_, “Discorso ai partecipanti al convegno promosso dalla congregazione per il clero”(2015.11.20.), in *Insegnamenti*, vol.III/2,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2021, pp.770-777.
- GIOVANNI PAOLO II, “Lettera a tutti i sacerdoti”(1979.04.08.), in *Insegnamenti*, vol.II/1,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79, pp.863-880.
- \_\_\_\_\_, “Catechesi Tradendae”(1979.10.16.), in *Enchiridion Vaticanum*, vol.6, Bologna: EDB, 1980, pp.1764-1939.
- \_\_\_\_\_, “Discorso al Congresso ‘Evangelizzazione e ateismo’”(1980.10.10.), in *Insegnamenti*, vol.III/2,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80, pp.825-833.
- \_\_\_\_\_, “Dives in Misericordia”(1980.11.30.), in *Enchiridion Vaticanum*, vol.7, Bologna: EDB, <sup>13</sup>1982, pp.857-956.
- \_\_\_\_\_, “Reconciliato et Paenitentia”(1984.12.02.), in *Enchiridion Vaticanum*, vol.9, Bologna: EDB, 1984, pp.1352-1499.
- \_\_\_\_\_, “Lettera ai sacerdoti”(1986.03.16.), in *Insegnamenti*, vol. IX/1,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86, pp.726-755.
- \_\_\_\_\_, “Christifideles Laici”(1988.12.30.), in *Insegnamenti*, vol. XI/4,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91, pp.1967-2175.
- \_\_\_\_\_, “Lettera ai sacerdoti”(1989.03.12.), in *Insegnamenti*, vol. XII/1,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91, pp.541-550.
- \_\_\_\_\_, “Omelia durante l’adorazione eucaristica a Seoul”

- (1989.10.07.), in *Insegnamenti*, vol.XII/2,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91, pp.783~787.
- \_\_\_\_\_, “Redemptoris Missio”(1990.12.07.), in *Insegnamenti*, vol. XIII/2,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92, pp.1398~1557.
- \_\_\_\_\_, “Lettera ai sacerdoti”(1991.03.10.), in *Insegnamenti*, vol. XIV/1,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93, pp.492~498.
- Giovanni Paolo II, “Pastores dabo vobis”(1992.03.25.), in *Enchiridion Vaticanum*, vol.13, Bologna: EDB, 1995, pp.1154~1553.
- \_\_\_\_\_, “Veritatis Splendor”(1993.08.06.), in *Insegnamenti*, vol.XVI/2,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95, pp.156~375.
- \_\_\_\_\_, “Vita Consecrata”(1996.03.25.), in *Enchiridion Vaticanum*, vol. 15, Bologna: EDB, 1999, pp.434~775.
- \_\_\_\_\_, “Ecclesia de Eucharistia”(2003.04.17.), in *Insegnamenti*, vol. XXVI/1,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2005, pp.513~550.
- Paolo VI, “Ecclesiam Suam”(1964.08.06.), in *Enchiridion Vaticanum*, vol.2, Bologna: EDB, <sup>10</sup>1976, pp.163~210
- \_\_\_\_\_, “L’omaggio filiale del clero romano”(1963.06.24.), in *Insegnamenti*, vol.I,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64, pp.13~16.
- \_\_\_\_\_, “Omelia di consacrazione di cinque nuovi vescovi”(1964.06.28.), in *Insegnamenti*, vol.II,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65, pp.431~437.
- \_\_\_\_\_, “Omelia di XVII congresso eucaristico nazionale d’Italia”(1965.06. 10.), in *Insegnamenti*, vol.III,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66, pp.336~343.
- \_\_\_\_\_, “Messaggio a tutti sacerdoti della Chiesa cattolica”(1968.06.30.), in *Insegnamenti*, vol.VI,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69, pp.311~316.
- \_\_\_\_\_, “Discorso a sacerdoti e seminaristi del clero diocesano e degli istituti religiosi”(1968.12.11.), in *Insegnamenti*, vol.VI,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69, pp.1190~1194.
- \_\_\_\_\_, “Udienza Generale”(1969.03.26.), in *Insegnamenti*, vol.VII,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70, pp.897~900.
- \_\_\_\_\_, “Udienza generale”(1970.06.10.), in *Insegnamenti*, vol.VIII,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71, pp.597~600.
- \_\_\_\_\_, “Discorso agli aspiranti al sacerdozio”(1971.06.20.), in *Insegnamenti*,



- vol.IX,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72, pp.513~518.
- \_\_\_\_\_, “Udienza Generale”(1973.06.13.), in *Insegnamenti*, vol.XI,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74, pp.59~600.
- \_\_\_\_\_, “Discorso ai sacerdoti anziani e novelli della diocesi Brescia” (1974.07.03.), in *Insegnamenti*, vol.XII,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75, pp.635~637.
- Paolo VI, “Udienza Generale”(1974.07.17.), in *Insegnamenti*, vol.XII,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75, pp.664~668.
- \_\_\_\_\_, “Evangelii Nuntiandi”(1975.12.08.), in *Insegnamenti*, vol.XIII,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76, pp.1380~1490.
- Ratzinger, J., “Annunciatori della parola e servitori della vostra gioia”, in *Opera omnia*, vol.12,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13.

### 3. 교황 문헌(정기 간행물)

- Benedetto XVI, “Incontro con i vescovi degli Stati uniti d’America”(2008.04.16.), *AAS* 100(2008), 305~319.
- Francesco, “Discorso ai parroci della diocesi di Roma”, *AAS* 106(2014), 184.
- \_\_\_\_\_, “Discorso alla conferenza episcopale italiana”(2016.05.16.), *AAS* 108 (2016), 640~643.
- \_\_\_\_\_, “Discorso della visita alla tomba di don Lorenzo Milani”(2017.06.20.), *AAS* 109(2017), 744~748.
- \_\_\_\_\_, “Discorso ai partecipanti al convegno internazionale”(2017.10.07.), *AAS* 109(2017), 1188~1191.
- \_\_\_\_\_, “Incontro con il clero, i religiosi e i seminaristi”(2018.09.15.), *AAS* 110(2018), 1416~1423.

### 4. 교황 문헌(교황청 인터넷 사이트)

- Francesco, “Meditazione mattutina”(2013.09.02),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cotidie/2013/documents/papa-francesco-cotidie\\_20130902\\_pettegolezzo.html](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cotidie/2013/documents/papa-francesco-cotidie_20130902_pettegolezzo.html) (2024.04.09).
- \_\_\_\_\_, “Messaggio ai partecipanti all’incontro dei consacrati ungheresi nell’anno della vita consacrata”(2015.09.18), [http://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messages/pont-messages/2015/documents/papa-francesco\\_20150918\\_video-messaggio](http://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messages/pont-messages/2015/documents/papa-francesco_20150918_video-messaggio)

- religiosi-ungheresi.html(2024.04.09).
- \_\_\_\_\_, “Meditazione mattutina”(2016.04.29),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cotidie/2016/documents/papa-francesco-cotidie\\_20160429\\_doppia-vita.html](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cotidie/2016/documents/papa-francesco-cotidie_20160429_doppia-vita.html)(2024.04.09).
- \_\_\_\_\_, “Discorso alle comunità del pontificio collegio spagnolo”(2017.04.01),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speeches/2017/ap-ril/documents/papa-francesco\\_20170401\\_collegio.spagnolo.html](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speeches/2017/ap-ril/documents/papa-francesco_20170401_collegio.spagnolo.html)(2024.04.09).
- \_\_\_\_\_, “Discorso ai preti, consacrati e seminaristi di Genova”(2017.05.17),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speeches/2017/may/documents/papa-francesco\\_20170527\\_consacrati-genova.html](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speeches/2017/may/documents/papa-francesco_20170527_consacrati-genova.html)(2024.04.09).
- \_\_\_\_\_, “Meditazione mattutina”(2017.06.06),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cotidie/2017/documents/papa-francesco-cotidie\\_20170606\\_doppia-faccia.html](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cotidie/2017/documents/papa-francesco-cotidie_20170606_doppia-faccia.html)(2024.04.09).
- \_\_\_\_\_, “Meditazione mattutina”(2018.11.26),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cotidie/2018/documents/papa-francesco-cotidie\\_20181126\\_santa-marta.htm](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cotidie/2018/documents/papa-francesco-cotidie_20181126_santa-marta.htm)(2024.04.09).
- \_\_\_\_\_, “Meditazione mattutina”(2019.01.08),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cotidie/2019/documents/papa-francesco-cotidie\\_20190108\\_noalla-cultura-dell-indifferenza.html](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cotidie/2019/documents/papa-francesco-cotidie_20190108_noalla-cultura-dell-indifferenza.html)(2024.04.09).
- \_\_\_\_\_, “Discorso alla comunità del Pontificio seminario regionale Flaminio ‘Benedetto XV’ in Bologna”(2019.12.09),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speeches/2019/december/documents/papa-francesco\\_20191209\\_seminario-benedettoxv.html](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speeches/2019/december/documents/papa-francesco_20191209_seminario-benedettoxv.html)(2024.04.09).
- \_\_\_\_\_, “Angelus”(2021.11.01),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angelus/2021/documents/papa-francesco\\_angelus\\_20211101.html](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angelus/2021/documents/papa-francesco_angelus_20211101.html)(2024.04.09).
- \_\_\_\_\_, “Angelus”(2021.11.07.),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angelus/2021/documents/papa-francesco\\_angelus\\_20211107.html](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angelus/2021/documents/papa-francesco_angelus_20211107.html)(2024.04.09).
- \_\_\_\_\_, “Angelus”(2022.01.16),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angelus/2022/documents/20220116-angelus.html>(2024.04.09).
- \_\_\_\_\_, “Omelia della santa Messa del Crisma”(2022.04.14),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homilies/2022/documents/20220414-omelia-crisma.html>(2024.04.09.).
- Ratzinger, J., “Omelia della Messa Pro Eligendo Romano Pontifice”(2005.04.18.), [https://www.vatican.va/gpII/documents/homily-pro-eligendo-pontifice\\_20050418\\_it.html](https://www.vatican.va/gpII/documents/homily-pro-eligendo-pontifice_20050418_it.html)(2024.04.09).

## 5. 단행본

- Bustillo, F. X., *Testimoni, non funzionari*,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22.
- Congar, Y., *Ai miei fratelli*, Brescia: Querinaiana, 1968.
- Cox, H., *La città secolare*, Firenze: Vallecchi, 1968.
- De Lubac, H., *Meditazione sulla Chiesa*, Milano: Jaca Book, 2017.
- Dulles, A., *Modelli di Chiesa*, Padova: Messaggero, 2005.
- Eliade, M., *Il sacro e il profano*, Torino: Boringhieri, 1973.
- FRANCESCO, *Gaudete et exsultate*, Milano: Ancora, 2019.

## 6. 정기 간행물

- Caprioli, M., “Il sacerdozio nel magistero di Paolo VI”, *Ephemerides Carmeliticae* 30/II(1979), 345~359.
- Mehl, R., “De la sécularisation à l’athéisme”, *Foi & Vie* 1-2(1966), 70~79.
- Narvaja, J. L., “Narcisismo e mondanità spirituale”, *La Civiltà Cattolica* 4044 (2018), 599~606.
- Pfautz, H., “Christian Science: A Case Study of the Social Psychological Aspect of Secularization”, *Social Forces* 34(1956), 246~251.

국문초록

본 연구는 세속화된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사제들이 영적 세속성을 경계하고, 사제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유지하며 살아가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고자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등장한 네 명의 교황, 바오로 6세, 요한 바오로 2세, 베네딕토 16세, 프란치스코 교황의 가르침들을 바탕으로 사제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세속화의 의미와 위험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올바른 사제 정체성을 유지하며 세속화를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사제직의 놀라운 신비와 사제직의 고귀함을 엿볼 수 있다. 사제직의 신비와 고귀함을 깨닫게 된 사제들은 그리스도와 더욱 일치하여 세속화된 세상에서 ‘제2의 그리스도’로서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세속화, 사제 정체성, 가르치는 직무, 거룩하게 하는 직무, 통치하는 직무.

[번역]

## 파스카 성야의 ‘파스카 초의 마련’에 대한 성경 해설\*

프랑코 만지(Franco Manzi)

윤 종 식 옮김

[가톨릭대학교 전례학 교수·신부]

1. 인간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현존
  - 1.1. “당신께서는 언제나 같으시고 당신의 햇수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히브 1,12ㄴ)
  - 1.2.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십니다
  - 1.3. 주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2.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의 의미
  - 2.1.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 2.2.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행복하다”(히브 22,7)
  - 2.3. “주님, 언제까지 심판을 미루시렵니까?”(묵시 6,10)
  - 2.4. 영광과 권능이 영원토록 주님께 있나이다

파스카 성야 동안 ‘파스카 초의 마련’(praeparatio cerei) 양식문에는 깊이 있는 신학이 담겨 있는 매우 간명한 양식문을 낭송하는 것이 포함된다. 「로마미사경본」<sup>1)</sup>에서 다음과 같이 낭송된다.

\* 이 글은 2023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계광학술연구기금’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작성된 번역문임.

Franco Manzi, “Commento biblico alla 《praeparatio cerei》 della Veglia Pasquale”, *Notitiae* 39(2003), Congregatio de cultu divino et disciplina sacramentorum, Città del Vaticano, 2003, 53-71. 프랑코 만지(Franco Manzi, 1966-)는 밀라노 교구 사제로 로마의 성서대학에서 성서학 석사를 취득하고 예루살렘의 성서대학에서 수학을 하였으며 로마의 마리아눔 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밀라노교구 신학교에서 신약성경과 히브리어 강의를 하고 있으며 다수의 논문을 저술했고, 밀라노 교구의 신학 잡지인 *La Scuola Cattolica* 책임자이다.

1) *Missale Romanum ex decreto sacrosancti oecumenici Concilii Vaticani li instauratum auctoritate Pauli PP.VI promulgatum, Ioannis Pauli PP.II cura recognitum*, editio typica tertia, Typis Vaticanis, 2002, p.339; 참조: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성주간 파스카 성삼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8, 192쪽.

Christus heri et hodie, principium et finis, alpha et omega. Ipsius sunt tempora et saecula. Ipsi gloria et imperium per universa aeternitatis saecula. Amen.

주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시작이며 마침이시고, 알파이며 오메가이시고, 시간도 시대도 주님의 것이오니, 영광과 권능이 영원토록 주님께 있나이다. 아멘.

최근에 작성된 이 본문은 불가타(Vulgata) 역본<sup>2)</sup>에 따라 신약성경의 구절들을 지혜롭게 조합한 결과이다.<sup>3)</sup> 앞부분의 “주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도 오늘도”라는 표현은 히브리서의 “Iesus Christus heri et hodie, ipse<sup>4)</sup> et in saecula.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십니다”(13,8; 참조 1,10~12)에서 유래한다.

반면에 그리스도론적 주제인 “시작이며 마침이시고”는 요한 묵시록에서 따온 부분이다. 요한 묵시록 1장 8절에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또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라고 주 하느님이 자신을 정의하였다.<sup>5)</sup> 하느님께서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같은 개념을 반복했다. “나는 알파이며 오메가이고 시작이며 마침이다”(21,6).<sup>6)</sup>

대신에 22장 13절에서 말씀한 분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이며, 아버지 하느님과 거의 동일한 용어로 자신을 제시한다. “Ego sum A et Ω, primus et novissimus, principium et finis.”<sup>7)</sup> 게다가 요한 묵시록(1,17~

2) 불가타 역본의 경우, 다음의 비평본을 참조하기 바란다. Augustin Merk(ed.), *Novum Testamentum Graece et Latine* [...], Pontificium Institutum Biblicum, Romae, editio decima, 1984.

3) Cf. Annibale Bugnini & Carlo Braga, “Ordo hebdomadae sanctae instauratus”, *Ephemerides Liturgicae* 70(1956), 81~228 특히, 186.

4) 새 불가타 역본은 “ipse”를 “idem”으로 대체한다. 새 불가타 역본에 대한 비평본은 다음의 것을 사용했다. *Novo Vulgata Bibliorum Sacrorum Editio, sacro sancti oecumenici Concilii Vaticani II ratione habita iussu Pauli PP. VI recognita auctoritate Ioannis Pauli PP. II promulgata. Editio typica altera*, Libreria Editrice Vaticana, Città del Vaticano, 1984.

5) 새 불가타 역본은 약간 다른 본문을 제시한다. “Ego sum Alpha et Omega, [...] qui est et qui erat et qui venturus est, Omnipotens.”

6) 새 불가타 역본 “Ego sum Alpha et Omega, principium et finis [...].”

7) 새 불가타 역본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Ego Alpha et Omega, primus et novissimus, principium et finis.”

18)의 저자와의 첫 만남 이후로 부활한 주님은 꽤 비슷한 범주를 사용했다. “[...] Ego sum primus et novissimus, et vivus<sup>8)</sup> et fui mortuus et ecce sum vivens in saecula saeculorum [...]”<sup>9)</sup> 마지막으로, 라오디케이아 신자들에게 보내는 말씀의 머리글에서 그리스도론적 제목이 나타난다. “Principium creaturae Dei. 하느님 창조의 근원”(3,14).

전례 양식문의 세 번째 부분, “영광과 권능이 영원토록 주님께 있나이다. 아멘”은 무엇보다도 요한 묵시록 1장 6절의 그리스도론적 진술을 다루고 있다. “Ipsi gloria et imperium in saecula saeculorum. Amen. 그분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또한 베드로의 첫째 서간 4장 11절에서 비슷한 영광송을 볼 수 있다. “cui est gloria, et imperium in saecula saeculorum. Amen. 그분께서는 영원무궁토록 영광과 권능을 누리십니다. 아멘.” 5장 11절 “Ipsi gloria et<sup>10)</sup> imperium in saecula saeculorum. Amen. 그분의 권능은 영원합니다”(유다서 25절에서 “[...] gloria et<sup>11)</sup> magnificentia, imperium et potestas ante omne saeculum et nunc et in omnia saecula saeculorum. Amen. 영광과 위엄과 권능과 권세가 창조 이전부터, 그리고 이제와 앞으로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비슷한 용어가 신약의 다른 표현에도<sup>12)</sup> 사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자. 구약의 *humus*에 뿌리를 둔 것이 분명하다.<sup>13)</sup>

성경 인용과 암시가 풍부한 전례 양식문인 ‘파스카 초 마련’에 대한 그리스도론적 전망은 두 가지 개념, 곧 ‘인간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현존’과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의 의미’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8) 새 불가타 역본은 “vivens”가 있다.

9) 참조: 묵시 2,8; 이사 44,6; 48,12.

10) 새 불가타역은 명사 Gloria와 접속사 et가 나타나지 않는다.

11) 새 불가타역은 접속사 “et”에 주의한다.

12) 참조: 특히 로마 16,27; 갈라 1,5; 1티모 1,17; 히브 13,21.

13) 참조: 예를 들어, 토비 13,1.13; 시편 103(104),31; 다니 3,26.52-57; 74,83.

## 1. 인간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현존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속성에 대한 개념은 히브리서 13장 8절 “Christus heri et hodie.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이 인용된 전례 양식문에서 나온다. 히브리서 12장 13절에서는 편지의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부분(12.14~13.18)의 주제를 선포하며, 잠언 4장 26절의 말씀과 함께 수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바른길로 나아갈 것을 권유받는다. 길의 은유는 다음 구절에서 실존적 용어로 즉시 명시된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참조: 13,1~18), 하느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면(참조: 12,14~29) 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sup>14)</sup>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인간관계의 평화 추구에 관한 논의는 명백히 교회적인 관점을 취한다. 교회는 소위 “지도자들”(13,7.17.24)의 지도 아래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내부 일치(8절)를 찾는다. 따라서 히브리서는 수신자들에게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유지하도록 권고(13절)하고 일부 이단 경향에 대해 경고(9절)한다. 특히,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께 대한 예배 거행과 유대인의 예배 참여(9절) 사이의 근본적인 양립 불가능성을 분명히 한 후 정통 그리스도교 예배의 주요 노선을 식별해 준다. 하느님 이름을 고백하고(15절) 형제애의 실천(16절)을 말한다. 그리스도의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실존적인 희생에 참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교 예배(참조: 9,14; 10,4~10)는 필수불가결하며 전례와 생활을 분리할 수 없다(참조: 10,36; 13,21).<sup>15)</sup>

14) Cf. Albert Vanhoye, *La structure littéraire de l'Épître aux Hébreux*, Desclée de Brouwer, Paris, 1976, pp.48. 205.

15) Albert Vanhoye, “Culto antico e culto nuovo nell'Epistola agli Ebrei”, *Rivista Liturgica* 65(1978), 595-608. 특히 602-605.



### 1.1. “당신께서는 언제나 같으시고 당신의 햇수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히브 1,12나)

구원 역사 전반에 걸쳐 그리스도의 항구한 정체성을 선포하는 것은 — 일부 성서학자들은 히브리서가 아마도 교회 전통에서 이를 받아들였을 것이라 한다<sup>16)</sup> — 이러한 문학적 지평에 들어맞는다(13,8). 저자는 이 문단의 나머지 부분에 있는 권고적 장르(13,7-18)와는 거리가 있는 전례적 문체로,<sup>17)</sup> ‘권고 담화’의 첫 부분에서 하느님의 아들에 관해 이미 선언한 것을 이 간략한 신앙 고백에서 반복한다(13,21).

“주님, 당신께서는 태초에 땅을 세우셨습니다. 하늘도 당신 손의 작품입니다. 그것들은 사라져 가도 당신께서는 그대로 계십니다. 그것들은 다 옷처럼 낡을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그것들을 옷가지처럼 말아 치우시고 그것들은 옷처럼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언제나 같으시고 당신의 햇수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히브 1,10-12).

히브리서는 시편 102장 26-28절을 인용하면서 하느님 아들의 불변성(ὁ αὐτός, 같으시고, 1,12; 참조: 13,8)을 주장한다. 특히, 창조부

16) Cf. Harold W. Attridge, *The Epistle to the Hebrews*, Fortress Press, Philadelphia, 1989(=Hermeneia: A Critical and Historical Commentary on the Bible s.n.), p.392; Floyd Vivian Filson, “Yesterday”, in *A Study of Hebrews in the Light of Chapter 13*, SCM, London, 1967(=Studies in Biblical Theology: Second Series 4), p.31; William R. G. Loader, *Sohn und Hoherpriester. Eine traditions-geschichtliche Untersuchung zur Christologie des Hebräerbriefes* (=Wissenschaftliche Monographien zum Alten und Neuen Testament 53), Neukirchener Verlag, Neukirchen-Vluyn, 1981, p.183; Otto Michel, *Der Brief an die Hebräer*, Vandenhoeck & Ruprecht, Göttingen, 6. Auflage 1966(=Kritisch-exegetischer Kommentar über das Neue Testament 13), p.490; Jukka Thurén, *Das Lobopfer der Hebräer. Studien zum Aufbau und Anliegen von Hebräerbrief 13*, Åbo Akademi, Åbo, 1973(=Acta Academiae Aboensis. Serie A. Humaniora 47.1), p.183; Hans Windisch, *Der Hebräerbrief*, J.C.B. Mohr, Tübingen, 2. Auflage 1931(=Handbuch zum Neuen Testament 14), p.117.

17) Cf. H. W. Attridge, *Hebrews*, p.392; Paul Ellingworth, *The Epistle to the Hebrews*, Eerdmans, Grand Rapids, Michigan, 1993(=The New International Greek Testament Commentary s.n.), pp.704-705; August Strobel, *Der Brief an die Hebräer*, Vandenhoeck & Ruprecht, Göttingen, 4. Auflage 1991(=Das Neue Testament Deutsch 9,2), p.178.

터 세상 끝날까지 펼쳐지는 구원적 전능하심을 지닌 분으로 그분을 인정한다. 따라서 천사의 이름에 비해 아들의 이름이 — 곧 위엄 — 더 우월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로 밝힌다(참조: 1,4). 히브리서의 경우, 창조된 천사는 필요에 따라 하느님에 의해 ‘바람’이나 ‘타오르는 불’(1,7; 참조: 시편 104,4)처럼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서 살고 있다. 반면에 하느님의 아들은 영원히 안정될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다(참조: 히브 1,10).

원래 문맥에서 볼 때, 시편 102장의 히브리어 본문에는 메시아나 하느님의 아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사실, 이 위로의 시편을 통해 구약의 신자들은 하느님께 직접 말씀드리면서, 그분의 현존과 그분의 개입이 그들이 겪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계속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파스카 신앙에 비추어 이 구약의 기도에 대한 그리스도론적 해석을 제시하며, 마지막 때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에 의해 끝날 심판을 암시한다. 히브리서 1장 8~9절을 다시 읽어 봐도, 시편 45장 7~8절과의 연관성은 매우 분명하며, 항상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정의를 실현하신 결과로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사실, 바로 과거 개입 — ‘어제’(13.8) — 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계십니다”(히브 1,11). “εις τὸν αἰῶνα τοῦ αἰῶνος, 영원무궁하며”(히브 1,8). 이러한 의미에서 시편 101장 26~28절의 인용은 히브리서 13장 8절(εις τοὺς αἰῶνας, “영원히”)의 환호로 간결하게 다루어질 그리스도의 구원 활동에 대한 종말론적 관점을 강조한다.

반면에, 모든 피조물을 심판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분의 창조 활동을 의미한다. 히브리서는 서문(1장 2절 참조)에서 아버지의 창조 사업에 있어서 하느님의 아들의 중개를 목상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시편 101(102)장 26~28절을 그리스도론으로 다시 읽은 덕분에 창조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중개 활동은 가능한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 따르면 우주의 창조자는 하느님의 아

들이다. 하느님과 동일한 창조 활동을 한 아들에 대한 이러한 귀속은 히브리서가 아들에 대해 엄격한 신적 동일성을 인정하고<sup>18)</sup> 그를 70인역에서 사용된 ‘Θεός’(하느님, 1,8-9)라는 칭호와 ‘Κύριος’(주님, 10)이라는 칭호로 지칭한다는 사실에 의해 더욱 확증된다. 습관적으로 테트라그람마톤(יהוה, 야훼), 곧 하느님의 이름을 표현하는 것이다(다니 6,4 참조).<sup>19)</sup> 마지막으로, 하느님인 아들도 부활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sup>20)</sup>을 시작하실 권세를 갖고 있다(참조: 히브 1,11~12; 12,26-27).<sup>21)</sup>

## 1.2.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십니다

이 매우 고상하고 복잡한 그리스도론적 개념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정체성에 대한 일종의 믿음의 환호라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7~18절의 전개에서 이 진술은 바로 앞의 초대와 바로 이어서 앞의 것을 상기시키는 내용 모두에 대해 확증적인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도, 과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지도자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이전의 권고(7절)와는 별도로, 8절의 고백은 아마도 그리스도를 이유로 박해(참조: 10,33~34)받고 순교했을 이들의 믿음<sup>22)</sup> 참

18) 참조: 요한 1,1; 20,28; 로마 9,5; 티토 2,13; 2베드 1,1. Albert Vanhoye, *Situation du Christ. Hébreux 1-2*, Cerf, Paris, 1969(=*Lectio Divina* 59=8), pp.169. 175-177. 183-184. 189-190. 203-204.

19) Cf. Werner Foerster & Gottfried Quell, “Κύριος, Κυρια, Κυριακός, Κυριότης, Κυριεύω, Κατακυριεύω”, in Gerhaer Kittel(ed.), *Theologisches Wörterbuch zum Neuen Testament*, Band III, Kohlhammer, Stuttgart, 1950, pp.1038-1098. 특히 pp.1056-1058. 1087-1094; Léopold Sabourin, *La christologie à partir de textes clés*, Cerf, Paris, 1986(=*Recherches. Nouvelle série* 9), p.17.

20) 2코린 5,17; 갈라 6,15; 참조: 에페 2,15; 4,24; 골로 3,10; 요한 16,21.

21) Cf. Franco Manzi, *Lettera agli Ebrei*, Città Nuova, Roma, 2001(=*Nuovo Testamento. Commento esegetico e spirituale* s.n.), pp.42-43; A. Vanhoye, *Situation*, pp.170-175. 195-207.

22) Cf. Ceslas Spicq, *L'Épître aux Hébreux. Commentaire*, Gabalda, Paris, 1953, t. II(=*Études*

으로 모든 신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인 삶의 생생한 모델이 될 것을 확신시켜 준다. 사실, 그 선포의 교리적 내용은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동일하시며, 하느님과 동일한 불변성을 소유하시기 때문이다.<sup>23)</sup>

후속 권고(13,9~18)와 더불어, 그리스도 정체성의 불변하는 성격은 신자들이 교회 지도자들(7절; 17절, 24절 참조)의 근본적인 가르침과 다른 교리적 경향(9절 참조)에 굴복하지 않고 교회 친교에 머물러야 하는 주된 이유이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공동체에 이미 “갓가지 이상한 가르침”(9절)에 끌려갈 위험이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들은 특정한 음식 규정에 기초한 유대인의 문화 체계를 옹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9절; 9장 10절 참조).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이단으로 이탈할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히브리서는 이러한 계율의 구원적 비효과성<sup>24)</sup>을 단호하게 반복하고, 대신 하느님의 은총에 확고하게 기초를 둔 그리스도교 예배의 타당성을 주장한다.<sup>25)</sup>

### 1.3. 주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파스카 성야를 기념하는 맥락에서, 초 준비를 위한 전례 양식문의 시작 부분에 히브리서 13장 8절을 부분적으로 인용한 것은 “모든 거룩한 밤샘 전례의 어머니”인 파스카 성야에서 특별하고 강렬하게 거행되는 그리스도인 삶의 기초인 그리스도와 죽음과 부활의 신비에 대한 선포를 상징적으로 반영한다. 히브리서 13장 8절의 문학적 맥락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환호 “Christus heri et hodie,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도 오늘도”는 히브리서에 의해 완전히 독창적인 방식으로 발전된 사제적 그리스도론에서 나오는 추가적인 울림으로 가득 차 있다. 특히 이 환호는 그리스도교가 탄생한 지 거의

*bibliques* s.n.), p.421; Albert Vanhoye, “L'épître aux Hébreux”, in Édouard Cothenet, Michèle Morgen & Albert Vanhoye, *Les dernières épîtres. Hébreux-Jacques-Pierre-Jean-Jude*, Bayard, Paris & Novalis, Outremont, 1997(=Commentaires s.n.), p.103.

23) Cf. A. Strobel, *Hebräer*, p.178.

24) 히브 13,9; 참조: 로마 14,17; 1코린 8,8; 콜로 2,16-23.

25) Cf. F. Manzi, *Ebrei*, pp.201-205.

2000년이 지났지만 교회 신앙의 기초는 언제나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상기시켜 준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5,7) — heri 어제(13,8) — 에 겪은 수난을 통하여 “하느님에게서 멜키체덱과 같은 대사제”(5,10), “영원한 대사제”(εις τὸν αἰῶνα, 6,20; 참조: 13,8 εἰς τοὺς αἰῶνας)가 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늘 살아 계시어”(7,25) 아버지께<sup>26)</sup> “이제”(9,24) — hodie 현재(13,8) — 간구할 수 있고 “당신을 통하여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언제나 구원하실 수 있다”(7,25).<sup>27)</sup> 그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성사들에서 절정에 달하는 참된 그리스도교 예배(참조: 13,9-10)를 통해 부활의 십자가의 효과적인 구원의 현존이 ‘지금 여기, hic et nunc’ 실현되며, 이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참조: 4,16)에 다가갈 수 있게 해 준다. 그리하여 최종적인 구원 재화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단 한 번”(ἑφάπαξ, 7,27; 9,12; 10,10) 이룬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희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영원한 구원의 근원”(5,9)이 된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서의 첫 번째 수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온 생애를 다하여 그리스도의 희생을 고수하고 그리스도께서 그 희생을 자신에게 일치시키도록 초대받고 있다.

## 2.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의 의미

‘파스카 초의 마련’ 양식문의 두 번째 그리스도론적 핵심은 요한 묵시록의 일부 표현을 모아 놓은 선집으로, 시작 영광송 전개(1,4-8)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다음에는 그 작품의 다른 부분에서 다시 다루어진다.<sup>28)</sup> 빛의 예식에서 파스카 초를 준비하는 순간에 이러한

26) 히브 7,25; 9,24; 참조: 로마 8,34.

27) Cf. Frederick Fyvie Bruce, *Commentary on the Epistle to the Hebrews*, Mashall, Morgan & Scott, London, 1964(=The New London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s.n.), p.396; A. Vanhoye, “Hébreux”, p.103.

28) 묵시 21,6; 22,13; 참조: 1,17-18; 2,8; 3,14.

표현을 전례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요한 묵시록 1장 4-8절<sup>29)</sup>의 전례적 대화에서 드러나듯이 구원 역사에 관한 이 위대한 예언이 아마도 원래 이미 그리스도교 “교회”(ἐκκλησία, 묵시 1,4)<sup>30)</sup>의 거행 환경에서 낭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sup>31)</sup> 이런 맥락에서 한 독서자는 신자들 앞에서 이 “예언의 책”(τοῦ βιβλίου τῆς προφητείας ταύτης, 22,19)을 선포했다. 실제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저자는 소아시아 교회에 묵시록을 전달했다(참조: 1,4). 그리고 “주일”(1,10)에 기도하기 위해 모인 모든 신자 앞에서 낭독된다.<sup>32)</sup>

29) Cf. Ugo Vanni, “Un esempio di dialogo liturgico in Ap 1,4-8”, *Biblica* 57(1976), 453-467; Charles Homer Giblin, *The Book of Revelation. The Open Book of Prophecy*, Liturgical Press, Collegeville, Minnesota, 1991(=*Good News Studies* 34), p.37; Albert Vanhoye, *Prêtre nouveau selon le Nouveau Testament*, Cerf, Paris, 1980(=*Parole de Dieu* s.n.), p.312.

30) Ugo Vanni, *L'Apocalisse. Ermeneutica, esegesi, teologia*, EDB, Bologna, 1991(=Associazione Biblica Italiana. Supplementi alla Rivista Biblica 17), p.104. 이 책에서 주역 ἐκκλησία는, 지역적 관점에서 다르게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부르신 신자들의 모임이라는 구약성경의 일반적인 의미를 유지한다. 참조: 1역대 28,8; 29,20(ἐκκλησία κυρίου, 주님의 회중); 2역대 6,3.12.13; 20,5.14; 23,3; 29,23.28.31.32(ἐκκλησία Ισραηλ, 이스라엘 온 회중).

31) 요한 묵시록의 전례적 ‘삶의 자리’(Sitz im Leben)를 심화하는 데 기여한 연구자들이 있다. William Hugh Brownlee, “The Priestly Character of the Church in the Apocalypse”, *New Testament Studies* 5(1959), 224-225; Allen Cabaniss, “A Note on the Liturgy of the Apocalypse”, *Interpretation* 7(1953), 78-86; Gerhard Dellling, “Zum gottesdienstlichen Stil der Johannes Apocalypse”, *Novum Testamentum* 3(1959), 107-137; Peter von der Osten-Sacken, “Christologie, Taufe Homologie — Ein Beitrag zu Apc Joh 1, 5f.”, *Zeitschrift für die neutestamentliche Wissenschaft und die Kunde der älteren Kirche* 58(1967), 255-266; Austin Marsden Farrer, *A Rebirth of Images. The Making of St. John's Apocalypse*, Dacre Press, Westminster, 1949; Klaus-Peter Jörns, *Das hymnische Evangelium. Untersuchungen zu Aufbau, Funktion und Herkunft der hymnischen Stücke in der Johannesoffenbarung*, Mohn, Gütersloh, 1971(=*Studien zum Neuen Testament* 5); Samuel Läuchli, “Eine Gottesdienststruktur in der Johannesoffenbarung”, *Theologische Zeitschrift* 16(1960), 359-378; Lucertta Mowry, “Revelation 4-5 and Early Christian Liturgical Usage”,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71(1952), 75-84; U. Vanni, *Apocalisse. Ermeneutica*, p.74.

32) Cf. Selby Vernon McCasland, “The Origin of the Lord's Day”,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49(1930), 65-82; Willy Rordorf, *Der Sonntag. Geschichte des Rube-und Gottesdiensttages im ältesten Christentum*, Zwingli-Verlag, Zürich, 1962(=*Abhandlungen zur Theologie des Alten und Neuen Testaments* 43), pp.203-212; W. Stott, “A Note on the Word KYPIAKH in Rev. I. 10”, *New Testament Studies* 12(1965), 70-75; Kenneth Albert Strand,

이 공적 낭독의 시작 부분에서 독서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영광을 드리며 응답하는 신자들에게 인사한다.<sup>33)</sup>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 피로 우리를 죄에서 풀어 주셨고, 우리가 한 나라를 이루어 당신의 아버지 하느님을 섬기는 사제가 되게 하신 그분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1,5ㄴ~6).

‘파스카 초의 마련’의 양식문의 세 번째 줄은 이 영광송 응답에 서 따온 것이다. “Ipsi gloria et imperium per universa aeternitatis saecula. Amen. 영광과 권능이 영원토록 주님께 있나이다. 아멘.” 대신, 그 첫 번째 구절의 그리스도론적 제목인 “알파와 오메가”는 독서자의 후속 개입에서 파생되었으며, 이렇게 선포한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또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계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1,8).

## 2.1.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확실히 언어적 무지로 인한 것이 아닌 의도적인 문법적 부정확성<sup>34)</sup>을 가지고 요한 묵시록의 저자는 이 원래의 신성한 자기 선언에서 구원 역사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구체화한다. 요한 묵시록의 역사 신학은 하느님이 바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또 앞으로 오실”<sup>35)</sup> 그분이라는 근본적인 신앙 인식에 기초를 두고 있다.

“Another Look at ‘Lord’s Day’ in the Early Church and in Rev. 1.10”, *New Testament Studies* 13(1967), 174-181; U. Vanni, *Apocalisse. Ermenutica*, pp.87-97.

33) Cf. U. Vanni, *Apocalisse. Ermenutica*, pp.26. 74-75. 101-113.

34) 문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치사 ‘ἀπό’가 주격인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또 앞으로 오실”(ὁ ὢν καὶ ὁ ἦν καὶ ὁ ἐρχόμενος)을 지배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곧바로 이어진 “일곱 영에게서”(ἀπό τῶν ἑπτα πνευμάτων) 분명해지듯이 요한 묵시록에서는 속격과 함께 ἀπό를 대개 정확하게 사용한다. cf. U. Vanni, *La struttura letteraria dell’Apocalisse*, Morcelliana, Brescia, 2a ed., 1980(=Aloisiana 8a), p.176; C. H. Giblin, *Revelation*, pp.40-41.

다르게 말하면, 하느님은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에 살아 계시며 활동한다. 과거에 하느님은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을 돌보셨던 것처럼, 현재와 미래에도 계속해서 교회에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과거에 하느님은 요한 묵시록의 시작 부분부터 역사 속에서 하느님의 역동적인 현존을 더욱 구체화하는 속성으로 정의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결정적으로 계시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는 구원 역사 전반에 걸쳐 하느님이 약속한 것에 대한 “충실한 증인”으로서의 역할로 고려되었다. 이러한 구원의 약속은 인간의 죽음을 겪기까지 사람들과 연대하는 형제가 된 예수에 의해 결실을 맺었다. 그리고 부활한 예수가 다른 사람들과의 이러한 연대로 인하여 그들에게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을 위해 영원히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전해 주었다(참조: 1,6).

사실, 예수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신자들에게 성령을 주었는데, 이 성령<sup>36)</sup>은 여기(1,4)와 다른 구절(3,1; 5,6)에서 “일곱 영”(ἀπό τῶν ἑπτα πνευμάτων)이라고 매우 독창적으로 표현되었다. 물론 성령은 오직 한 분이다. 그러나 요한 묵시록과 더 일반적으로 성경의 숫자 상징에 따르면 숫자 7은 특정한 실재 전체를 나타낸다. 더욱이 요한 묵시록은 복수인 ‘일곱 영’을 통해 성령의 다양한 나타남을 암시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성령이 인간의 활동과 역사의 사건 속에 현존하게 하는 모든 은사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하느님의 계시에 직면하여, 전례 거행을 위해 모인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그 이야기를 다시 읽고 그 궁극적인 의미를 이해한다(1,5ㄴ~6). 더 정확하게는 역사를 신앙으로 해석할 줄 아는 사람들의 예언적 시선으로 역사를 바라볼 때, 교회는 교회 내부의 어려움과 무엇보다도 외부 박해로 인해 절망의 나락에 떨어질 수 없다. 이러한 유혹을 피하기 위해 신자들은 먼저 자신들이 그리스도께 사랑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받는 충실한 사랑을 인식하도록 초대받는다. 과거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함으로써 그들

35) 묵시 1,4,8; 4,8; 참조: 11,17; 16,5.

36) 참조: 1코린 12,4,7-13; 에페 1,18; 4,4.



에 대한 사랑을 나타냈다. 이 용서 덕분에 신자들은 죄인으로 살던 과거에서 벗어났다. 그러므로 이 근본적인 전환점은 그들과 그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아직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구원 개입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sup>37)</sup>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의 사랑과 구원을 주변에 전파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제들'(참조: 탈출 19,6)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그들이 이 사랑을 전파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을 그분의 구원 사업에 참여시키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원을 받기 때문이다.

현재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통해 독서자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찬 메시지를 듣는다(οἱ ἀκούοντες, 1,3; ὁ ἀκούων, 22,17) 공동체에 전한다.

“보십시오, 그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입니다.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입니다”(묵시 1,7).

만약 하느님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또 앞으로 오실”(1,8) 분이라면 이야기의 끝에서 그분이 오실 길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길일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에서 악이 피어나가는 상황 앞에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역사의 끝, 아니 오히려 역사의 끝은 그리스도에 의해 결정적으로 끝나는 구원이 될 것이다. 의심할 바 없이, 악에 대한 이 결정적인 승리는 그의 활동이 될 것이다(참조: 6,2). 그러나 그것은 또한 예수께서 자신과 연결된 교회 공동체의 활동이 될 것이다.

반면에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사실(참조: 11,8)이라면 요한 묵시록의 경우 이 십자가형의 영향이 역사 전반에 걸쳐 남아 있다는 것도 똑같이 사실이다. 불신자들은 언제

37) 참조: 1요한 4,10; 로마 5,6-10; 2코린 5,18-19.

나 어떤 식으로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표시로 “가슴을 칠 것”이다.

구원 역사에 대한 이러한 폭넓은 개괄적 결론에는<sup>38)</sup> 하느님이 “알파와 오메가”(1,8)라고 자신을 선언함으로써, 하느님은 현존하는 모든 실재의 “시작이며 마침”(21,6)으로 자리한다. 이러한 양극성을 통해 하느님은 인류 역사의 근원이자 궁극적인 의미임을 주장한다. 그리스어 알파벳에서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포함되지 않은 문자가 없는 것처럼, 인간 역사에서도 겉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구원의 전능함을 피할 수 있는 실재는 없다. “전능하신”(παντοκράτωρ) 하느님은 매 순간 모든 사람의 일을 인도하실 수 있다.

## 2.2.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행복하다”(히브 22,7)

‘파스카 초 마련’의 양식문에 묵시록의 이러한 표현이 포함된다. 관점에서 볼 때, 요한 묵시록 1장 8절에서 하느님이 스스로 “알파와 오메가”로 선포한 것은 책 전체의 예언적 성격을 확증해 주는 의미가 있다. 사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파스카 전례의 맥락에서 모든 성경 예언(참조: 2코린 1,20)을 성취시킨 신비가 현실이 된다. 그러므로 이미 그리스도교 전례의 맥락에서 읽히고 그 의미가 확장되도록 예정된 요한 묵시록의 “예언의 책”(22,19)의 말씀조차도 오늘날 교회에 더 큰 가치를 갖는다.

더 정확하게는, 요한 묵시록 1장 8절에서 저자는 1인칭 단수를 사용한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하느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즉시 인식한다(“주 하느님께서서 [...] 말씀하십니다”). 이 문학적 세부 사항은 책 전체의 예언적 성격을 확증해 준다. 저자는 성경 예언의 뒤를 잇는다. 예언의 본질적 기능은 미래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리스어 προφήτης가 의미하는 것처럼 예언자는 본질적으로 하느님을 ‘대신

38) Cf. U. Vanni, *Apocalisse. Ermeneutica*, pp.101~113.

하여'(접두사 *προ-*), '말하는'(동사 *φημί*) 사람,<sup>39)</sup> 하느님이 그의 말과 행동에 영감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친히 보낸 예언자가 백성 앞에서<sup>40)</sup> 이 사명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하느님과 같은 시선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을 볼 수 있을 만큼 그분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하여 예언자는 하느님의 논리로 자신의 삶의 결과나 자기 백성의 역사를 해석한다. 그는 과거의 사건과 무엇보다도 현재의 사건에서 하느님께서 그 순간에 자신과 자신을 예언하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이 일어나기 '전에'( *προ-*) 그분이 알려 준 것조차도 구원의 관점에서 유용하다.<sup>41)</sup>

요한 묵시록 1장 8절의 “주 하느님께서서 [...] 말씀하십니다”라는 신탁에 대한 명확한 설명에서 명백히 알 수 있듯이, 묵시록 저자의 예언적 행위는 자신의 정체성을 믿는 이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그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신 분이 하느님이심을 전제한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또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를 인식한 독자들은 서기 1세기 말에 기도하려 모인 그리스도교 공동체 앞에서 “이 예언의 말씀”( *προφητείας*, 1,3; 22,7)을 선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ἀποκάλυψι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1,1)를 실현시켰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파스카 성야와 같은 전례 거행에서 이 말씀은 그 모든 예언적 계시의 힘을 발휘하는 데 가장 적합한 맥락 중 하나로 선포된다.

## 2.3. “주님, 언제까지 심판을 미루시렵니까?”(묵시 6,10)

요한 묵시록 1장 6절의 영광송과 1장 8절의 하느님의 자기 선

39) 참조: 민수 12,2; 2사무 23,2; 1열왕 22,28; 2역대 36,12; 예레 20,9; 26,16; 에제 3,27; 38,17; 다니 9,6; 야모 3,8; 히브 1,1; 야고 5,10; 2베드 1,21.

40) 참조: 특히 예레 25,3; 다니 9,6.

41) Cf. Franco Manzi, “Il discernimento profetico dei segni di Dio. Spunti teologici biblici alla luce di Isalia 7,1-17 e del Vangelo secondo Luca”, *Scuola Cattolica* 12(2001), 213-271.

언이 1세기 말 소아시아 교회에 부여된 예언적이고 계시적인 가치를 이해하려면, 그 시대에 공동체가 겪고 있던 심각한 위기 상황을 기억하는 것이 유용하다. 특히 로마제국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한 유혈적이고 조직적인 박해로 인해 이들 공동체 중 다수는 절망에 빠질 위험이 있었다(참조: 1,9; 12,13.17; 13,7).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갇혔다(참조: 2,10). 다른 사람들은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sup>42)</sup> 묵시록의 저자는 자신의 신앙 증언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고 직접 말한다(참조: 1,9). 세속적이고 무적인 로마는 불과 반세기 전에 탄생하여 제국 영토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던 작은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반대편에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믿음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로마의 박해가 촉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참조: 2,9; 3,9)으로 그리스도교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동체는 끈기를 갖고 인내했다(참조: 3,8).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제 곧 죽게 되었다(참조: 3,1).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자신들의 믿음을 부인하게 되었다. 예수님을 계속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믿음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컸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부활한 그리스도의 우주적 주권을 선포했다. 그러나 사실 모든 사람은 제국의 권력의 감시하에 있었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신이 아니라, 지금은 지상에서 신으로 숭배받는 로마 황제가 지배하는 것 같을 것이다.<sup>43)</sup>

이러한 극적인 상황에 직면하여 묵시록의 저자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예언자가 되려고 노력한다. 즉 그는 신앙의 눈으로 그 위기의 시기를 읽으려고 노력한다.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위기에 그들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다. 그도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갇혔으며, 그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환난을 겪고 있다(참조 1,9). 그러므로 그는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안다. 그러므로 선과 악<sup>44)</sup>을 ‘영적’(πνευματικῶς, 11,8)<sup>45)</sup>으로 분별하도록<sup>46)</sup>

42) 참조: 묵시 2,13; 6,9-11; 7,13-14; 16,6; 18,24; 20,4.

43) 참조: 묵시 13,4.8.12-15; 14,9.11; 19,20; 20,4.

44) 참조: 묵시 13,18; 17,9. cf. U. Vanni, *Apocalisse. Ermeneutica*, pp.63-72.

노력하고 권고한다. 진정한 실재와 허상뿐인 것 사이에서의 분별, 역사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임금들”(1,5)47과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한”(1,6) 부활한 그리스도 사이에서의 분별이다. 물론 그리스도의 구원 능력은 인간의 자유에 결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참조: 3,20). 그러나 그분은 “주님들의 주님이시며 임금들의 임금”(17,14; 참조: 19,16)이며,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새 하늘과 새 땅”(21,1)을 향해 인류 역사를 이끈다. 그곳에서는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21,4).

그러므로 이 책에서 요한은 하느님의 구원적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의 증언을 담고 있다.<sup>48)</sup> 그리고 바로 이러한 믿음 덕분에 하느님은 그에게 ‘예언적’ 임무를 맡겼다. 그분의 이름으로 소아시아 교회들(참조: 1,1~3; 22,6~8)에게 말하여 역사의 종말이 아니라 역사의 목적을 보여 준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책이 그리스어로 ‘계시’를 의미하는 첫 번째 단어인 그리스어 ‘ἀποκάλυψις’로 정의되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역사상 모든 것이 명확하지는 않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명백한 실재와 숨겨진 실재, 겉모습과 진실이 있다. “큰 용, 그 옛날의 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묵시 12,9)가 땅으로 쫓겨난 후에도(참조: 묵시 12,9.13) 계속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들을 통하여 악을 행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영은 마치 바람처럼 “불고 싶은 데로”(요한 3,8) 불고 — 요한 묵시록의 빈번한 신학적 수동태가 암시적으로 알려주듯이<sup>49)</sup> — 필요 이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이 선을 행하도록(참조: 묵시 19,8) 은밀하게 이끈다.

45) 참조: 1코린 2,13. cf. U. Vanni, *Apocalisse. Ermeneutica*, p.80.

46)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권고적인 담화이다. “Ο ἕχων οὖς ἀκουσάτω τί τὸ Πνεῦμα λέγει ταῖς Ἐκκλησίαις”[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묵시 2,7.11.17.29; 3,6.13.22)]. Felipe Pailla, “Aquestá la mente que tiene sabiduria”(Ap 17, 9a). *Naturaleza y función de la reflexión spienccial en el Apocalipsis*, Pontificia Universitas Gregoriana, Roma, 1982.

47) 묵시 6,15; 17,2.18; 18,3.9; 19,19; 21,24.

48) 참조: 묵시 1,8; 4,8; 11,17; 15,3; 16,7.14; 19,6.15; 21,22.

49) Cf. U. Vanni, *Apocalisse. Ermeneutica*, pp.37. 258, n.10; pp.324. 329.

요한 묵시록의 저자는 역사에서 베일을 제거하려고 노력했다. 사실 그는 하느님의 활동을 발견하는 것이 위기에 처한 형제들의 믿음에 도움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여전히 활동하고 계시며 신자들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면, 특히 고통받고 박해 받는 사람들의 믿음이 강화되었을 것이다. 요한 묵시록의 저자는 낙담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잡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밀이 계속 자라는 것(참조: 마태 13,24-30)을 엿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도 이 모든 것의 베일을 제거하는 것은 특히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이제 인내의 한계에 이르러 하느님께 청하러 오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희망의 원천이 된다.

“기록하시고 참되신 주님, 저희가 흘린 피에 대하여 땅의 주민들을 심판하고 복수하시는 것을 언제까지 미루시렵니까?”(묵시 6,10).

다르게 말하면, 하느님이 참으로 우주의 주권자라면, 왜 그분은 자신의 신자들이 박해받고, 투옥되고, 죽임을 당하도록 허용하시는 걸까? 실제로 역사는 임의의 법칙을 따르거나 단순히 인간 결정의 결과일 수 있는가? 하느님과 그분의 역사 속 영원한 구원 활동에 대한 믿음에 대한 심각한 의심을 드러내는 이러한 질문에 직면하여 요한 묵시록의 저자는 확고한 믿음의 대답을 제시한다. 실제로 당신의 예언자를 통해 응답하는 분은 바로 하느님이다. 따라서 로마 황제나 “세상 임금들”에 의해 지휘되는 것처럼 보이는 역사의 베일 너머에 그분이 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이 역사의 주인임을 분명하게 선언한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고 시작이며 마침이다”(묵시 1,8; 21,6). 그러나 다양한 인간사에 관여하는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하느님의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요한 10,30; 17,11.21 참조) 이기에, 아들은 부활한 후에도 계속해서 아버지의 일을 수행한다.<sup>50)</sup> 이러한 의미에서 영광을 받은 그리스도는 “처음이며 마지막”

50) 참조: 요한 5,36; 8,28-29; 9,4-5; 10,25.31.37; 14,10-11.31.

(묵시 1,17; 2,8)인 분, 즉 구약의 신자들이 오로지 하느님께만 행했던 칭호(참조: 이사 44,6; 48,12)로 찬양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요한 묵시록 22장 13절에서 아버지 하느님과 동일한 이름으로 자신을 드러낸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다(참조: 1,8; 21,6). “나는 알파이며 오메가이고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시작이며 마침이다.” 더욱이 그의 신적 위엄을 드러낸 십자가의 수난과 부활은 모든 피조물이 아버지와 함께, 마치 아버지처럼 흠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어좌에 앉아 계신 분과 어린양께 찬미와 영예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5,13).

## 2.4. 영광과 권능이 영원토록 주님께 있나이다

이것이 바로 파스카 성야 동안 히브리서, 요한 묵시록, 신약 전체와 완벽한 연속성을 지닌 ‘파스카 초 마련’ 양식문으로 선포되는 하느님의 비전이다. 서기 1세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위기는 사회에 존재하는 외적 원인과 모든 신자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내적 원인에서 기인한다. 초기 교회 당시 그리스도교 공동체 전체를 위기에 빠뜨린 주된 외적 원인은 로마 황제들의 잔혹한 박해, 좀 더 미묘하게는 이교도적 사고방식과의 충돌이었다. 그러나 위기의 가장 내적인 원인은 당시에도 현재에도 인류 역사에서 성령의 표징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삶에 대한 비전이 무너진 것이었다. 오늘날 사람들의 이러한 심각한 신앙의 어려움에 직면하여도 냉담하지 않고, 교회는 파스카 여행을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부활을 계속해서 선포한다.

*Ipsius sunt tempora et saecula. Ipsi gloria et imperium per universa aeternitatis saecula Amen.*

시간도 시대도 주님의 것이오니, 영광과 권능이 영원토록 주님께 있나이다. 아멘.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오늘날의 신자들에게 있어

서, 이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부활에 비추어, 파스카 촛불의 빛으로 상징되는 것을 재발견하도록 우리를 재촉하는 예언적 신탁이다. 그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를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향해 이끄는 분은 바로 하느님이다.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은 더 이상 삶의 어려움과 박해가 아니다. 그러나 박해와 어려움을 완화시키는 것은 믿음이다.

그러므로 이 전례 양식문과 행위로 표현된 예언은 이것이다. 역사는 부활한 예수(참조: 묵시 6,2)의 역동적이고 승리를 거두는 활동에 의해 심오하게 활력을 얻는다.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들일 것이다”(요한 12,32)라고 약속한 그리스도의 파스카 영광의 신비에 대한 암시를 통하여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신앙으로 인류의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느님이 끊임없이 모든 인류를 당신께로 끌어들이는 것을 멈추지 않으며,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느님으로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착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을 놀랍게 하는 것<sup>51)</sup>을 재발견할 수 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주님께서 하신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민족들의 임금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 참되십니다!”(묵시 15,3).

51) ‘놀랍게 하다’와 연관된 구절들이 있다. 묵시 13,3; 15,1; 17,6.7.8.



## 국문초록

‘모든 거룩한 밤샘 전례의 어머니’인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룩한 밤인 파스카 성야는 네 예식, 빛의 예식, 말씀 전례, 세례 예식 또는 세례 갱신식, 성찬 전례로 구성되어 있다. 성서학자인 프랑코 마지는 파스카 성야에서 빛의 예식 중, ‘파스카 초의 마련’(Praeparatio cerei) 전례 양식문에 인용된 성경 구절들의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하여 그 안에 포함된 밀도 있는 신학들을 밝혀내고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암시해 준다.

풍성한 성경 인용과 암시로 이루어진 ‘파스카 초의 마련’ 전례 양식문에는 두 가지의 그리스도론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인간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현존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의 의미이다.

‘인간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현존’은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와 히브리서 1장 12절 “당신께서는 언제나 같으시고 당신의 햇수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를 기본으로 확인되며, 시편 102장 26-28절을 인용한 히브리서 1장 10-12절도 참조할 수 있다. 이 성경 구절들은 하느님 아들인 그리스도의 불변성을 증거하고, 아버지 하느님의 창조 활동에도 함께했음을 밝혀 준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의 의미’는 초기 그리스도교의 전례 거행 환경에서 낭독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한 요한 묵시록 1장 4-8절의 전례적 대화로, 환난 중에 있던 당시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응답이었다. 이 전례적 대화에서 나타난 구원 역사에 관한 위대한 예언은 외적으로는 로마 황제의 박해와 유대인들의 다양한 견제, 내적으로는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하느님의 전능하심이 발휘되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하리라는 충실한 사랑에 대한 인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어준다.

‘파스카 초의 마련’ 전례 양식문에 조합된 성경 구절들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초기 교회의 이교도적 사고방식과의 충돌로 로마 황제들의 잔혹한 박해가 있었고, 또한 하느님과 그의 아들로부터 배출된 성령의 표징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부족으로 신앙의 어려움이 생겼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파스카 초의 마련’ 전례 양식문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외적 박해는 없다고 하더라도 하느님의 전능하심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현존에 대해 의심하는 심각한 신앙의 어려움에 직면하여도 그들이 냉담하지 않고, 교회가 거행하는 파스카 신비를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부활을 계속해서 선포함으로써 성령의 표징을 알아보는 신앙생활로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주제어: 파스카 성야, 빛의 예식, 파스카 초, 파스카 초의 마련, 파스카 성야의 성경.